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朴 時 翼

風水地理 理論과 住居立地論과의
關係에 관한 研究

- 서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lation to Feng - Shui Ji - Ri theory and
location theory of the residence
— Focus in seoul —

200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不動產學科
不動產經營管理 專攻

姜 賢 求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朴 時 翼

風水地理 理論과 住居立地論과의
關係에 관한 研究
- 서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lation to Feng - Shui Ji - Ri theory and
location theory of the residence
— Focus in seoul —

이 論文을 不動産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不動産學科
不動産經營管理 專攻

姜 賢 求

姜賢求의 不動産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研究의 目的과 意義	1
第 2 節 研究의 方向	2
第 2 章 風水地理 理論의 哲學的 背景	4
第 1 節 風水地理 發生地	4
第 2 節 三神 五帝 思想	5
第 3 節 陰陽 五行 思想	7
1. 陰陽 五行說의 發生	7
2. 五行의 기운	9
3. 五行의 相生과 相剋	10
第 4 節 地磁氣와 地靈	10
1. 地磁氣와 方位	10
2. 地靈의 影響	12
第 5 節 人間의 本質과 風水地理 理論의 바탕	14
1. 人間의 本質	14
2. 風水地理 理論의 바탕	15
第 3 章 風水地理 理論의 地勢 分析 方法	18
第 1 節 風水의 用語	18
第 2 節 風水地理의 地氣 構成 要素	21
1. 自然的 기운	21
2. 人爲的 기운	23

第 3 節 山과 明堂	24
1. 땅의 기운	24
2. 山의 기운	24
3. 山의 種類	25
4. 地勢의 種類	28
5. 山勢를 分析하는 方法	31
第 4 節 물과 明堂	31
1. 물의 기운	31
2. 물의 規模와 形態	32
3. 물이 흐르는 方向	34
4. 水口와 집터	36
第 5 節 龍과 明堂	38
1. 龍의 形態	38
2. 龍의 기운 分析 方法	41
3. 龍의 種類	42
第 6 節 穴과 明堂	44
1. 穴의 發生	44
2. 穴의 構造와 形態	46
3. 穴의 種類	48
4. 穴 周邊의 地勢 分析	50
第 7 節 四神砂	52
1. 四神砂의 名稱	52
2. 四神砂의 3大 機能	54
3. 四神砂의 生氣	55
4. 四神砂의 影響	57
第 8 節 方位와 明堂	58
1. 佩鐵	58
2. 佩鐵의 構成과 解釋	61
3. 坐向法	63
4. 配合 方位와 不配合 方位	64

第 4 章 風水地理와 住居 立地	68
第 1 節 意義	68
第 2 節 陽基 風水와 住居 立地	69
1. 集團 陽基 風水	70
2. 個人 陽基 風水	73
第 3 節 住居 立地의 環境的 要素	73
1. 傳統的 住居 立地 條件	73
2. 現代的 住居 立地 條件	78
第 4 節 風水地理와 都市 住居 立地	81
1. 傳統的 都邑 風水	81
2. 現代的 都市 風水	82
第 5 章 서울의 風水地理	92
第 1 節 서울의 歷史	92
第 2 節 歷史로 본 서울의 風水地理	93
1. 高麗 時代	93
2. 朝鮮 初期	95
3. 朝鮮 中期	103
第 3 節 서울 立地와 風水地理 理論	106
1. 서울의 立地	106
2. 서울의 風水地理	107
3. 서울의 有名한 明堂과 凶家	114
第 6 章 結 論	119
參考 文獻	123
現地 踏査한 곳의 一覽表	124

表 目 次

[표 1] 구성과 포태법 및 그 길흉관계 표	35
[표 2] 배합 2자 방위	65
[표 3] 불배합 2자 방위	65
[표 4] 배합 3자 방위	66
[표 5] 불배합 3자 방위	67
[표 6] 서울 사대문과 오제 사상	102

그 립 목 차

[그림 1] 산의 형태에 따른 3품격	26
[그림 2] 오행산의 형태	27
[그림 3] 원형 지세의 종류	29
[그림 4] 행주형 지세를 갖춘 파리 시가지	36
[그림 5] 물 흐름의 종류	37
[그림 6] 용의 종류	39
[그림 7] 용의 여러 가지 모양	40
[그림 8] 용의 5단계 변화 과정	45
[그림 9] 혈의 4가지 종류	50
[그림 10] 사신사	53
[그림 11] 사신사의 반사경 작용	55
[그림 12] 패철의 8방위와 24방위	59
[그림 13] 한양의 신성 공간	98
[그림 14] 서울의 북악산 전경	109
[그림 15] 서울의 인왕산 전경	109
[그림 16] 서울의 지세	113
[그림 17]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윤보선 전대통령의 집	116
[그림 18] 서울 이화동에 위치한 이화장	116
[그림 19] 서울 안암동에 위치한 개운사	118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과 意義

風水地理가 人間 生活에 적용되기 시작한 때는 人類가 原始的 삶을 누리고 있던 때부터이다. 아득히 먼 옛날에는 바람(風)과 물(水)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條件이었기 때문이다.

颱風과 같이 강한 바람이 불거나 洪水나 한발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는 사람이 마음놓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기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풍부한 地域이라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住居地를 선택할 때 바람과 물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必要性으로 인류의 주거는 古代 文明期를 거치면서 東洋圈에서는 東洋 思想과 접목하면서 그 理論的 體系性을 構築하며 發展을 거듭하여 派生的 東洋學에서 風水地理 理論으로 점차 獨自的인 領域의 學問으로 거듭나 東洋 學問에 한 分野를 形成하게 되었다.

그러나 近代에 이르러 日帝의 文化抹殺 政策과 現代에 이르러 급격하게 導入 擴散된 西洋 文物에 영향으로 風水地理 理論은 迷信的 要素가 많은 前近代의 理論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風水地理 理論은 自然과 人間의 相互 關係를 밝혀 궁극에는 人類의 質 높은 삶에 기여하기 위한 歷史가 오래 된 學問이다.

風水地理 理論이 東洋의 經驗科學임에도 불구하고 體系的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學問의 領域 밖으로 인식되는 시점에서 전통 風水地理 理論의 科學化와 客觀化를 위한 研究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研究의 한 分野로써 우리 先祖들의 住居 立地 理論이 風水地理 理論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명확히 解釋하여 이를 바탕으로 과거의 住居 立地 理論을 現代의으로 適用하여 繼承 發展할 수 있는 方案을 摸索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東洋的인 生活의 體驗과 哲學으로 구성된 風水地理說의 住居 立地論에 대한 본 研究는 韓國의 傳統的인 生活과 住居 立地의 意味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自然의 本質을 解釋하려는 現代科學의 발전을 위

해서도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第 2 節 研究의 方向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마을이나 都市의 입지를 보면서 風水地理 理論이 우리들의 住居 立地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 思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傳統社會에서 環境文化에 영향을 준 風水地理說은 대부분의 都邑이나 住居地의 立地를 정할 때 가장 큰 影響을 미쳤음을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風水地理 理論은 크게 나누면 陰宅와 陽宅(陽基)으로 나눌 수 있으나 住居文化와 깊은 聯關을 가졌던 風水說은 陽宅風水로서 그 理論에 의하면 背山臨水의 宅地를 가장 좋은 집터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 文明이 오늘날처럼 發達되기 이전에 있었던 風水地理說은 과거에만 있을 수 있는 일종의 迷信으로 看做하여 學問的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에도 '風水地理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른 자가 祖上의 墓所를 明堂에 묻어서 그 德으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속되고 터무니없는 迷信」으로만 알고 있다.¹⁾

그러나 風水地理는 科學이며 우리 傳統과 脈을 같이하는 중요한 思想임을 수 천년의 歷史的 기록에 의해 確認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科學의 時代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祖上들의 사상에 影響을 준 風水地理 理論을 科學的으로 分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風水地理說을 研究하는 과정에서 風水地理의 發生地가 韓國이었음을 알게되었으나 現存하는 風水書 대부분은 中國에서 건너 온 것들로 現存하는 書籍인 「靑鳥經」, 「錦囊經」, 「胡舜申의 地理新法」, 「名山論」, 「人子須知」등과 韓國 風水地理學의 原典이랄 수 있는 李重煥의 「擇里志」를 參考資料로 하였다.

본 研究의 順序는 제1장의 序論에 이어 제2장에서 風水地理의 理論의 哲學的

1) 박 시익, 풍수지리설과 건축 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背景에 대하여 調査하였고 제3장에서 風水地理 理論의 地勢 分析 方法을 제4장에서는 風水地理 理論과 住居 立地の 關係를 環境的 要素를 重點으로 調査하였고 제5장에서는 서울의 地勢가 風水地理 理論上 合當한가를 서울의 主要 地域을 中心으로 風水理論을 適用하여 檢討하고 제6장 結論에서는 본 研究의 結果를 要約하여 說明하였다.

第 2 章 風水地理 理論의 哲學的 背景

第 1 節 風水地理 發生地

風水地理는 몇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韓國의 傳統 思想으로 이 땅을 터전으로 살았던 옛 선인들에 의해 생겨나서 中國을 비롯한 東洋 여러 나라에 전파되었다. 그런데 風水地理가 中國에서 發生해서 우리 나라에 전달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外國의 侵略으로 우리 固有 文化가 말살된 채 中國에서 逆輸入된 책만 봐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風水地理가 韓國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文獻을 통해서도 確認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우리 國土의 地理的 條件이나 우리 先祖들의 信仰形態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첫째, 風水地理는 산의 變化가 다양한 地域에서만 發生이 可能하기 때문에 中國 中元 地帶와 같이 산이 없고 평탄한 대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산의 性質이나 概念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韓國의 地理的 條件은 산이 國土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산을 生活의 터전으로 하는 곳에서 風水 地理가 발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 山神 崇拜 思想이 風水地理를 발생하게 했다. 우리 先祖들인 古代人들은 山神을 守護神으로 하여 한 지역에 있는 큰 산을 鎮山이라고 하여 自然 崇拜 思想이 매우 강하였다.

『錦囊經』이나 『人子須知』와 같이 中國의 風水地理 책자에 산을 단순히 기운의 發源處로만 취급해서 山神概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과 對照的이다.

셋째, 고인들 역시 風水地理와 밀접한 關聯이 있다. 고인들은 대부분 산 정상에서 평지로 연결되는 稜線 위에 위치해 있어 이는 龍의 脈을 따라 자리잡은 것으로 風水地理 理論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文獻의 기록에 의해서도 風水地理가 韓國에서 發生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 「三國遺史」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古記』에 나타나 있기를, 옛날에 桓因의 아들 桓雄이 계시어,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계를 구하고자 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三危太白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할 만했다. 이에 天符印 세 개를 주며 내려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했다. 桓雄은 그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太白山 神檀樹 밑에 내려와 이 곳을 神市라고 불렀다.

하늘의 神인 桓因이 人間 世上을 내려다보며 ‘三危太白’을 살폈다는 부분은 風水로 해석하면 三山, 곧 主山·左靑龍·右白虎를 이르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風水地理와 聯關性을 살펴볼 수 있다.

檀君神話가 처음으로 글로 쓰인 때가 三國 時代였던 점을 감안하면 風水地理는 이미 그 전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 철학으로 깊이 뿌리 박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三國 時代에 일반인들 사이에도 風水地理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은 신라 제 4대 임금인 석탈해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신라의 두 번째 왕인 남해왕 때 無名의 어린 석탈해가 慶州 南山에 올라가 地勢를 살펴보니 지금의 半月城 터가 明堂이었다. 그래서 그 곳에 살던 호공을 쫓아내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하고, 그 곳에 거주한 뒤 明堂의 기운을 받아 남해왕의 사위가 되고, 그 뒤 임금으로 추대되어 23년 동안 재위했으며, 죽은 뒤에는 토함산의 山神이 되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탈해왕은 明堂을 얻기 위해 피를 써서 남의 집을 뺏기까지 했고 그 덕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신라인들의 땅에 관한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說話이다.

第 2 節 三神 五帝 思想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三神에게 감사드렸고, 사람이 늙어 죽으면 三神을 통해 하늘로 돌아갔다고 믿었다.

三神은 이렇듯 生命體를 이루고 分解하는 調和의 힘을 갖고 있다.

三神思想에는 儒敎에서 주장하는 현실 세계와 佛敎에서 주장하는 마음, 곧 영혼의 세계 그리고 神仙 思想에서 주장하는 人間과 靈魂의 合一 思想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儒敎理論은 現實 世界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규명하고 사람이 現實 世界에서 어떻게 處身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說明하고 있다.

儒敎 思想의 중심 이론서인 『周易』은 萬物이 生成하고 變化하는 過程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陰과 陽이 變化하는 過程에 대해서만 주로 언급하고, 變化하지 않는 고유한 부분인 太極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좀더 완벽하게 解釋하기 위해서는 自然을 變化하지 않는 太極과 變化하는 陰과 陽의 세 要素로 說明해야 한다.

반면 佛敎에서는 物質 世界는 순간적으로 消滅되므로 무시하고 오직 마음의 世界만을 重要하게 생각한다. 來世를 人生의 本質로 생각하고, 物質 世界 곧 現實은 그다지 重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神仙 思想이나 道敎는 人間의 本質을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解釋한다. 神仙 思想의 根源은 檀君 思想에서 찾을 수 있는데 靈魂의 世界와 現實의 世界를 同一하게 해석하고 있어 神人合一 思想이라는 特徵을 갖고 있다. 그러나 靈魂과 現實의 關係를 正確하게 說明하지 못해 現實 逃避 理論이 되기 쉬운 短點이 있다.

三神 思想은 現實 世界는 靈魂의 世界와 直結되어 있다고 解釋하고 靈魂의 世界가 現實 世界로 나타난 것이 現象 世界로 靈魂의 世界와 物質의 世界는 同一한 것이라고 본다.

三神의 象徵은 三太極이다. 三太極 紋樣은 新羅 時代에 王家에서 사용하던 寶劍에도 새겨져 있으며, 朝鮮 時代 王陵 입구에 있는 홍살문에도 그려져 있다.

韓國의 각종 古建築物, 특히 연못 形態에는 대부분 三神 思想이 表現되어 있다. 景福宮 慶會樓, 南原 廣寒樓, 慶州 雁鴨池 등에 조성된 연못 내부에는 세 개의 인공 섬이 만들어져 있다. 이 숫자는 三神을 뜻한다. 그리고 이들 섬에는 蓬萊山・方丈山・영주산이라고 하여 三神山의 이름을 붙여 놓았다. 이는 神仙 思想과도 관련된다.

景福宮 內部에 있는 慶會樓의 建物 構成 技法을 보면 三神 思想이 잘 담겨져 있다. 연못 위에 세 개의 섬을 만든 것은 三神 思想에서 비롯된 것이다.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은 太一, 작은 두 섬은 天一과 地一을 뜻한다. 慶會樓에는 돌 다리가 세 개있는데 이는 三神이 출입하려면 길이 세 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4,500년 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어진 江華島의 마니산 참성단도 三神 思想이 나타난 대표적인 建築物이다.

참성단 성곽에는 세 곳에 開口部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는 바로 三神이 출입하는 곳이다.

五帝는 하늘의 작용을 도와주는 다섯 神으로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데 東·西·南·北·中央이라는 각각의 위치에 있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神은 여러 生命體를 탄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木星에 위치하고 있는데 나뭇잎이 푸르기 때문에 靑帝라고도 한다. 靑帝는 동쪽의 기운처럼 태양이 솟아오를 때의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모든 生命體가 生命력을 갖고 탄생하게 된다.

남쪽에 있는 神은 朱帝 또는 赤帝라고도 한다. 뜨거운 태양처럼 靑帝가 만들어 놓은 기운을 擴散시켜 널리 뿌리는 能力을 갖고 있으며, 火星에 위치하고 있어 화염이 붉기 때문에 朱 또는 赤이라 한다.

서쪽에 있는 神은 白帝라고 하는데 朱帝가 繁盛시킨 生命體의 擴散 기운을 停止시키며, 다음을 위해 쉬게 해서 根本으로 돌아가게 하는 役割을 한다. 金星에 위치하여 金屬의 광택이 白色을 반사하기 때문에 白이라고 했다.

하늘 북쪽에 위치한 神을 玄帝라고 하는데 白帝가 죽인 生命體를 편안히 휴식하게 하는 神이다. 그 기간은 다음 生命體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準備 期間으로 水星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물이 깊어 심연인 것이 暗黑이기 때문에 水를 玄이라 했다.

中央에 있는 神이 黃帝다. 黃帝는 東西南北의 中央에 위치하며 사방의 기운을 종합한 것으로 다른 넷보다 가장 중심적인 기운으로 土星에 위치한다. 흙색이 대개 黃色이므로 土를 黃으로 했다.²⁾

第 3 節 陰陽 五行 思想

1. 陰陽 五行說의 發生

陰陽 五行 思想은 韓國과 中國을 비롯한 東洋 哲學의 基本 理論이다.

陰陽 五行思想의 陰陽說과 五行說은 초기에 각각 따로 發生하였으나 시간이

2) 박 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도서출판 일빛, 1999, P. 41~45.

지남에 따라 두 理論이 서로 理論的으로 結合해서 더욱 완벽한 哲學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陰陽說과 五行說이 서로 結合할 수 있었던 것은 두 哲學이 모두 自然에 대한 形而上學的인 理論에서 出發한다는 共通點 때문이다.

陰陽說이나 五行說의 核心 概念은 기다. 기는 自然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분산된 기가 모이면 生命體를 이루고, 生命體가 죽으면 다시 기로 分散된다.

陰陽說에 의하면 宇宙 一體의 現狀은 太極으로부터 分離된 陰陽 兩元氣의 動靜에 의해 現存하고 滅하고 사라지고 자라난다.

그러므로 森羅萬象은 모두 그 活動 內容에 의하지 않는 것이 없다.

五行 思想의 根源은 天文 思想과 五帝 思想에서 찾을 수 있다. 옛 사람들은 사람의 生活이 모두 하늘의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었다. 별이 사람의 運命과 일정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도 생각했다. 占星術이 그 중 하나이며, 陰陽五行 理論도 이러한 天文 思想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달력의 일 주일은 陰陽五行 思想과도 一致한다. 陰陽五行에서 陽과 陰은 크게 해와 달의 기운으로 구분되고, 日曜日은 太陽이고 月曜日은 달을 의미한다. 그 다음 火·水·木·金·土는 각각 火星·水星·木星·金星·土星의 다섯개 별을 나타낸다.

五行說은 宇宙의 本質을 이루는 요소를 木·火·土·金·水의 5가지로 간주하고 森羅萬象, 즉 自然과 人生은 모두 이 5要素의 活動, 즉 五行의 範疇에 속한다.

韓醫學이나 四柱·鍼術·觀相 등 각종 東洋 哲學들이 대부분 陰陽五行說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風水地理 역시 이러한 陰陽五行 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다.

原始的 상지술에서 한층 더 발전한 地理說로 體系화된 風水說은 生氣感應, 陰陽沖和 등 그 基礎的 根據를 陰陽說에서 찾고 있다.

生氣가 흘러가는 地脈인 龍, 砂 등의 形態가五星을 이루기 때문에 生氣의 흐름은 여러 가지이다.

그五星의 이어받음이 相生될 때는 吉하고, 相剋 關係에 있을 때는 凶하다고 한다.

그밖에 風水에 대한 影響을 보면 方位에 의해 吉凶의 차이를 判斷한다.

方位는 주로 24方位로 陰陽五行의 觀點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24方位는 五行,

八卦, 十干, 十二支를 組合시킨 것으로 이 24方位는 陰陽五行으로 나누어 4水, 4火, 5金, 5木, 6土이고, 이것을 八卦로 나누면 一卦가 三位를 管掌하고 있다. 干支는 時間 및 空間의 循環度數를 測定하는 데 그치지 않고 陰陽 및 五行, 특히 五行의 生剋 法則을 適用해서 때 및 方位의 吉凶을 判斷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다.

인생이 이 干支의 循環 속에 있으면 좋고 따라서 人生에 利益이 되는 좋은 方向에 있는 기운이 성한 吉地를 구하려는 風水說에 이 干支 占吉法이 借用되었던 것은 當然한 것이다.

風水의 모든 것이 이 五行의 相生相剋에 따라서 支配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風水가 얼마나 五行說의 影響을 많이 받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³⁾

2. 五行의 기운

五行의 기운을 살펴보면 水는 물처럼 아래로 내려가려는 기운으로 모든 物體는 아래로 떨어지려는 性質을 갖는데 物理學에서는 重力이라고 한다.

물은 마치 겨울의 기운과 같은데 겨울에는 溫度가 아래로 내려가고 生命體는 活動力이 거의 停止된다. 이는 다음 기간까지 生命力이 準備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木은 나무와 같이 垂直 上昇하는 기운을 말하는데 하늘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며 物理學上 遠心力에 해당한다.

木은 사계절 가운데 봄에 해당하는데 모든 生命體가 희망차게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기운이다.

火의 기운은 불꽃과 같이 기운이 四方八方으로 擴散되어 폭발하는 힘을 말하는데 불은 힘이 격렬하게 분출되는 것을 뜻하며, 太陽熱 같은 性質이다.

불에 해당하는 계절은 여름으로 나무가 무성해지고 꽃이 만발하는 것도 그 힘을 擴散하려는 現狀이다.

金은 收縮하려고 하는 現狀으로 物理學에서의 求心力에 해당되며 가을의 기운에 해당된다.

土는 水·火·木·金의 기운을 끌고루 갖고 있는 기운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서로 다른 네 기운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包容力을 지니고 있

3) 임 학섭, 「전통 풍수지리」, 명문당, 1993, P. 20~28.

다. 이는 마치 흙이 모든 생명체를 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土는 한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중간쯤을 의미한다.

3. 五行의 相生과 相剋

五行의 기운은 서로 다른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서로 싫어하는 기운도 있는데 이를 相生과 相剋이라고 한다.

물은 나무가 살도록 도와주는데 이를 水生木이라고 한다. 나무가 있으면 쉽게 불을 만들 수 있는데 나무와 불은 서로 돕는 關係다. 이를 木生火라고 한다.

불이 타고나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재와 같은 흙은 불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흙과 불은 서로 調和하는 關係다. 이것을 火生土라고 한다.

흙 속에서 단단한 쇠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쇠와 흙은 서로 좋아하는 關係로 土生金이라고 表現한다. 쇠와 물의 關係를 보면, 금속 표면에는 물방울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렇게 단단하고 차가운 物質에서는 기운이 收縮해서 물이 생기는 만큼, 金屬과 물은 서로 調和하는 관계다. 이 관계를 金生水라고 표현한다.

한편 五行의 相剋관계를 살펴보면 불의 기운은 물을 통해 抑制된다. 불이 아무리 강해도 물한테는 이길 수 없는데 이러한 현상을 水剋火라고 한다.

쇠는 매우 강하지만, 뜨거운 불에 달구어지면 無力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火剋金이라고 한다.

나무의 기운은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려는 기운이지만, 도끼의 쇠와 같이 강한 기운으로 잘려지는데 이러한 現狀을 金剋木이라고 한다.

흙의 기운은 모든 기운으로 뭉쳐져서 停止하려는 性質이 크다. 이에 비해서 나무는 흙에서 솟아오르려는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木剋土라고 한다. 물은 쉬지 않고 흐르려 하지만 이런 물의 기운도 堤防을 쌓으면 그 흐름이 停止된다. 곧 물의 기운은 흙의 기운으로 억제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土剋水라고 한다.⁴⁾

第 4 節 地磁氣와 地靈

1. 地磁氣와 方位

4) 박 시익, 「전계서」, P. 45~50.

새들은 方向 感覺이 뛰어난데, 南極과 北極을 제외한 地球上의 어디든지 磁氣를 中心으로 方位가 決定된다. 이것은 羅經(羅針盤)을 놓았을 때 놓은 位置가 方位 判斷의 中心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磁針은 磁針을 자극하는 鑛物質이 주위에서 影響을 주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나 南北을 가리킨다. 磁針이 이렇게 南北만을 가리키는 이유는 地球가 하나의 커다란 磁石이기 때문이다. 地球가 하나의 커다란 磁石이란 말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한 地磁氣의 影響을 받고 산다는 것을 뜻한다. 地磁氣는 計器로 測定하였을 때 땅 위에서 平均 0.5 가우스로 나타난다.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은 새들이 어떻게 그토록 먼 여행을 할 수 있는가를 실험했는데, 歸巢本能이 강한 비둘기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눈이 잘 안 보이도록 不透明한 콘택트 렌즈를 끼우고, 다른 한 마리는 머리에 강한 磁石을 붙인 채 멀리 싣고 가서 풀어놓았다. 첫 번째 비둘기는 곧장 등지로 돌아왔다. 磁石을 붙인 비둘기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이로써 歸巢本能의 機能이 視力에 있지 않음을 알아내고, 머리의 어느 부분에 地上의 磁場을 감지하는 特殊 機能이 있어 공중을 날 때도 磁力線이 作用하여 등지를 찾을 수 있었지만, 머리에 磁石을 붙여 磁力 感覺을 遮斷 당한 비둘기는 歸巢가 힘들었던 것이다.

이 실험은 인간도 動物이니까 地磁氣의 影響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試寫한 것이다. 또한 磁石은 鑛物에만 作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生物에게도 作用함을 의미한다.

1) 이러한 기본 바탕에서 東洋 哲學이 유추한 東西南北의 象徵을 살펴보면,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모든 나무들이 해에 의해서 자라고 무성해지며, 五行에서는 木에 該當되고, 나무의 象徵인 푸른 색(靑)으로 對辯한다. 左靑龍은 임금이 남쪽을 보고 앉았을 때 동쪽은 左側이 되어 푸른 龍으로 表現한다. 十二干地로는 寅·卯가 該當되며, 十天干으로는 甲·乙을 象徵한다. 季節로는 봄(春)을, 달로는 陽曆 3, 4, 5월을, 時間으로는 午前 3시부터 7시까지이다.

집을 보는 觀點에서는 사람의 머리를 하늘에 비유하면 발은 땅을 象徵하므로, 땅에 있는 집은 발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보며, 人體를 小宇宙라고 볼 때 발은 小宇宙 중의 小宇宙라는 것이다.

발을 指壓하는 사람들은 발바닥 하나로 五臟六腑를 다 關係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그런데 발가락 중에서도 엄지발가락 둘째 마디가 바로 동쪽을 象徵하

로, 집의 동쪽에 흙이 있으면 그런 집에 오래 산 사람 또는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엄지발가락을 보면 안다는 말도 있다.

2) 서쪽은 해가 지는 쪽이다. 五行으로 따지면 쇠(金)의 성질로 陰金에 該當된다. 해가 넘어가듯 萬物을 오그라들게 한다는 곳으로 색은 백색(右白虎)을 象徵한다.

十二干支로는 申·酉에 해당되며, 十天干으로는 庚·辛에 속한다. 季節로는 가을을 象徵하며, 酉는 陽曆 9, 10, 11월에 該當되고 時間은 午後 3시부터 7시까지이다.

서쪽은 연못의 象徵으로 물이 모여드는 곳 또는 파인 곳이니, 不足함 등을 暗示하기도 하여 結婚의 기쁨, 돈과 連結된다.

3) 남쪽은 해가 정남에 오면 뜨겁다. 그래서 五行으로는 火에 속하고, 빨간색을 나타내며, 十二干支로는 巳, 午에 該當하고 十天干으로는 丙·丁에 속한다. 季節로는 여름이며, 陽曆 6, 7, 8월에 該當되고, 時間으로는 午前 9시부터 午後 1시까지를 가리킨다.

둘째 발가락과 깊은 關係가 있어 엄지보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 치고 知能이 낮은 사람은 없으며, 小腸에 病이 났을 때 이곳에 針을 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 북쪽은 추운 곳으로 사람을 오그라들게 한다. 五行으로는 水에 속하고, 검은색을 나타내며 十二干支로는 子·亥에 該當하고 十天干으로는 壬·癸에 속한다. 겨울을 뜻하며, 陽曆 12, 1, 2월에 該當되고, 時間으로는 午後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를 가리킨다.

五行이 물을 象徵하므로 물의 性質에 따른 各種 現象 暗示가 나올 수 있고, 낮음·平和·生殖力 등을 意味하고, 집의 북쪽에 長點만 있고 結衛가 없으면 家族이 健康하고 子孫의 繁盛을 暗示한다.

2. 地靈의 影響

미국에서 열린 地靈에 대한 세미나(1988)에서 나온 結論 이야기다.

① 世界 모든 民族의 固有 文化에는 어떤 장소에 ‘성스런 힘’이 있다는 믿음이 共通的으로 作用하고 있고,

② 대부분의 國家에서 그러한 地靈이 存在하는 場所는 寺院이나 敎會 같은 信仰 目的의 構造物이 配置되어 法的으로 保護받고 있으며,

③ 傳統的으로 地靈이 있는 聖所에는 特別한 기운이 存在한다는 共感帶가 形成되어 있다. 또한 그것이 人間과 動植物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環境的 現狀이 存在하고 있으며,

④ 古代 風水의 慣行이 現代의 住宅과 建物 配置에 肯定的인 結果를 導出해내는 많은 研究 事例를 例로 들고 있다.

⑤ 어떤 장소는 人間에게 깊은 영감을 提供해주고, 때때로 人間은 그러한 場所가 提供해주는 自然 속에 自身을 맡김으로써 自身の 狀態를 보다 나은 段階로 昇華시키는 技術을 保有하는 境遇도 있고,

⑥ 각 民族이 그런 場所에 대해서 가지는 環境 知覺이나 價値觀을 整理하는 일은 學問的으로 대단한 意味가 있다는 것이다.

古代 그리스인들의 風水地理에 의하면 地表는 重力, 이온, 전자기장과 같은 미묘한 環境 體制로 얹혀 있을 뿐 아니라 이것들이 繁榮이나 健康에 關係된다는 것도 判明되었다. 아울러 動植物에게 影響을 미친다는 것이 現代 科學의 여러 分野에서 밝혀지고 있다. 극히 最近까지 地域 開發과 土地 利用을 決定짓는 最大 要因은 經濟的 因子였다. 그러나 1970년대는 環境보호 運動으로 自然에 대한 價値나 認識 體系의 變化 必要性이 점차 增大되는 趨勢에 따라 再認識되고 앞으로는 物理學, 生物學, 環境工學, 心理學 등 進步的인 研究가 活潑하여 地靈 概念은 보다 分明해질 것이다. 그 地靈의 正體가 實體的으로 무엇인가를 알아낸다면 우리는 보다 깊이 있게 땅의 理致를 알아낼 것이라고 하는 認識이 現在의 結論이다.

플라톤도 地靈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일이 있다. 그는 ‘어떤 場所는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혹은 보다 나쁜 影響을 미친다. 人類 文化는 特定한 場所 안에서 自然 環境과 調和를 이루는 方向으로 變化되어야 한다. 그 場所가 人間에게 좋으나, 나쁘나 하는 것은 바람과 태양 빛에 달렸으며, 거기에 물과 土壤도 重要하다. 이 에너지는 身體뿐만 아니라 人間의 善惡에도 影響을 미친다. 또 어떤 場所에는 超自然的 影響力을 미치는 精靈들이 集團으로 모여 있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 認識 基盤이 우리의 風水 思想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플라톤을 西洋 風水 理論의 創始者라고 부르는 것이 妥當함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⁵⁾

風水를 利害하는 데 가장 重要的 要諦는 기를 말하는 것이다. 기는 天地萬物의 存在 運動의 根本 法則이며, 그가 存在하는 源泉이 되는 것이다.

天地間의 自然 現狀인 천둥·번개·구름·바람·눈·비·우박·안개·무지개 등은 모두 기의 變化에 起因한다. 기는 陰陽의 精이며, 몸의 活動力의 바탕으로 모든 살아 있는 空間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萬物 生成力의 根源은 힘인데, 빛·소리·냄새 등 人間의 一體 感覺氣管의 根本的인 存在力이다. 우리 나라 氣哲學의 대가 徐敬德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自然의 變化에 대하여 늘 疑問을 가졌다고 한다. 땅에 심은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벌거숭이 종달새 새끼가 털이 나고 날개가 돋고 하늘을 나는 이치 등이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地氣의 影響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 氣를 空間的으로 把握하여 땅 속에 흐르는 기, 즉 地氣의 德을 믿어보라는 思想이 風水이다. 사실상 기를 理解하고 感知할 수 있는 能力만 培養된다면 風水로서는 상당한 水準에 이른 것이다.

사람이 居住하는 家屋, 都市 등과 祖上의 陰宅이 우리의 運命에 影響을 준다는 우리들 특유의 믿음인 風水 思想은 傳統的인 하나의 專門科學 分野를 形成 해온 것이 사실이다.

第 5 節 人間의 本質과 風水地理 理論의 바탕

1. 人間의 本質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태어난 人間은 그 存在 自體가 하나의 小宇宙로 天地의 形相을 이루고 있다.

사람은 自然의 기운에 따라 生命力을 받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自然의 形態가 縮小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은 둥글고, 몸체는 편편한 四角形으로 사람의 얼굴은 하늘의 기운을 받고 몸은 땅의 기운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사람은 四季節의 기운을 받아 팔과 다리 네 개가 되었으며 눈과 귀는 해와 달을 象徵한다. 五行의 기운은 사람 몸 안에 五臟을 만들고, 하루가 12시간

5) 임 학섭, 「전계서」, P. 213~214.

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12硬脈을 가진다. 이렇듯 사람의 身體 構造는 모두 天地의 運行에 따른 것이다.

人生의 興亡盛衰가 天地에 의하여 規定되어 지는데 天과 地를 나눠 생각해 보면 사람의 生活은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땅의 能力도 하늘의 힘을 받아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은 父와 같고 地를 母와 같이 믿게 되고 人生에 작용하는 것은 母와 같은 地이며 이와 같이 땅을 幸福과 發展을 주는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 깊어져서 一種의 地母信仰으로 믿어져 있기도 하다. 사람의 感情은 일곱 가지로 分類되는데 이를 ‘七情’이라 한다. 퇴계는 理氣에 대한 자신의 學說에서 七情을 喜怒哀懼愛惡欲으로 보고, 이 역시 氣에 의한 것이라 했다. 이것은 사람 얼굴에 구멍이 일곱 개(두 개의 눈·코구멍·귀, 하나의 입) 있고 太陽에도 일곱 가지 色이 있음과 같은 理致라고 했다. 요컨대 人間의 肉體와 精神이 모두 氣에 의해서 나고 움직이는 것이다.

韓醫學에서는 사람이 精·氣·神 3요소로 構成된 것으로 본다. 精은 物質的이며 肉體的인 바탕을 말하고 氣는 肉體 內部에서 循環되는 기운이며 神은 사람의 마음 및 精神 能力을 말한다.

人間을 構成하는 精·氣·神은 바로 自然을 構成하는 天一·地一·太一の 壓縮物이다. 結果적으로 사람의 生命體는 靈的인 作用인 하늘 기운과 肉體的인 構造인 땅 기운,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를 連結하는 기운인 神 기운으로 區分된 세 기운의 結合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2. 風水地理 理論의 바탕

風水地理는 萬物の 根源을 氣라고 본다. 氣는 세상 모든 萬物을 構成하고 모든 現狀을 일으키는 基礎로 모든 살아 있는 것은 氣로 만들어지며 氣로 삶을 영위하며 氣가 다할 때 죽음을 맞는다.

사람도 氣의 모임이므로 氣가 모이면 살고 氣가 흩어지면 죽는다.(人之生 氣之聚也, 聚則僞生 散則僞死).⁶⁾

모든 宇宙 萬物の 根本이 氣듯이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다 氣가 모이고 흩어지는 過程이다.

사람의 靈魂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사람의 肉體는 陰氣와 陽氣로 구성된다.

6) 박 시익, 「전계서」, P. 52.

사람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다는 認識은 古代 天文 思想에 잘 나타나 있다.

모든 生命體는 孕胎되는 순간 하늘의 기, 곧 天氣를 받게 된다. 그 가운데 해와 달과 水·火·木·金·土 다섯 별을 비롯한 무수한 별들이 決定的인 影響을 미친다. 이렇게 하늘의 기운으로 孕胎된 사람은 祖上과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땅의 기운을 살펴 살자는 생각에서 體系的인 思想과 理論으로 發展한 것이 바로 風水地理다.

이러한 風水地理의 核心 理論은 ‘同氣感應論’이다. 같은 氣끼리 서로 感應한다는 뜻이다.

祖上の 氣와 後孫의 氣가 서로 感應한다는 理論은 陰宅 風水에 適用되고, 周邊의 氣와 나의 氣가 서로 感應한다는 理論은 陽宅(住宅) 혹은 陽基(마을, 도읍지) 風水에 적용된다.

『周易』에서는 宇宙 生命의 原理를 太極이라 하고 太極이 陰陽을 낳고 陰陽에서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으며 또 그 속에서 만물이 생겨 森羅萬象이 나타나게 된다고 본다.

되게 이황은 宇宙 生成의 根源을 氣로 보고, 그 氣를 太極에서 생겨 난 ‘一元之氣’라 했다. 天地와 森羅萬象은 모두 氣에 의해 생기고 자라며 죽음에 이른다. 그러므로 죽음은 단지 氣가 생기기 전의 狀態로 分解되는 것일 뿐이다.

이처럼 世上 모든 것의 源泉인 氣는 사람 몸 안에도 흐르고 땅에도 흐른다. 그 중에서도 生氣는 陰陽과 五行이 結合해 만들어지는 가장 本質的인 氣로 萬物을 構成하는 바탕이 된다.

사람도 陰陽 五行의 生氣에 따라 태어나 자라고 늙고 죽어가기 때문에 生氣를 받고 살아야 健康하고 幸福하게 살 수 있다. 이처럼 風水 思想은 人間 역시 自然의 일부로 생각한다.

人間은 自然의 氣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 發展이나 成長 역시 自然에서 氣를 吸收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風水에서 ‘明堂’이란 ‘生氣’가 흐르는 땅을 말하는데 집을 짓거나 밋 자리를 택할 때 風水를 따지는 것은 좋은 땅의 氣를 받자는 것이다.

風水에서 生氣가 흐르는 좋은 땅이란 陰과 陽이 調和로운 땅이다. 산과 물, 陰과 陽이 調和롭고 均衡을 이룬 곳에서는 좋은 生氣가 나오지만, 반대로 어느

한쪽 기운만 큰 곳에서는 나쁜 기운이 나오기 때문이다.

風水地理는 地氣로 이루어진 살아 있는 땅에 人間이 어떻게 잘 어울려 살 것인가 하는 問題 意識에서 出發한다.

땅의 모양이나 물의 흐름 등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地氣를 파악하려는 모든 노력이 風水地理 理論을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風水地理 理論의 3要素로 꼽히는 山·水·方位를 살피는 것도 그것들이 氣의 發源地이기 때문이다. 風水地理에서 산의 形態와 品格을 나누는 데도 이들 각각의 氣가 그 주변에 사는 人間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가 그 基準이 된다.

第 3 章 風水地理 理論의 地勢 分析 方法

第 1 節 風水의 用語

아득히 먼 옛날에는 사람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바람(風)과 물(水)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觀察하는 作業이 ‘風水’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藏風得水’의 略字라는 理論도 있다. 風水地理의 핵심인 生氣를 만드는 기본적인 條件인 바람과 물, 곧 藏風과 得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風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理論 이외에 風水는 人間의 本質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生命體를 이루는 바람과 물을 生活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地理 條件을 解釋하려고 努力하는 과정에서 風水地理 理論이 생겨났다고 보는 理論도 있다. 즉, 사람이 죽으면 흙 속으로 돌아가되 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本質을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바람과 더불어 물 또한 生命體의 중요한 基本 要素로 파악하는 것이다.⁷⁾

歴史的으로 살펴보면 風水地理라는 말은 高麗의 定宗 때에 이미 科擧의 試驗科目중의 하나로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제에 있어서 그 이전부터 즉 新羅 혹은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도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風水說에서 地脈을 龍이라 칭하고 이 地脈이 生氣를 맺는 곳을 穴이라 하며 이 穴 주위를 둘러싼 산, 언덕들을 砂라고 부르는데 基本的으로 風水理論에서 사용되는 用語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陰宅 : 墓地를 말하는데 산 사람이 陽인데 반해 陰은 죽은 자의 安住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陽基 : 산 자의 住宅地 또는 都城, 邑村의 基地를 말한다.

龍 : 땅의 모습을 龍이라 하는데 그것은 그 모습이 마치 龍과 같다고 하는데 있다.

7) 박 시익, 「전계서」, P. 13~14.

中國의 術士인 徐善繼가 저술한 「人子須知 言雜說」에 의하면 ‘山の 變態는 千形萬象으로 혹은 크고 작고(大小), 일어나고(起), 엎드리고(伏), 거슬리고(逆), 順하며 혹은 숨고(隱), 나타나(現出)있어 그 形態가 잠겼다(潛), 보였다(現), 날랐다(飛), 뛰었다(躍)하여 변화 무궁함을 취해 이러한 形態가 龍의 變化와 흡사하다 해서 龍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고 하고 있다.⁸⁾

脈, 節 : 龍은 주로 그 형태에서 이름지어진 것이지만, 龍身에 따라 陰陽의 生氣가 유동하는 것은 마치 人體의 脈絡에서 氣血이 運行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脈이라 한다. 그리고 이 龍脈이 一起一伏, 左折右曲하는 곳은 나무 줄기가 가지를 分出하는 곳이나 대나무의 마디와 마찬가지로 이곳을 節이라고 한다.

穴 : 龍脈중에서 가장 生氣가 많이 몰린 곳을 말한다. 이것은 鍼灸學上 人體의 凹處, 즉 針을 주는 곳을 穴이라 하는 것과 같다.

砂 : 穴 주위의 形勢를 砂라고 한다. 이것은 古人이 아주 좋은 山勢나 地理를 說明하여 가르칠 때 모래로써 그 形勢를 그렸기 때문에 일정한 땅의 山水 形勢를 부를 때 砂라고 稱한다.

局 : 穴과 砂가 합한 곳을 말하는데 陽基나 陰宅이 하나의 聚合 規模를 이룬 것을 局이라고 한다.

來龍 : 이는 一局, 一穴에 이르기까지의 龍脈을 말하는데 이 脈이 장차 穴로 들어가려고 하는 곳을 특별히 指稱하여 말하기도 하고 穴 뒤편의 山勢를 意味하기도 한다.

祖山, 宗山 : 넓은 의미의 來龍 중에서 그 穴에서 가장 멀고 높은 산을 祖山이라고 하며 가까우면서 높은 산을 宗山이라 한다.

主山, 後山 : 이것은 來龍 脈節 중에서 穴뒤에 높게 솟은 산을 지칭하는데 대개의 部落이나 墓地에는 이 산이 있다. 部落의 경우 이 산이 그 部落을 지켜 준다는 뜻에서 鎮山이라고 부른다.

入首 : 좁은 뜻에서 來龍이 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곳을 入首라고 한다. 지리에서는 穴 또는 局을 龍머리가 들어간 곳이라고 하여 이를 入首라고 한다.

頭腦 : 入首와 穴과의 接合點에 조금 높고 부풀어 오른 곳을 말한다. 이것이

8) 한 송계 역, 「풍수지리 명당전서」, 명문당, 1994, P. 18.

꼭 龍머리의 이마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렇게 부른다.

城, 砂城 : 頭腦에서 小脈을 일으켜 穴의 周圍를 둘러싸고 지키는 것을 砂城이라고 한다. 이 砂城은 아무리 훌륭하게 諸砂를 具備한 곳이라도 자연히 생겨 있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人爲的으로 造成한다.

靑龍白虎 : 穴이 남쪽으로 향한 경우에 穴 뒤의 來脈에서 穴의 동쪽을 둘러싸고 穴 앞을 지나 穴의 서쪽에서 끝나는 山의 血脈을 靑龍이라 하고 穴 위의 來脈에서 穴의 서쪽을 둘러싸고 穴 앞을 동쪽으로 나와 끝나는 山의 脈을 白虎라고 한다.

이러한 것이 여러 겹으로 있는 경우에는 內部에 있는 것이 內靑龍, 內白虎라고 하고 外部에 있는 것을 外靑龍, 外白虎라고 한다.

明堂 : 穴 앞(陰宅은 분묘 앞, 陽基는 건축물 앞)의 土地로서 靑龍, 白虎로 둘러싸인 곳을 말하는데 여기에도 內, 外의 區別이 있으며 穴 바로 앞 평탄한 땅을 內明堂, 그보다 비교적 넓은 平地를 外明堂이라고 부른다. 이 名稱은 天子가 君臣의 拜禮를 받는 곳이라는 데서 由來하며 이곳이 穴에 대해 參拜하는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得水, 波口 : 穴이나 內明堂 또는 龍虎 內에서 發源하여 흐르는 水流의 發源地를 得水라고 하고 그 水流가 龍虎로 에워싸인 사이를 흘러가는 地點을 波口라고 한다. 여기에도 龍虎에 內, 外가 있는 것처럼 內得水, 外得水, 內波口, 外波口の 區別이 있다.

眉砂 : 이는 入首에 있어서 頭腦로부터 穴로 옮겨가는 조금 높은 半月形 혹은 瓣膜狀을 이룬 곳을 말하는데 그 形態에 따라 蛾眉砂, 月眉砂, 八字眉砂 등의 名稱이 있다. 이것은 墳墓에 물이 흘러들어 감을 막고 한편 墓穴의 生氣를 保護하는 作用도 있다.

案山 : 穴 앞 砂의 하나이며 穴의 앞에 있는 높고 큰 山으로 마치 來賓이 主人을 뵈는 것처럼 臣下가 임금을 拜謁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婦人이 男便을 따르는 것처럼 穴에 대해 朝貢하는 形態의 山을 말한다. 穴의 守護를 말음으로 朱雀에 相當한다.

五星 : 風水에서 山의 形態를 星, 曜라고 稱하는 경우가 있는데 木星의 산은 나무가 直立하듯이 솟은 것, 火星의 산은 화염같이 아주 뾰족한 것, 土星의 山形이 편편한 것, 金星은 윗 부분이 둥글고 아래가 넓게 퍼져 鐘을 얹어놓은 형태이며, 水星은 산형이 굽이쳐 움직이는 파도의 모습을 취한 形態이다.

九星：五星에서 變形한 것을 九星의 산, 九曜의 산이라 한다. 九星은 貪狼, 巨門, 祿存, 文曲, 廉貞, 武曲, 破軍, 左輔, 右弼이며, 五星의 본모습에서 變形한 것이다.

看龍, 尋龍：山脈의 來往을 찾아 그 眞僞(生死)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形勢：龍이 穴을 맺는 경우 內面的으로 生氣의 來止融結을 엿보기 위해 산의 氣勢를 살펴보고 護街, 諸砂의 具備 與否를 알기 위해 外面的인 形態를 살펴 穴을 정하는 것이다.

坐向：穴의 中心이나 建築物 中央에 佩鐵을 놓고 24方位의 名稱을 가려서 坐向을 決定하는 것을 말하는데 穴이 앉아 있는 곳을 左라 하고 左로부터 全面의 方向을 向이라 하여 左와 向은 항상 佩鐵의 中心點으로부터 直線을 이루게 된다. 예를 들어 正南向하고 있는 穴의 坐向은 子坐午向이 된다.

第 2 節 風水地理의 地氣 構成 要素

風水地理 理論에서 사람에게 影響을 주는 터를 選定하는데는 空間의 기운을 分析하는 作業에서 시작한다.

사람에게 影響을 주는 기운을 크게 自然的 기운과 人爲的 기운으로 구분되는데 自然的 기운이란 산이나 江, 方位 등 自然 地勢에 따라 생기는 기운을 말하고 人爲的 기운이란 사람이 만든 공간에서 생기는 기운을 말한다. 建築物이 가장 代表的인 人爲的 空間이다.

1. 自然的 기운

風水의 核心 目的은 산과 물의 地勢를 分析하여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明堂 자리를 정확하게 찾는 것에 있다.

風水의 目的이 地力에 의하여 人生의 發達과 幸福을 구하는 데 있지만, 이를 具體的으로 말하면 住宅을 吉地에 정해 幸運을 구하는 일과 祖上의 墓를 吉地에 구해 子孫의 繁榮을 꾀하려 하는 것 두 가지이다.

住居에 대한 風水法은 經濟的 環境 혹은 氣候, 風土가 住居에 미치는 影響이 아니라 그 居住者에게 미치는 吉凶的 影響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風水는 住居 및 그곳에 사는 사람의 運命을 說明하고 그들의 運命을 幸福과 繁榮으로 향하게 하려는 것이다.

墓地는 住宅의 연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 住宅이 地上의 吉凶 여하에 따라 사람의 運命을 좌우한다면, 墓地 역시 그 地上의 善惡에 따라 死者의 穴處가 後孫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風水 理論의 構造는 대체로 龍·穴·砂·水의 四大 구분을 따른다.

이 네 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看龍法·藏風法·得水法·定穴法·坐向論 그리고 形局論 등이 있다.

看龍法은 용의 흐름을 보고 그 산이 生氣가 있는 산인지 죽은 산인지 判斷하는 方法이다. 산이 살아 있는 龍처럼 山脈이 끊어지지 않고 生氣 넘치게 뻗어 있으면 좋은 것으로 判斷하게 된다.

藏風法은 主山을 中心으로 明堂 주변 山勢를 살피는 방법으로 주변 山勢가 포근하게 사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重點的으로 본다. 무정하게 돌아 앉았거나 외면하는 山勢는 좋지 않다.

藏風法에서는 左靑龍·右白虎·前朱雀·後玄武의 四神砂를 살피는 것으로 明堂의 크기에 따라 四神砂가 만드는 넓이가 크면 都邑이나 고을, 마을이 立地할 수 있는 明堂이 되고 局面이 작으면 陰宅이 立地하는 땅이 된다. 따라서 風水地理에서 陰宅이나 陽宅은 명당 크기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吉地를 찾는 방법은 같다.

定穴法은 看龍法과 藏風法을 통해 明堂의 범위가 정해지면 어느 곳에 生氣가 모이는 穴인가를 정하는 방법이다. 서울의 가장 代表的인 穴은 景福宮이다.

穴은 明堂의 中心이 되기 때문에 都邑이나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機能들이 이곳에 위치하며 陰宅에서는 屍身이 묻히는 곳이 된다.

得水法은 물의 흐름을 살피는 것으로 直線으로 빠르게 흐르는 것보다는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구불구불하여 흐르는 것을 좋은 것으로 본다. 물의 흐름은 산의 흐름과 調和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는 山水를 陰陽에 비유하는 傳統的 思考 方式에 따른 것이다.

坐向論은 方位論이라고도 하는데 地勢의 기운이 方向에 따라 차이가 나는 過程을 分析하는 理論이다.

形局論은 땅을 짐승이나 植物, 또는 사람 모양으로 규정하고 비유된 動植物들의 生態的 特徵을 통해 生氣가 모이는 穴을 찾는 方法이다. 梅花落地形, 蓮花浮水形, 將軍對坐形 등은 이 形局論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形局論이 땅을 살아있는 生命體로 보는 風水地理의 精神을 反影한 것이라면,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은 形局論보다 經驗的이고 技術的 性格이 강한 理論 體系이다.

自然的인 地氣를 제대로 파악하여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方法들이 함께 이용된다.⁹⁾

2. 人爲的 기운

人爲的 空間인 建築物에서 사람들은 많은 時間을 보내면서 生活하게 된다. 室內에 있는 동안 사람은 自然的 地勢에서 發生하는 기운과 人爲的 空間인 建物에서 發生하는 기운을 동시에 받게 된다. 建物에서 發生하는 기운은 建物の 構成 要因인 規模나 形態, 配置, 方位, 마당, 道路, 주변 建物과의 관계, 建築物의 材料와 色相, 室內 空間의 形態와 方位 등에 따라 달라진다.

自然的인 地勢가 明堂을 이루고 있어도 建物の 形態나 方位 등이 좋지 못하면 완전한 明堂을 이룰 수 없다.

明堂의 核心이라고 할 수 있는 穴이라는 말도 陰陽 理論을 바탕에 두고 있다. 穴은 女性の 子宮에 비유되는데 生命力이 가장 많이 密集되어 있는 空間이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는 陰氣와 陽氣가 結合하여 生命을 孕胎한다. 여기에서 陰氣는 땅의 기운을, 陽氣는 하늘의 기운을 뜻한다.

한편, 『道說密記』에 의하면 땅은 多山을 陽, 稀山을 陰이라고 하고 建物は 높은 것을 陽, 낮은 것을 陰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원래 多山の 나라이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으면 國運이 衰退하기 때문에 宮闕을 지을 때도 그다지 높지 않게 지었고, 民家は 전부 높은 집을 禁止한 것이다. 이 多山の 땅에 높은 建物を 지으면 地德이 衰退한다는 것은 風水說의 陽來陰受에 反하기 때문이며, 地勢가 陽이면 建物は 陰으로서 陽과 調和해야 하고, 地勢가 陰이면 建物は 陽으로서 陰을 받아야만 한다는 風水說이다. 따라서 多山인 陽에 대하여 陰인 낮은 建物を 지어 調和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종래에 寺塔을 제외하고는 높은 建築物이 거의 볼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은 이러한 風水說이 은근히 傳播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¹⁰⁾

9) 박 시익, 「전계서」, P. 36~38.

10) 임 학섭, 「전통 풍수지리」, 명문당, 1993, P. 193~194.

第 3 節 山과 明堂

1. 땅의 기운

사람이 精·氣·神의 세 가지 要素로 構成되어 있듯이 땅도 土質·기운·地神의 세 가지 要素로 構成되어 살아 있는 生命體와 같은 構造를 이루고 있다. 土質은 진흙·모래·바위 등과 같이 地面을 이루는 여러 가지 鑛物質이다. 땅의 기운은 땅이 갖고 있는 電氣·磁氣·地熱·水氣 그리고 土質이 포함하고 있는 기운과 生命體를 만드는 五行 같은 기운이다.

모든 植物이 土質에 의해 成長이나 結實 內容이 달라지듯 사람도 生活하는 土質의 기운에 따라 그 影響이 다르다.

土質에는 白土·진흙·모래 등 여러 種類가 있는데 住宅地로서 가장 理想的인 土地는 白土 또는 磨砂土이다.

흙 중에는 죽은 흙도 있는데 이런 땅은 住居地로서 마땅치가 않는데 이는 흙에 水分이나 彈力이 없고 단단하지 못한 땅을 말하는데 砂漠地帶나 바닷가에 있는 빨과 같은 흙이나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푸석푸석한 땅 등이 죽은 땅에 該當된다.

人間은 父母에 의해 태어나서 父母의 精誠으로 成長한다. 하늘과 땅은 地上의 모든 生命體를 만든다는 점에서 父母와 같다. 사람은 땅에서 발생하는 기에 의해 體格과 靈魂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體質이나 마음은 자신이 태어나고 成長한 땅의 기운에 의해 完成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山川의 精氣를 받아 태어난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生命이 우리 國土의 바람과 물, 그리고 靈魂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 山의 기운

世界 어느 民族에게나 산은 힘을 갖고 있는 두려운 대상으로 崇拜되어 왔다. 韓國에서 山神은 크게 보면 國家를, 작게 보면 한 마을을 守護하는 守護神으로 崇拜되어 왔다. 이렇듯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山神을 信奉했던 根據는 산이 사람보다 월등한 能力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산은 平地보다 더 강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地勢를 分析하고 집터를 選定하는 데 있어 가장 重要的 部分을 차지한다.

산이 솟아오르는 힘은 하늘의 陽電氣가 산의 陰電氣를 끌어당기는데서 나온

다. 비가 오는 날 높은 산일수록 벼락과 천둥이 많이 치는 이유는 산이 平地보다 많은 陰電氣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 살아 있는 生命體와 동일한 能力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산의 生命力 가운데는 人間에게 有益한 기운도 있고 해로운 기운도 있다.

名山이 있는 곳에서 큰 人物이 태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산 기운 때문이다. 그러므로 좋은 집터나 事業場을 찾기 위해서는 生氣가 많은 산을 區分해야 한다.

明堂은 산의 앞면에만 있다. 산의 앞과 뒤를 區分하기 위해서는 形態를 정확하게 觀察해야 하는데 산의 앞면은 形態가 平坦하고 安定的이다.

그러나 산의 뒷면은 屈曲이 심하고 험한 바위가 不規則하게 있으며, 地面이 어둡고 험한 분위기를 보인다. 또 산의 앞면은 들판을 향하고 있으면서 높은 산이나 큰 江을 등지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얼굴이 있는 앞면은 色이 밝고 光彩가 있으며 身體에서 중요한 部分인 生殖器과 배가 있으나 머리가 있는 뒷면은 색이 어둡고 등에는 등뼈가 많아 부드럽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래된 農村 주택들을 보면 크고 작은 산 앞쪽에 있어 산을 背景으로 마을이 形成되어 있는 반면, 산 뒤로는 마을이 形成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산 앞쪽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發展해서 代를 이은 반면 산의 뒤쪽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 곳을 떠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터를 정할 때는 반드시 산의 앞과 뒤를 구분한 다음, 산 앞쪽에 집을 지어야만 個人과 家庭의 發展을 기대할 수 있다.

3. 山의 種類

가. 品格과 體形에 따른 區分

산의 기운을 區分하는 방법으로 品格에 의한 것과 體刑에 의한 것이 있다. 먼저 산이 갖고 있는 기운은 品格에 의해 主人格·補助格·背反格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主人格 산은 모양새가 피라미드와 같이 中心이 安定되고 左右均衡을 이루어 威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산이 있는 地域은 明堂이며, 政治的·經濟적으로 강력한 指導者가 나온다.

[그림 1] 산의 형태에 따른 3품격¹¹⁾

형태	품격
	주인격
	보조격
	배반격

補助格 산은 中心 部分의 높이가 낮고 넓이도 좁아서 기운이 中心에 모이지 않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분산되는 形態의 산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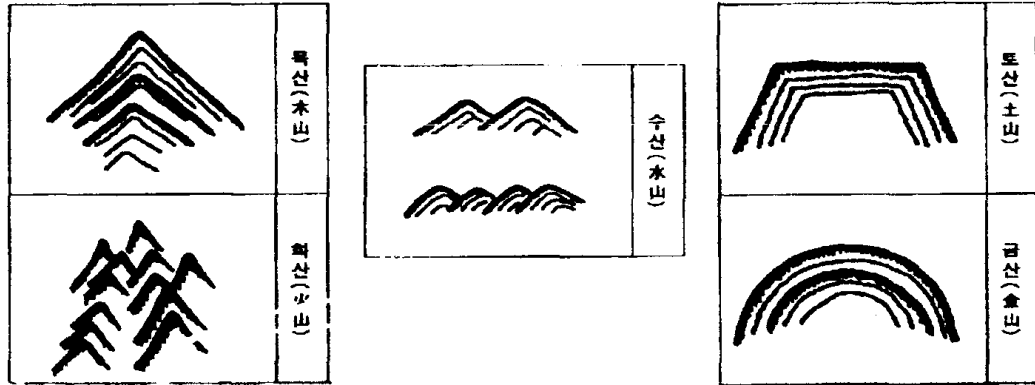
이런 地勢에서는 큰 인물을 補助하는 人物이 주로 輩出되며, 강력한 指導者가 나오기 어렵다.

背反格 산은 主山을 등을 지고 있는 산을 말하는데 이러한 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에게 背反을 당하거나 不渡가 나는 등 名譽를 잃거나 財産 피해를 입게 된다.

산은 또 形態에 따라 強體・中體・弱體・病體로 구분되는데 強體는 전체적으로 힘이 強하고 단단하게 뭉쳐진 산을 말한다. 이러한 산에서는 당연히 健康하고 旺盛한 生氣가 발생한다.

11) 박 시익, 「전계서」, P. 72.

[그림 2] 오행산의 형태¹²⁾



中體는 頂上部에서 下部에 이르기까지 直線으로 연결된 形態의 산을 말한다. 大部分의 산이 中體의 산에 해당하는데 강한 筋肉은 없지만 골짜기도 없어 평탄한 傾斜面을 이루고 부드러운 기운을 만든다.

弱體는 稜線이 힘없이 늘어진 形態의 산인데 산중간 중간에 골짜기나 계곡 등이 있어서 우그러든 形態의 산이다.

病體는 形態가 安定感이 없고 左右가 不安定하며, 바위와 흙이 서로 分離된 산을 말한다. 병든 산에서는 당연히 不安定한 氣가 생겨나 사람들을 不安하게 만든다.

산의 形態는 이러한 산의 기운에 의해 吉山과 凶山으로 區分되는데 산의 3格 중 主人格 산과 補助格 산은 吉山이고 背反格 산은 凶山이다.

산의 4體形에서는 強體와 中體가 吉山이며, 이런 산을 마주 보고 살면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지는 반면 凶山인 病體인 산에서는 오래 살면 이웃 사이에 싸움과 불상사가 자주 일어난다.

나. 五行에 따른 구분

五行山은 산의 기운을 陰陽 五行說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하는데 木山・火山・土山・金山・水山の 다섯 가지로 나눈다.

12) 박 시익, 「전계서」, P. 75.

木山은 정상 부에서 꽃봉오리 모양을 이룬 산을 말하며, 垂直 上昇하는 기운이 많은 산이다. 木山 중에서도 산 頂上部가 마치 붓끝같이 뾰족한 산을 文筆峰이라 한다.

木山이 있는 지세에서는 陰宅이든 陽宅이든 관계없이 學問을 崇尚하는 사람이 많이 輩出된다.

火山은 산의 頂上部가 두 개 이상의 뾰족한 봉우리를 이루면서 나무가 불에 탈 때 나타나는 불꽃의 形態를 닮은 산을 말한다.

火山이 있는 地勢에서는 藝術家나 宗教人이 배출된다. 土山은 산의 頂上部가 평평하게 水平으로 펼쳐진 것을 말하는데, 一字와 유사해서 ‘一字文星’이라고도 부른다. 五行에서 土는 均衡을 이루는 기운을 말하므로 土山은 左右힘이 고르게 均衡을 이룬 形態의 산을 말한다.

金山은 산의 形態가 全體的으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어서 바가지를 얹어놓은 듯한 산을 말한다. 이런 形態의 산을 露積峰이라고도 하는데 추수가 끝나고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形態와 유사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地域에서는 財物을 많이 모아 富者가 되는 사람이 많다. 金山 중에서도 산 形態가 둥글면서 힘차게 보이는 산을 투구봉이라고 하는데 이런 地勢에서는 將軍이 輩出되기도 한다.

水山은 산 頂上部에 물결이 굽이치는 듯한 形態를 이루듯 봉우리 여러 개가 부드럽게 連結되어 있다. 水山은 부드럽고 平和롭게 보이는 長點이 있는 반면 기운이 한 지점에 모이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短點이 있다.

五行 중 한 形態만 닮은 산은 五行山으로 간단하게 區分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五行으로 구분되지 않는 산의 形態도 많다. 특히 五行의 두 가지 기운이 混合된 形態의 산은 더욱 區分하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를 五行 混合山이라고 부른다.

4. 地勢의 種類

가. 金盤形 地勢

全體的으로 둥글고 平坦하면서 땅의 中心 部分이 언덕이나 盆地와 같이 솟아 있는 地勢를 金盤型 地勢라고 한다. 이런 地勢는 五行산으로 土山에 속하는데 이런 地勢는 알맞은 높이의 中心部를 頂點으로 해서 東西南北 四面이 완만한

[그림 3] 원형 지세의 종류¹³⁾



傾斜를 이루고 있으며, 外廓에 강물을 갖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金盤型 地勢에서는 어느 곳이나 집터로 좋은데, 특히 좋은 곳은 기운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頂上 부분이나 앞부분이다.

나. 圓形 地勢

가장 좋은 地勢는 들판을 中心에 두고 산이 東西南北 四面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4산 圓形 地勢이다. 이 地勢에서 가장 重要한 점은 산 네 개가 모두 들판을 향해 앞면을 보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산이 뒷면을 보이고 있다면 좋은 地勢라 할 수 없다.

3산 圓形 地勢는 세 산이 들판을 中心으로 두고 圓形으로 감싸고 있는 地勢를 말하는데 이러한 地勢에서도 生氣가 많이 모인다.

이 외에도 2산 圓形 地勢가 있는데 이는 두 산이 들판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보면서 圓形을 이루고 감싸주는 地勢를 말한다. 이러한 地勢에도 生氣가 모여 재물이 쌓이고 큰 인물이 배출된다. 2산 圓形 地勢는 두 산이 모두 들판을 향해 앞면을 보고 있어야 하며, 만일 뒷면을 보이는 地勢라면 生氣가 모이지 않는다. 이런 地勢에서는 4산 圓形 地勢나 3산 圓形 地勢에 비하여 生氣가 약하다.

13) 박 시익, 「전계서」, P. 85.

다. 삼태기 地勢

산 中心이 높이 서 있고 左右가 떨어져 있으며, 그 中間에 平坦한 들판을 이루고 있어 삼태기와 같은 形態를 하고 있는 산의 地勢를 말한다. 삼태기 地勢에서 가장 重要的 점은 산 中心 부분이 높아서 中心에 기운이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운이 中心에 모이지 않고 左右로 빠져나가는 地勢라면 결코 生氣를 이루지 못한다. 또 左右로 벌어진 능선이 들판의 中心을 향해 앞면을 보이고 있어야지 등을 보이고 있으면 生氣가 發生하지 않는다.

라. 直四角形 골짜기 地勢

두 산의 稜線이 서로 平行을 이루며 길게 뻗어 내려가는 사이에 全體的으로 直四角形을 이루는 들판이 있는 地勢다. 이런 地勢는 계곡에 많이 나타나는데 계곡 사이로 부는 바람이 강하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回轉運動을 하지 못해서 生氣가 모이지 않는다. 이런 地域에 집을 짓고 살면 中風에 걸리기 쉽다.

마. Y字形 地勢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산 사이에 골짜기를 이루고 있고 그 골짜기 끝 부분에 다른 산이 놓여 있어서 마치 ‘Y’字 같은 形態나 삼거리 같은 形態를 이루운이 回轉運動을 일으키지 못해 生氣가 發生하지 않는다. 이런 터에 집을 지으면 병어리가 되거나 健康을 잃고, 家族 사이에 不和를 면치 못한다.

바. 말안장 地勢

산의 稜線이 連結되어 내려오다가 잠시 平坦해진 뒤 다시 높이 올라가서 中心 部分은 낮고 앞면과 뒷면은 높아 말안장과 같이 된 形態로 산마루턱 位置가 代表的인 말안장 地勢이다. 산마루는 바람이 통과하는 空間으로 生氣가 발생되지 않는다.

사. 산이 없는 평탄한 땅

바람을 막아 주는 산이 없는 넓은 平野는 바람의 速度가 매우 빨라 땅의 기운이 分散되어 生氣가 모이지 않는다. 平野 지대의 땅 기운은 全體的으로 비슷해 建物 周邊에 나무를 심을 경우 바람을 막아 주지만, 生氣는 不足하다.

5. 山勢를 分析하는 方法

산은 한 地域 기운을 代表해서 나타내고 있으므로 大地의 性質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周邊에 있는 산의 기운부터 分析해야 한다.

地勢를 段階別로 파악하는 方法은 다음과 같다.

① 산의 앞과 뒤를 구분한다. 生氣가 모이는 空間은 산의 앞면이므로 이곳을 選擇한다. 산의 뒷면에서 明堂을 찾고자 함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② 산봉우리를 中心으로 品格·體形·五行山을 구분한다. 산의 品格으로 볼 때는 主人格 산이 가장 좋고 補助格은 그 다음으로 좋다. 背反格은 좋지 않으므로 選擇하지 않도록 한다.

산의 體形으로 볼 때도 強體와 中體를 고르도록 하고 弱體나 病體는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五行山으로 분석해서 강한 기운이 있는 木山·金山·土山을 고른다. 기운이 分散되는 火山이나 水山은 피한다.

③ 산 頂上에서 連結되어 내려오는 中心 龍(稜線)을 찾는다. 龍 중에서도 生龍이나 福龍, 應龍, 揖龍이 뻗어 내려오는 곳을 選擇해야 한다.

④ 靑龍과 白虎, 案山을 살핀다. 이들 龍虎(靑龍과 白虎)가 앞쪽으로 면하고 있으면 生氣를 만들어서 좋지만, 뒤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背反하는 기운을 갖고 있으므로 좋지 않다.

⑤ 물이 흐르는 모양과 水口를 살핀다. 물이 曲線으로 흐르며 逆水하는 곳이 明堂이다. 水口는 좁아야 좋다.

⑥ 中心 龍의 中間 부분에서 明堂을 찾는다.

⑦ 方位를 분석해서 主建物과 대문의 位置를 정한다.

第 4 節 물과 明堂

1. 물의 기운

風水地理 理論에서 물은 明堂을 이루는 가장 重要的 要素다. 風水, 곧 바람과 물이라는 用語에도 나타나듯이 물이 있어야만 明堂이 이루어진다. 『周易』의 氣가 發生하는 順序에서 보듯이 물은 모든 生命體에 가장 優先的으로 必要的 것이다.

산과 물을 活動性으로 나눈다면, 산은 陰이며 물은 陽으로 解釋된다. 산은 人

土를 管理하고 물은 財物을 管理하므로 산과 물이 어루어져야 비로소 調和를 이룬다.

錦囊經에 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氣乘風則散 界水則止)고 하였다.¹⁴⁾

風水에서는 물의 성격을 分析하는 方法으로 물의 規模, 흐름의 상태, 水質, 물이 흐르는 方位 등을 살핀다.

明堂은 바닷가보다 오히려 개천이나 작은 江이 있는 곳에 더 많이 이루어진다.

陰陽으로 보면, 물은 收縮하는 힘이고 收縮하는 힘은 自然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作用을 하는데 반해 불은 擴散하는 힘이고, 기운을 分散시키는 作業을 한다.

明堂은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均衡을 이루는 空間에서 이루어지는데, 물이 지나치게 많은 곳에서는 均衡을 잃어 明堂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람을 물과 불의 性質로 비교해 보면, 男性은 불과 같이 뜨거운 激情으로 活動하여 불의 기운으로, 女性은 冷靜하고 收容하는 기운으로 活動하여 물의 기운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五行 理論으로 물과 불의 관계를 보면, 水剋火하여 물의 기운이 불의 기운을 抑制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닷가에서는 물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男性들이 健康을 상하기 쉽고, 그 결과 대체로 일찍 죽는다. 반면에 女性들은 오히려 물의 기운을 받아서 健康하다. 그래서 바닷가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오래 산다.¹⁵⁾

2. 물의 規模와 形態

물은 크기에 따라 바다·강·댐·호수·계곡·밭고랑·연못 등으로 區分된다. 明堂은 바다나 江과 같이 큰물이 있는 곳에서는 形成되지 않고 개천이나 논두렁, 밭고랑처럼 작은 물이 있는 곳에서 形成된다.

바닷가에서 明堂이 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 주는 浦口가 있어야 한다. 浦口로 둘러싸여 있는 곳은 바다를 직접 면한 곳보다 한결 바람이 부드럽다. 바람이 부드러운 곳에 기운이 모이므로, 포구로 둘러싸인 바

14) 최 창조 역,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2001, P. 72~74.

15) 박 시익, 「전계서」, P. 90~92.

닷가에 明堂이 형성된다.

바닷가에 明堂이 이루어지는 경우 浦口 안쪽이 더 바람직한 空間이 되고 바깥 쪽은 바람이 강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그 代表的인 경우다. 바닷가에 포구가 크게 둘러싸여 있는 곳은 큰 都市로 發達하며, 작은 浦口에서는 한두 집이 明堂을 이룬다. 플로리다 주에 있는 에디슨의 여름별장도 典型的인 작은 浦口로 둘러싸여 있는 住宅이다. 이런 地勢 덕분에 이 研究所에서 훌륭하게 研究를 進行할 수 있었던 것이다.

큰 江이 있는 곳은 물의 기운이 많아서 明堂을 이루기 어렵다. 曲線으로 흐르는 江이 明堂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曲線으로 흐른다는 것은 부드럽게 흐름을 뜻하고 따라서 바람의 速度가 약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500년 동안 朝鮮의 首都였기 때문에 朝鮮의 歷代 왕들은 그들의 무덤을 서울 근방 明堂에 만들었지만 한강 가에는 王陵이 없다. 王陵이 자리한 地勢에서는 강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강물이 보이는 곳에는 明堂이 생기지 않는다는 學說을 確認하게 된다. 그러므로 집터를 고를 때도 큰 강이나 바닷가를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明堂은 개천과 같이 작은 물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작은 물에서 생기는 水蒸氣가 空氣 중에 퍼져 均衡을 이루기 때문이다. 代表的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復元 計劃이 推進되고 있는 淸溪川이 바로 明堂을 이루는 重要的 물이다.

地上에서 龍과 함께 흐르던 기운은 江이나 바다를 만나면 停止되어 한 곳에 모인다. 그 위치는 물의 形態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地勢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正確한 分析이 필요하다.

바다는 물의 根源이지만 강한 陰氣이므로 陽氣가 힘을 發揮하지 못하기 때문에 生氣를 發生하지 않는다.

浦口로 둘러싸인 地勢는 바다의 기운을 어느 정도 막아 주기 때문에 生氣가 조금은 形成되지만 완전한 穴이 形成되기는 어렵다. 바다에 가까우면서 낮은 산에 둘러싸여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 地域에 生氣가 잘 모인다.

江과 집터 사이에 야트막한 산이 가로막고 있어 어느 정도 江의 기운을 막아 주는 地勢라면 明堂이 形成된다.

風水에서 理想的인 물의 形態를 ‘弓水’라고 하는데, 활의 둥근 모양이나 굽이쳐 돌아가는 形態에서 曲線 中心의 안쪽을 말한다. 이러한 地勢에서는 물이

잔잔하고 地氣가 모여 좋은 집터를 이룬다. 曲線 바깥쪽에는 기운이 모이지 않아 좋은 집터가 되지 못한다. 慶北 安東 하회 마을이 代表的인 경우다.

直線으로 흐르는 강 左右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기가 모일 수 없다. 風水로 볼 때 물이 깨끗한 곳에서만 明堂이 이루어진다.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서는 훌륭한 人物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健康하게 成長한다. 물의 淸濁은 사람의 健康과 幸福이 直結되기 때문이다.

3. 물이 흐르는 方向

물이 흐르는 方向은 산이 높고 낮음과 直接 관련된다. 산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傾斜를 이루듯, 물의 흐름도 산의 傾斜度와 一致하게 마련이다. 산의 傾斜度와 물의 傾斜度가 같은 방향을 이루는 경우를 山水同居라고 하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결코 明堂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 서로 부딪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明堂은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부딪치면서 調和를 이루어야만 可能하다.

물이 산의 경사와 반대로 흐르는 경우를 逆水라고 하며, 이 경우에만 明堂이 發生한다.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곳에서는 바람이 잔잔해서 마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地理新法』의 水論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산은 본래 그 성질이 고요한 것이어서 陰에 속하고, 물의 성질은 움직임이어서 陽에 속한다. 陰은 本體를 담당하고, 陽은 變化를 관장한다. 그러므로 (陰은 體이고, 陽은 用이기 때문에) 吉凶禍福은 물에서 더 빠르게 나타난다.

대개 산은 사람의 形體와 같고, 물은 사람의 血脈과 같다. 사람은 形體를 갖고 있는데 사람의 生長榮枯는 모두 血脈에 依存한다.

이 血脈이 한 몸 사이를 순조롭게 돌아 일정한 軌道가 있어 순조롭고 어그러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편안하고 굳셀 것이고, 일정한 궤도를 거슬러 절도를 잃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病에 걸려 죽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로써 바꿀 수 없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 法은 반드시 물이 오고 감이 산과 合致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五局의 氣에 있어서 生하는 기운(生), 旺盛한 기운(旺), 죽은 기운(死), 끊긴 기운(絶)은 각기 그 정해진 方位가 있다.

무릇 물은 각기 그 좋은 方位에서 흘러 들어와 나쁜 方位로 나가는 것이 좋다.

호순신 理論에 따른 땅의 吉凶判斷은 九星과 胞胎法 및 그 吉凶關係는 [표 1]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¹⁶⁾

[표 1] 구성과 포태법 및 그 길흉관계 표

九星	貪狼	貪狼	文曲	文曲	武曲	武曲	右弼	巨門	左輔	廉貞	廉貞	破軍	祿存	祿存
胞胎	養	長生	沐浴	冠帶	臨官	帝旺		衰		病	死	葬(墓)	胞(絶)	胎
金山	辰巽	巳丙	午丁	未坤	申庚	酉	辛	戌	乾	亥壬	子癸	丑艮	寅甲	卯乙
水土山	未坤	申庚	酉辛	戌乾	亥壬	子	癸	丑	艮	寅甲	卯乙	辰巽	巳丙	午丁
木山	戌乾	亥壬	子癸	丑艮	寅甲	卯	乙	辰	巽	巳丙	午丁	未坤	申庚	酉辛
火山	丑艮	寅甲	卯乙	辰巽	巳丙	午	丁	未	坤	申庚	酉辛	戌乾	亥壬	子癸
吉凶	吉	吉	凶	凶	吉	吉	吉	吉	吉	凶	凶	凶	凶	凶

가. 주걱형 地勢

강가에서 물의 方向은 일정하게 아래로 흘러가게 마련인데 이러한 강가에서 明堂이 發生되려면 물의 흐름을 걷어올리는 듯한 주걱과 같은 地勢여야 可能하다.

이런 地勢에서는 물의 기운이 陰陽으로 결합되어 明堂을 이룬다. 뉴욕 맨해튼 서부에 있는 허드슨 강이 北에서 南으로 흐르는 반면 맨해튼 서쪽 지역이 물을 걷어올리는 形態를 보여 明堂을 이룬다. 캐나다 밴쿠버 역시 逆水에 의해서 이루어진 都市다.

나. 行舟形 地勢

行舟形은 강물을 따라 形成되는 明堂의 代表的인 形態다. 行舟形 地勢는 강가에 물이 굽이쳐서 그 地域이 마치 배의 形態 또는 반달과 같은 形態의 地域을 말한다. 行舟形은 흘러내려 가는 강물을 마주보고 펴 올리는 숟가락 또는 배 形態를 이루고 있다.

숟가락 形態에서는 움푹하게 패어 飲食物이 고이는 부분이 바로 明堂에 該當하고 배의 形態로 보면, 上部에 가까운 부분이 明堂이 되며 下部는 明堂이 되지 못한다.

16) 김 두규 역, 「호순신의 지리신법」, 도서출판 장락, 2001, P. 73~75.

[그림 4] 행주형 지세를 갖춘 파리 시가지



行舟形은 반달 또는 초생달의 形態라고도 하는데 이런 都市로는 慶州의 반월성과 淸州·平壤 등도 行舟形 明堂으로 알려져 있다. 外國의 경우에는 유럽의 런던, 파리, 비엔나와 미국의 리치먼드 등이 이에 속한다.

4. 水口와 집터

水口란 물이 한 지역의 낮은 부분에서 江이나 개천으로 흘러 나가는 部分을 말한다. 水口의 機能은 물탱크의 排水 밸브와 같은데 排水 밸브가 열린 곳에서는 물이 고이지 못하고 밸브가 닫혀 있는 곳에만 물이 고일 수 있다.

또 水口는 人體의 肛門과도 그 機能이 같은데 肛門은 平常時에는 닫혀 있어서 體內 기운이 外部로 流出되는 것을 막고 生命力을 維持시키지만 사람이 죽으면 肛門이 열려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다. 이와 같이 水口는 地勢에서 生氣의 發生과 그 有無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친다.

水口로는 물뿐만 아니라 바람도 빠져나간다. 그러나 明堂에서는 水口를 통해 물이 빠져나가더라도 바람은 빠져나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물이 흘러 나가는 下流, 곧 水口가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地勢에서는 물이 산을 감싸고돌아 나가는 形態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록 물은 산을 돌아 빠져나가지만 바람은 직접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림 5] 물 흐름의 종류¹⁷⁾



이러한 形態가 곧 막힌 水口로 이런 地勢에서는 生氣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큰 富者나 훌륭한 人物이 많이 輩出되고 열린 水口에서는 生氣가 전혀 모이지 않아 健康과 財物, 名譽를 잃게 된다.

水口를 이루는 龍은 靑龍이나 白虎에 關係없이 반드시 逆水를 해야 한다. 逆水를 하면 그 水口는 좁은 水口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넓은 水口인 동시에 山水同居가 되기 때문이다. 水口 중에서 靑龍의 끝과 白虎의 끝 部分이 서로 한 地點에서 합치거나 겹쳐 있는 것이 가장 理想的이다.

水口를 陰과 陽으로 구분해서 靑龍에서 만들어진 水口를 陽 水口, 白虎에서 만들어진 水口를 陰 水口라고 한다.

合水 지역에서도 明堂이 形成되기 쉬운데 두 개 이상의 江이나 개천이 하나로 합쳐지는 地勢에서는 물이 합쳐지면서 기운이 합쳐져 강해지기 때문이다.

得水란 처음 물이 보이기 시작한 位置를 말하고 물이 마지막으로 보이는 地點은 波口라고 한다. 穴은 用과 물 두 기운이 結合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만큼 地勢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明堂을 이루게 된다. 골짜기는 물이 없어도 물로 해석한다.

水가 靜한 것은吉한 것으로 하나 실로 물이 흘러나감이 없다면 그 물은 腐敗됨을 면하지 못하게 되고 또 風水에서 腐敗된 물은 극히 피하는 바가 된다.

17) 박 시익, 「전계서」, P. 96.

또한 물이 들어오는 쪽이 보이는 것을吉하게 여기고 물이 빠져나감은 보이지 않음을吉로 한다.

來龍의 左旋 또는 右旋에 따라서 得水 地點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를 決定하는데 來龍이 右旋일 경우에는 靑龍 쪽에 得水가 있어야 明堂을 이루고, 來龍이 左旋을 이룰 경우에는 白虎 쪽에 得水가 있어야 明堂이 이루어진다. 용이 左右 混合된 경우에도 得水가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一般的이다. 龍이 直線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물이 왼쪽과 오른쪽 양쪽으로 分散되어 흐르게 되는데, 이런 境遇를 兩波라고 한다. 이 地勢에서는 家族이나 財物이 흩어지게 된다.

第 5 節 龍과 明堂

1. 龍의 形態

‘龍’이란 風水地理에서는 산과 稜線을 말한다. 風水에서 산과 稜線을 龍이라고 말한 것은 산과 稜線이 갖고 있는 神秘하고 강한 기운 때문이다. 산의 신출귀몰하고 變化 無雙한 흐름을 마치 龍이 살아 움직이는 形相과 같이 본 것이다.

龍은 山脈의 표면 形態이고 기운은 脈 속에 흐르는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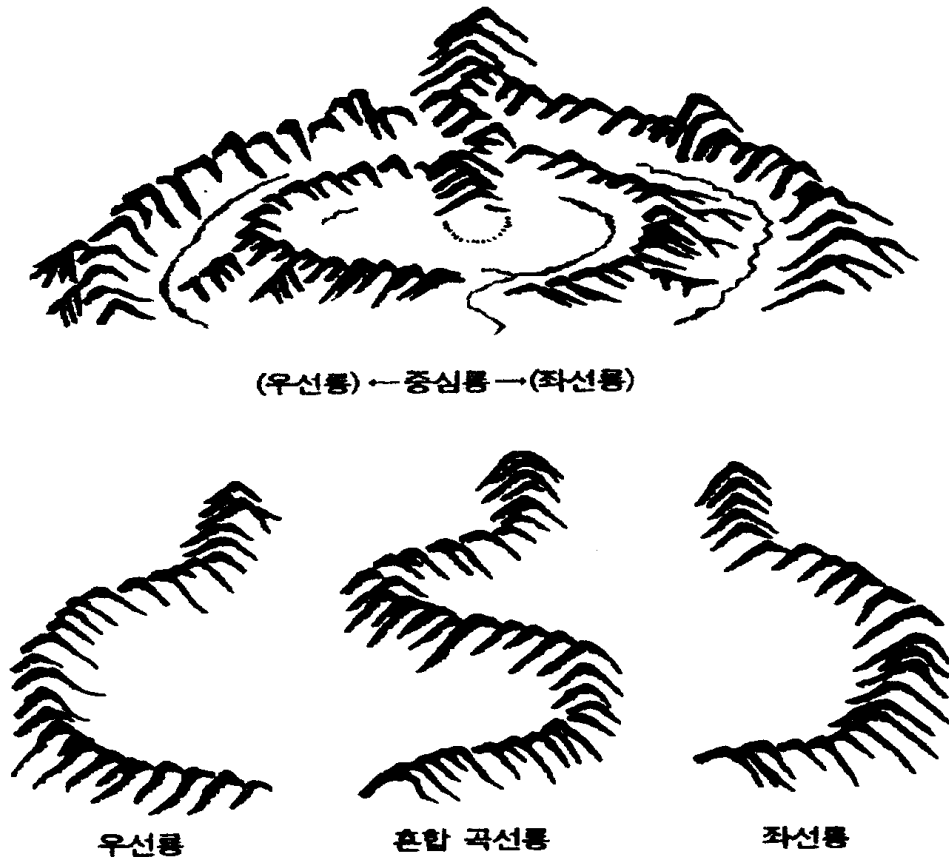
龍을 正確하게 分析하면 穴을 찾을 수 있고, 地勢의 기운도 正確하게 解釋할 수 있다.

龍에는 直線 形態와 曲線 形態의 두 가지가 있는데 直線 형태의 龍은 ‘中心龍’이라 하고 曲線的인 龍은 曲線 形態에 따라 左旋龍·右旋龍·混合曲線龍 등으로 區分된다.

左旋龍은 主峰에서 連結되어 내려온 龍이 마치 사람의 왼쪽 팔과 같이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曲線 方向이 변하는 것을 말하고, 右旋龍이란 主峰에서 내려온 龍이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曲線의 方向이 바뀌면서 連結되는 龍을 말한다.

混合曲線龍은 山의 主峰에서 連結된 龍이 처음에는 左旋을 한 뒤에 다시 右旋을 하는 등 全體적으로 左旋과 右旋의 變化를 갖고 있는 곧 ‘S’자 모양을 한 龍을 말한다.

[그림 6] 용의 종류¹⁸⁾



穴은 中心龍이나 曲線龍에 關係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穴을 이루고 있는 地勢에서 穴은 中心龍에, 靑龍은 左旋龍에, 그리고 白虎는 右旋龍에 位置하는 것이 가장 좋은 形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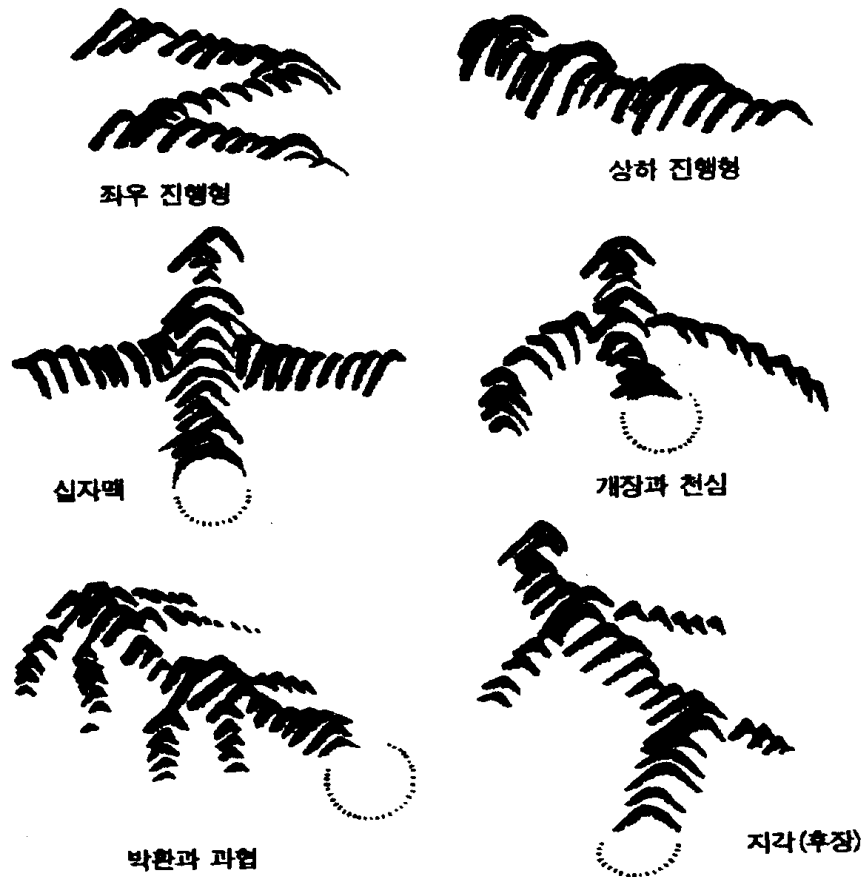
龍에 따라 生氣의 發生에 차이가 있으므로 생기를 만들어 주는 龍을 찾는 것이 明堂을 찾는 지름길이다.

『名山論』에 의하면 「盖氣聚之處, 内外相從, 始末相應, 氣散之處, 内外相背 始末相違」(대개 氣가 모이는 곳은 안팎이 서로 따르고, 처음과 끝이 서로 呼應하며, 氣가 흩어지는 곳은 안팎이 서로 등을 돌리고, 처음과 끝이 서로를 멀리한다.)라고 하였다.¹⁹⁾

18) 박 시익, 「전계서」, P. 109.

19) 김 두규 역,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P. 178~179.

[그림 7] 용의 여러 가지 모양²⁰⁾



이처럼 地勢의 기운을 分析할 때는 龍의 앞뒤를 區分하는 것이 매우 重要하다. 龍의 앞은 生氣가 있어서 明堂을 이루는데 비교적 地面이 均一하고 安定的이어서 아름답고 밝은 빛을 띤다. 그러나 龍의 뒷면은 험한 바위가 튀어나와 있어 地面이 安定되지 못하고, 땅 색도 어둡고 陰散하다.

左旋龍일 경우에는 龍에서 내려다봤을 때 오른쪽이 앞면이고, 왼쪽이 뒷면이다. 반대로 右旋龍일 경우에는 오른쪽이 뒷면이고 왼쪽이 앞면이다.

龍의 앞면과 뒷면은 종이의 앞뒤처럼 거리로는 매우 가깝지만 햇빛이 앞면에 비칠 때 뒷면은 陰地가 되는 것과 같이, 明堂은 龍의 앞면에서만 이루어진다. 비록 4~5m의 작은 능선에 의해 구분되지만, 그 기운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²¹⁾

20) 박 시익, 「전계서」, P. 115.

21) 박 시익, 「전계서」, P. 108~110.

2. 龍의 기운 分析 方法

穴의 기운은 主峰의 기운이 龍을 통해 모이는 過程에서 이루어지는데 山의 主峰에서 穴까지 連結된 稜線을 來龍이라고 한다.

主山의 기운이 穴과 明堂을 이루기 위해서는 主山과 穴 사이 龍이 끊어지지 않고 連結되어 기운이 통해야 하고 龍 중간 중간이 일정한 形態의 變化 過程을 거쳐야 한다.

이렇듯 龍의 形態가 變化되어 있으면 기운이 통하는 生龍이며, 龍의 變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直線으로만 連結되어 있으면 기운이 없는 龍이거나 죽은 龍, 곧 死龍이 된다.

龍의 進行은 方向에 따라 解釋이 달라지는데 龍이 갈 지(之) 자와 같은 形態를 이루고 있는 것을 ‘左右 進行形’이라고 한다.

가장 理想的인 變化 過程은 15m를 한 걸음, 곧 한 폭으로 하여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불구불 변하고 變化 角度는 30도가 代表的이며, 힘이 강한 龍일수록 변화 각도가 커 90도를 이루는 것도 있다. 龍에 따라서는 걸음 폭이 20m를 넘는 경우도 있지만, 30m를 넘어도 變化가 없는 경우에는 死龍으로 解釋한다. 또 다른 形態로는 ‘上下 進行形’이 있는데 龍이 솟아올랐다 떨어지고, 다시 솟아 올랐다가 떨어지는 形態를 말하는데 이런 龍은 강한 기운을 갖고 있다고 分析한다.

또 龍이 내려오는 도중에 왼쪽·오른쪽·앞쪽 세 方向으로 뻗어 나가 來龍까지 합해 十字 모양을 이루는 것도 있는데 이런 十字脈은 龍의 기운이 매우 강한 경우에만 발생하여 十字脈을 王氣를 갖고 있는 龍으로 解釋해서, 王이나 큰 財閥이 나온다고 본다.

主山과 穴 사이에 있는 主龍은 ‘開帳’과 ‘穿心’의 變化를 이루게 된다. 開帳이란 帳幕을 屏風처럼 넓게 펼친다는 뜻으로, 산이 主山을 中心으로 左右로 넓게 펼쳐진 것을 뜻한다. 이 때 左右 양날개가 동일한 地點에서 出發한 경우에는 十字脈이 되어 더욱 강한 穴을 이룬다.

穿心이란 主山의 기운이 穴에 이르기까지 脈이 통하는 過程을 말하는데, 主山의 기운이 穴까지 傳達되기 위해서는 主峰의 기운이 강해야 하며 同時에 生龍이어야 한다.

龍의 變化에 따라 ‘剝換’과 ‘過峽’으로 區分하기도 한다.

剝換이란 강하고 험한 龍이 부드러운 形態로 變化하는 過程을 말하고, 過峽은

龍으로 貫通하는 기운이 穴을 이루기 위해서 通過하는 목과 같이 가늘고 강한 龍을 말한다. 過峽은 강한 기운이 通過하면서 마치 끈으로 묶인 것 같은 形態를 이루고 있어 ‘束氣’라고도 한다.

龍은 산봉우리를 뒤로하고 낮은 地域을 향해 내려가는 性質을 갖고 있는데, 이 때 뒤에서 받쳐 주는 龍을 ‘枝脚’ 또는 ‘後杖’이라고 한다.

龍의 힘은 枝脚의 크기에 따라 決定된다.

理想的인 生龍은 대략 15m마다 한 節을 이루고 있는데, 한 節은 30년의 發福期間을 意味한다고 解釋한다.

따라서 穴에서 主峰까지 生龍 길이가 45m면 3節이 되며 90年 동안 發福했음을 意味한다. 龍이 중간에 끊겼으면 穴에서 끊긴 곳까지 節 수를 세서 發福期間을 計算하는데 끊어진 뒤에 있는 龍은 計算하지 않는다.

龍의 기운을 分析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方法이 있는데 龍의 기운은 穴 기운에 重要的 要素가 된다.

이렇게 분석된 來龍의 形態에 따라 그 影響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來龍의 기운이 旺盛하면 기운이 좋은 子孫이 태어난다.

來龍이 厚富하면 子孫이 富裕하다.

來龍脈에 가지가 많은 경우에는 子孫이 많이 태어난다.

來龍이 順龍이면 忠臣과 孝子가 태어난다.

來龍脈이 우뚝하면 기세 좋은 子孫을 둔다.

來龍脈이 光彩를 갖고 있으면 귀한 아들이 태어난다.

來龍이 길게 연결되어 있으면 發福 期間이 延長된다.

來龍脈이 흩어지면 子孫이 健康을 잃고 不具 子孫이 나온다.

來龍脈이 끊어지면 子孫이 끊어지고 힘이 弱하면 힘없는 子息이 태어난다.²²⁾

3. 龍의 種類

生龍과 死龍 : 生龍과 死龍은 形態로 區分하는데, 갈 之 자 形態나 上下 運動하는 變化를 이루고 있으면 生龍으로 보고, 變化가 없이 평평짐하게 퍼져 있으면 死龍으로 본다. 生龍의 흙은 밝고 生氣가 있는 반면, 死龍은 푸석푸석

22) 박 시익, 「전계서」, P. 112~113.

하고 彈力이 없으며 기운이 없는 죽은 色을 갖고 있다.

正龍 : 龍이 산봉우리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變化가 아름다운 것을 正龍 또는 主龍이라고 한다. 正龍은 穴을 이루는 龍으로서, 主峰에서 穴까지 直接 連結되어 ‘來龍’이라고도 한다.

幹龍과 枝龍 : 나무에 줄기와 가지가 있는 것처럼 龍에도 幹龍·枝龍·작은 가지 龍 등이 있다. 幹龍이란 白頭山·太白山과 같이 巨大한 山脈에 의한 龍으로, 巨大하고 過激한 龍을 말하며 ‘原龍’이라고도 한다.

枝龍이란 幹龍으로부터 뻗어 나온 龍을 말하며, 작은 가지 龍은 다시 枝龍에서 出發한 것을 말한다. 龍의 形態에 의해 幹龍은 大龍으로, 枝龍은 中龍으로, 작은 가지 龍은 小龍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大龍은 斷面의 길이가 폭 30m 높이 20m를 넘는 龍이며, 中龍은 폭 20m이며 높이 10m 이상 20m까지, 小龍은 폭 10m 높이 10m 未滿으로 각각 區分한다.

電線 굵기에 따라 電流의 양이 각각 다르게 흐르듯, 龍의 斷面續에 따라서 地氣가 흐르는 量도 比例한다. 一般的으로 幹龍은 바다와 같이 큰물이 있는 쪽으로 흘러 내려가며, 枝龍이나 작은 가지 龍은 이와 反對로 강물을 등지고 平坦한 들판을 향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또 꽃이 줄기에 피지 않고 가지에 피듯, 明堂도 바다를 향해 내려가는 幹龍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들판을 향해 내려가는 枝龍이나 작은 가지 龍에 이루어진다.

順龍과 逆龍 : 山의 높은 봉우리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形態의 龍을 順龍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龍은 順龍이다. 이와 반대로 逆龍은 높은 곳에서 조금씩 낮아지면서 다시 높이 솟아올라 逆峯을 이루는 形態를 말한다.

順龍이 있는 地勢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순한 마음을 갖고 國家에 忠誠하고 父母에게 孝道하는 반면 逆龍이 있는 地域에서는 下剋上이 자주 일어난다.

病龍과 結項砂 : 龍의 形態가 左右 均衡을 이루지 못했거나, 左右 上下 변화가 부족한 것을 病龍이라고 하는데 이런 地勢에서는 病的인 기운이 통해 불구자가 나온다. 結項砂는 龍이 변화없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서 끝 부분이 둥글게 솟아올라 있어 마치 목매달고 죽어 축 늘어진 屍身을 눕힌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산을 말한다. 이런 地勢에서는 목을 매달아 自殺하는 사람이 생긴다.

第 6 節 穴과 明堂

明堂이란 좋은 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땅을 말한다. 좋은 기운은 사람에게 健康을 주고 마음을 便安하게 해 주며 生活에 意慾을 주는 기운이다.

明堂 중에서도 특히 기운이 많이 모여 있는 땅을 穴이라고 한다. 生命體마다 生殖器가 있듯이 거대한 산에도 生殖器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穴이다. 穴은 곧 生氣를 만들어 내는 空間이다.

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는 뿌리·줄기·잎이 모두 健康하게 자라야 하듯이 산에서 穴이 하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뿌리에 該當하는 봉우리와 줄기에 해당하는 稜線(龍), 그리고 앞에 해당하는 靑龍과 白虎 모두 잘 構成되어 있어야 한다.

風水地理의 궁극적인 目的은 明堂과 穴을 찾는 것인데 地勢를 분석해서 穴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양균송이 말하기를 「龍을 살피기는 쉬우나 占穴하기는 어려우니 손가락 하나 만큼만 틀려도 萬重山이 막힌 것과 같다」고 하였다.²³⁾

1. 穴의 發生

穴은 自然에 있는 陰氣와 陽氣가 結合해서 發生한다. 비오는 날 번개와 우뢰가 많이 發生하는 것은 높은 산이나 뽕죽한 나무에 陰電荷가 많이 모여 있어 陽電荷가 서로 結合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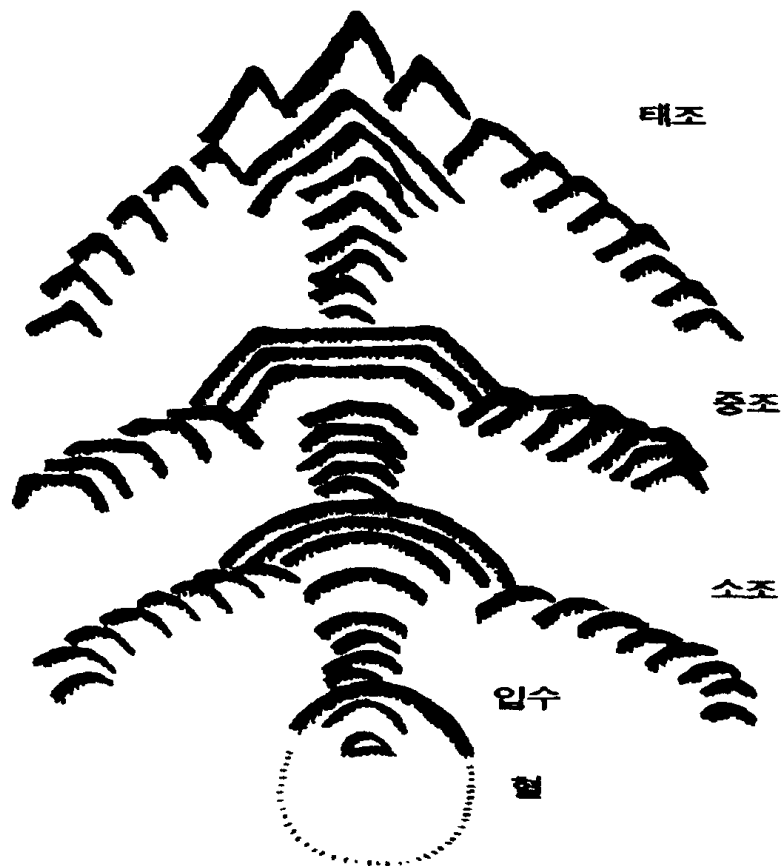
風水에서 말하는 穴도 하늘의 陽電荷와 땅의 陰電荷가 結合하는 過程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過程을 風水地理에서는 陽來陰受라고도 하는데, ‘陽이 오면 陰이 붙잡는다’는 뜻으로, 陽과 陰이 結合하는 過程을 說明하는 말이다.

陰電荷와 陽電荷가 長期的 結合을 이뤄 穴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陰電荷가 모이는 산과 龍이 있어야 하고, 공기 가운데 陽電荷를 만들어 주는 水分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靑龍·白虎·朱雀·玄武 같은 바람막이가 있어야 한다. 四神砂가 바람을 막아 주는 內部에서 地表面의 陰 기운과 공기 중의 陽 기운이 서로 長期的으로 結合해 밝은 기운이 發生한다.

둘째, 穴을 이루기 위해서는 主山에서 發生된 기운이 穴까지 傳達되는 過程인

23) 한 송계 역, 「풍수지리 명당전서」, 명문당, 1994, P. 109.

[그림 8] 용의 5단계 변화 과정²⁴⁾



太祖, 中祖, 小祖, 入首, 穴板의 5段階를 따라 각 段階 사이에서 龍이 앞 뒤 기운을 이어 줘야한다.

龍의 5段階 過程 가운데 太祖는 主山에 있는 主峰, 곧 龍이 連結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말한다. 中祖는 太祖로부터 내려오던 기운이 새롭게 뭉쳐서 이루어진 작은 봉우리를 말하고, 小祖는 中祖로부터 내려오던 기운이 다시 뭉쳐서 이루어진 작은 봉우리를 말한다. 또 入首는 小祖로부터 龍을 통해 내려오던 기운이 穴을 이루기 위해 기운을 단단하고 강하게 뭉쳐 놓은 地點을 말하며, 穴板은 入首에 들어온 기운이 穴을 만들기 위해 만든 널찍한 空間을 말한다. 이처럼 穴은 龍의 거의 끝 부분인 傾斜진 面이나 平坦한 地面 위에 形成된다. 穴板 中心部에는 穴이 자리잡게 되고 穴板 周邊 평탄한 空間은 모두 明堂이

24) 박 시익, 「전계서」, P. 127.

된다.

穴의 기운은 主峰의 기운이 龍을 통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 山에서 頂上은 땅 기운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다. 따라서 頂上이 아름답게 생긴 山이 기운도 좋다고 보며, 生氣가 있는 明堂도 이러한 곳에 構成된다.

산 頂上이 험하거나 不安하면 周邊 땅의 기운도 그다지 좋지 않아서, 이러한 곳에서는 明堂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山 頂上인 主峰의 기운이 穴에 傳達되는 形態에 따라 그 影響은 달라진다.

主峰이 神聖하면 훌륭한 人物이 輩出되고, 기운이 旺盛하면 강력한 指導者가 輩出된다.

主峰이 아름다우면 英雄이 태어나고 맑은 기운을 發散하면 高級 公務員이 輩出되고 主峰이 厚富하면 財閥이 輩出된다.

主峰이 홀어져 있으면 천한 子孫이 태어나고 無氣力하면 나약한 子孫이 태어난다.

主峰이 험악하면 흉한 子孫이 태어나고 主峰이 散亂하면 不和하는 子孫이 태어난다.

主峰이 힘이 약하면 약한 사람이 태어나고 主峰의 기운이 陰濕하면 盜賊이 태어난다.²⁵⁾

2. 穴의 構造와 形態

대부분의 龍이 암석으로 되어 있듯 혈도 암석으로 구성된 堂板의 中上 부위에 자리잡는다. 穴은 堂板에서 入首와 朱雀, 左右 양쪽의 蟬翼에 둘러 싸여 있으며, 龍·入首·蟬翼·前脣 등 여러 가지의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다.

穴板은 中心에 穴을 두고 上部에는 入首, 下部에는 前脣, 왼쪽과 오른쪽에는 蟬翼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穴을 中心으로 上下 左右에서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말한다.

穴板 : 穴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堂板이라고도 하며, 한가운데 穴이 이루어진다.

25) 박 시익, 「전계서」, P. 124~126.

穴板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正常的인 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穴板 上部에는 入首가 主龍에 連結되어 있으며, 入首 아래로는 穴이 있고 穴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蟬翼이 位置하고 있다.

穴과 양쪽의 蟬翼 아래에는 前脣이 있어서 穴과 穴板을 만들어 준다. 穴板은 穴을 만드는 바탕이 되므로 穴板의 힘이 크면 穴의 기운도 크고, 穴板의 힘이 弱하면 穴의 힘도 弱하다.

入首 : 산봉우리에서 龍을 통해 내려온 地氣는 穴을 이루기 위한 準備 段階로 먼저 穴板의 上部에 入首를 만든다. 入首는 龍에 흐르는 기운을 끌어당겨 그 기운으로 穴과 蟬翼, 朱雀을 만드는데 入首는 龍의 하단에, 穴의 上部에 位置한다. 形態는 龍보다 약간 높이 솟아 있으며, 左右가 비슷해 安定을 이룬다.

入首에 뭉쳐진 기운은 穴과 蟬翼을 만들며, 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入首가 있어야 하므로 入首의 有無는 穴의 有無를 파악하는 데 가장 큰 關鍵이다.

入首는 來龍의 기운 외에 산이나 물 등의 주변 地勢에 의하여 複合적으로 結合되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龍의 기운이 入首의 기운을 가장 크게 左右한다.

入首의 기운이 크면 穴의 기운도 크고, 入首의 기운이 약하면 穴의 기운도 弱하다.

蟬翼 : 穴板의 穴을 中心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蟬翼이라고 한다. 蟬翼은 入首에 모인 기운 가운데 일부가 左右로 나뉘어 뻗어 나가 이뤄진 것으로 地氣가 穴에 모이도록 돕는다. 사람 몸에 비유하면 左右 갈비뼈가 內臟을 保護하는 作用과 같다.

蟬翼이란 매미 날개를 뜻하는 말로 龍 左右에 平坦하면서도 두둑하게 둘러쳐져 있으면서 바위와 같이 단단한 土質로 地盤을 이룬다.

蟬翼은 穴板 上部에서 入首가 穴로 전해지는 中心 축을 기준으로 左右 각 30도 각도를 이루며, 그 크기는 한 節의 길이인 15m 정도이다.

蟬翼이 있는 地勢에서는 사람들이 健康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尊敬을 받는다. 그러나 蟬翼이 없는 지세에서는 건강을 잃기 쉽다.

前脣 : 入首 기운이 穴과 蟬翼을 만든 뒤, 남은 기운이 穴 아래로 平坦하게 모여 있는 空間을 말한다. 前脣은 穴板과 이어지는 地面을 이루며, 穴 앞에서는 마치 새 주둥이와 같은 三角穴을 이루는 것이 理想的이다. 前脣이 없거나

그 기운이 약한 곳에서는 기운이 모이지 않아 明堂을 이루기 어렵다.
理想的인 前脣은 穴 앞에서 기운이 끝나는 形態다. 前脣에서 생기는 기운은 財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前脣이 좋은 地勢에서는 財閥이 輩出된다.

3. 穴의 種類

穴은 형태에 따라 4가지 基本形으로 分類를 하는데 窩穴・鉗穴・乳穴・突穴로 區分된다.

穴의 形態를 네 가지로 分類한 것은 마치 太極이 兩義로 또 四象으로 變化된 것과 같다.

가. 窩穴

窩穴은 主龍에서 내려온 기운이 穴板에서 左右로 각각 脈을 벌려 소쿠리 같고 제비의 집과 같고 닭의 등우리와 같고 냄비의 밑바닥과 같은 形態를 이루고 있다.

이는 平地와 高山에 다 있는 것으로 높은 山에 더욱 많은 바 高山은 凹한 곳으로 眞穴을 삼고 平地는 突(솟은 곳)한 것으로 眞穴을 삼는다.

또 窩의 形에는 四格이 있으니 첫째는 深窩(깊은 窩)요, 둘째는 淺窩(얕은 窩)요, 셋째는 狹窩(좁은 窩)요, 넷째는 濶窩(넓은 窩)인데 모두 左右가 均衡을 이뤄야 正格이고 左右가 고르지 못하면 變格이다. 여기에 또 體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藏口窩體이고 또 하나는 張口窩(입을 벌린 것)이다. 또 四格의 形이 구부리고 쳐다보는 두 가지의 形이 있는데 구부리면 窩中에 미미하게 乳穴(유방 같은 것)이 있으니 그곳에 占穴을 하고 昂(머리를 드는 것)하면 窩中에 조그만 突穴이 있으니 穴을 그 突한 곳에 定하게 되면吉하다.

나. 鉗穴

鉗穴은 마치 쇠뿔과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어 牛角이라고도 하는데 主龍에서 내려온 기운이 穴板을 이루는 동시에 穴板 양쪽 끝에 받쳐 주는 脈을 갖고 있고 穴星이 두 다리를 벌린 것과 같다.

鉗穴은 高山이나 平地에 모두 있는 것인 바 鉗穴에는 五格이 있는데 첫째는 直鉗, 둘째는 曲鉗, 셋째는 長鉗, 넷째는 短鉗, 다섯째는 雙鉗이다.

다. 乳穴

乳穴은 龍이 길게 뻗어 내려온 形態로 女性의 젖가슴과 같다는 意味에서 이 용어를 使用하는데 懸乳穴(달아 맨 젖), 혹은 垂乳·乳頭라 하는데 모두 두 팔이 있고 中間에 乳穴이 生한 것이니 平地나 高山에 다 있다.

乳穴에는 六格이 있으니 첫째가 長乳, 둘째 短乳, 셋째 大乳, 넷째 小乳, 다섯째 雙垂乳, 여섯째 三垂乳이다. 이 중에 長·短·大·小의 四格은 正格이고 雙垂乳, 三垂乳는 變格이다.

乳穴에는 또 二體가 있는데 하나는 兩臂(양비 - 두 팔)가 弓抱하여 遊回하고 다른 하나는 兩臂가 弓抱하였으나 遊回하지 않는 것이다.

대개 乳穴은 가장 이그러지고 드러나고 四方으로 꺾어진 것을 忌하고 반드시 두 팔이 에워 싸야만 眞結이다. 六格의 形이 모두 구부리고 우러르는 二가지 體가 있으니 구부린 穴은 아래로 내려 살을 벗고 昂穴은 위로 약간 올려 脈을 접하는 것으로 만일 後龍이 吉하고 入首가 明白하고 星辰이 合格하면 가장 吉하다.

라. 突穴

突穴은 엮어놓은 술처럼 中心 部分이 둥그렇게 솟아오르고, 그 周邊에는 술발과 같은 바위가 솟아오른 形態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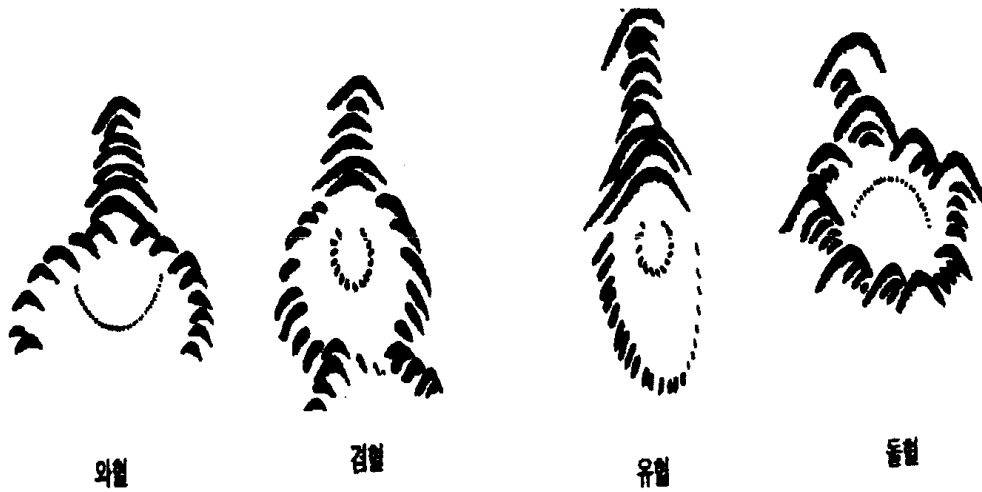
山谷의 穴은 바람을 감추는 것을 要하기 때문에山谷의 突은 左右가 環抱함은 좋고 외롭게 들어 나서 바람 받는 것을 꺼린다.

平地의 突은 四邊의 平坦함이 害가 없으나, 다만 界水가 明白하고 水勢가 穴前에 모이든지 혹 環抱함이 아름답다. 葬書에 말하기를 「무릇 닭의 엄통, 오리알, 용의 구슬, 자미 왕룡 등의 형은 모두 突穴의 別名이나, 평평한 가운데 突함이 있는 것인바 平地나 높은 山에 다 있는 것으로 반드시 界水가 명백하고 來脈이 분명하면 左右가 평탄하더라도 害가 되지 않는 것은 平地에는 바람이 地面을 쫓아 자나는 고로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하였다.

突穴에는 四格이 있으니 첫째가 大突, 둘째 小突, 셋째 雙突, 넷째 三突인바, 이 중 大突과 小突은 正格이며 雙突과 三突은 變格이다.

穴은 岩石으로 된 入首와 蟬翼, 그리고 朱雀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穴 자체는 特殊한 土質로 構成되어 있다. 穴을 構成하고 있는 穴土는 一般 흙과는 그 모

[그림 9] 혈의 4가지 종류²⁶⁾



양새가 다르다. 겉에서 보기에 는 마치 바위와 같으나 실제로는 바위와 흙의 中間 成分을 갖고 있는 ‘非石非土’다. 삼이나 곡괭이 같은 가벼운 器具로도 손쉽게 파낼 수 있으며, 穴土 덩어리는 바위 같은 겉을 촘촘히 갖고 있는 것이 一般的이다. 色은 금빛 같은 밝은 색채를 띠고 있으며, 때로는 시루떡처럼 層마다 色이 다르기도 하다.

穴土는 構成이 매우 치밀해 外部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나무 뿌리나 벌레, 바람 등을 浸透하지 못하게 하면서 神秘的 氣운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穴土에 屍身을 묻으면 외부의 나쁜 氣운이 近接하지 못하고 穴土에서 發生되는 生氣가 屍身을 감싸므로 屍身이 安全하게 保全된다.

穴에서는 땅의 氣운과 하늘의 氣운이 동일한 地點에서 循環하며 調和를 이룸으로써 열과 빛을 發散한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따뜻하고 밝아 明堂을 이루는 것이다.

4. 穴 周邊의 地勢 分析

穴은 穴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나 물 같은 自然 條件의 氣운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穴 주위에 좋은 산이 있으면 좋은 산의 氣운을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산이 있으면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좋은 산이란 산의 앞면을 두

26) 박 시익, 「전계서」, P. 129.

고 말하는 것이며, 뒷면을 보이고 있는 산은 어느 경우든 좋지 않다.

물도 穴을 구성하는 重要 要素인데 一般的으로 稜線 왼쪽이나 오른쪽에는 물이 있게 마련이다.

穴을 만들어 주는 물은 穴板의 앞쪽에 있는 물을 말하는데 穴板이 右旋할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물이 穴板을 만들어 주고 이 왼쪽 물이 오른쪽 물보다 重要的 役割을 한다. 왼쪽 물이 처음 시작되는 위치가 得水며, 왼쪽 물이 흘러서 朱雀 끝을 감돌고 나가서 흘러나가 보이지 않게 되는 地點이 波口다.

穴板이 右旋하는 경우에 得水 地點은 왼쪽에, 波口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龍의 진행 방향과 물의 흐르는 방향이 서로 마주치게 된다. 穴板이 左旋할 경우에는 물이 오른쪽에 得水 得波를 이루게 된다.

左旋의 龍에서 得水 地點은 오른쪽 위 部分이며 波口는 왼쪽에 나타난다. 이러한 地勢에서 龍의 進行 方向과 물의 進行 方向이 서로 마주치게 되어 穴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산의 形態가 좋은 산을 吉砂라고 하는데 산이 中心에 기운이 모여 있는 形態를 말한다. 산의 表面은 全體的으로 平坦하고 깨끗한 산이 좋은 산이고, 溪谷이 많이 있는 산은 좋지 못하다.

『名山論』에는 「(穴이 있는 곳에서) 산은 (다른 산들에 의해 지나치게 가깝게 와서) 부딪쳐서는 안되며, (穴이 있는 곳에서) 물은 빨리 흘러가서는 안 된다. 穴은 安定되어야 하고 危殆해서는 안 되며, 반듯해야 하고, 기울어서는 안 되며, (가죽 주머니에 공기가) 가득 차듯해야지, 빈 듯해서는 안 되며, 온전해야 하지. 虛缺處가 있어서는 안 된다. 평평한 땅이 넓은 들판을 이루고 있는 곳은 여러 물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지극히 좋은 곳인데, 이곳 역시 반드시 靑龍白虎(명백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貫通(穿)해서 달리고 있어야 하며, 穴 주위를 應하고 對하는 산들이 서 있어야 하며, 穴處 뒤에서 나뉘어(分) 穴處 앞에서 다시 합해지는 三合水가 꺾여져 흘러야 하며, 물줄기(水脈)가 감싸고 있어야 하며, 낮은 언덕일망정 뽕족하게 솟은 산들이 穴場 뒤에서 비취주고 있어야 한다.」²⁷⁾하였다.

27) 김 두규 역,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P. 101~102.

第 7 節 四神砂

1. 四神砂의 名稱

산의 左右, 前後 四面에 있는 산을 四神砂라고 한다. 四神砂 각각의 名稱은 主山을 등지고 왼쪽에 있는 산을 靑龍, 오른쪽에 있는 산을 白虎, 앞에 있는 산을 朱雀, 그리고 뒤에 있는 산을 玄武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左靑龍・右白虎・前朱雀・後玄武라고 말한다.

靑龍과 白虎 중 穴이나 明堂에 가까이 있는 것을 內靑龍, 內白虎라 하고 內靑龍, 內白虎 뒤에 있는 산을 外靑龍, 外白虎라고 한다. 靑龍과 白虎를 같이 말할 때는 龍虎라고 한다.

靑龍 가운데 主山에서 脈이 연결된 靑龍을 ‘本身靑龍’이라고 하고, 主山에서 脈이 連結되지 않고 다른 산에서 連結된 靑龍을 ‘外山靑龍’이라고 한다. 또 白虎 가운데 主山에서 脈이 連結된 白虎를 ‘本身白虎’, 다른 산에서 脈이 連結된 白虎를 ‘外山白虎’라고 한다.

本身과 外山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湊合龍虎’라고 한다. 本身龍虎는 主山에서 脈이 연결되어 있어 外山龍虎보다 明堂에 生氣를 많이 발생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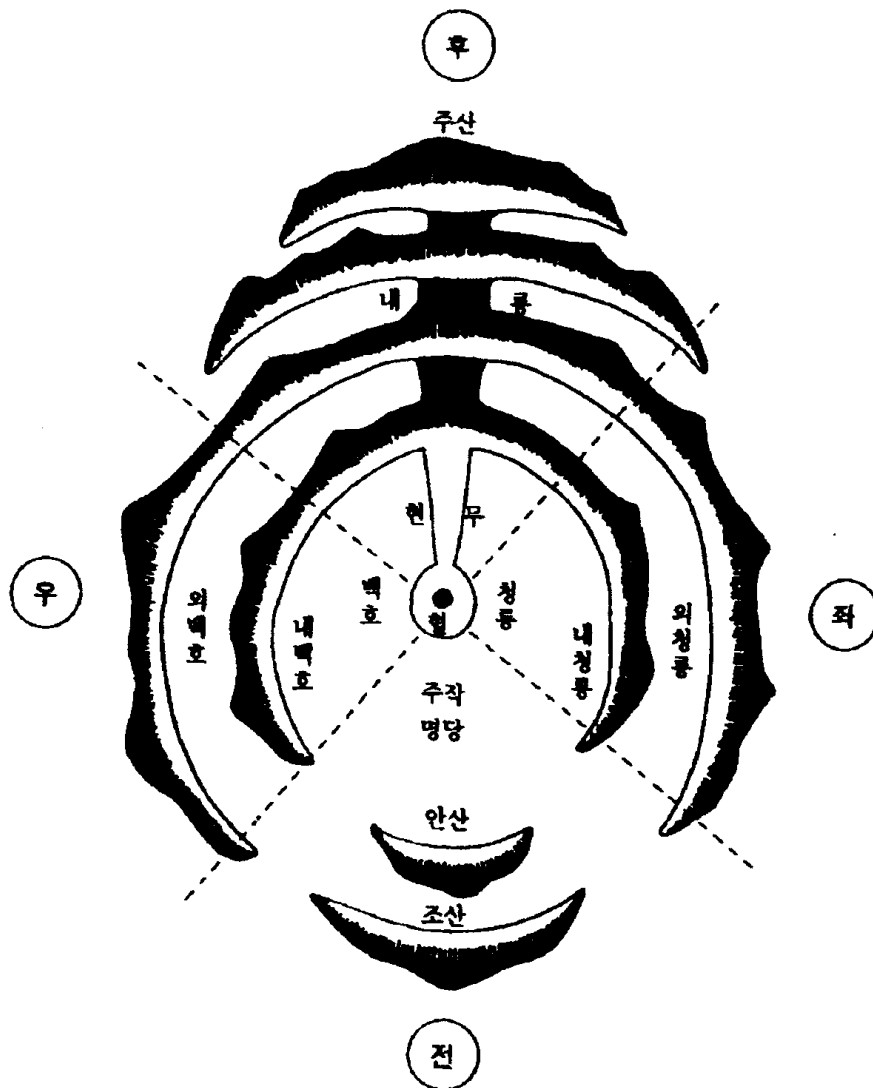
四神砂는 古代人의 信仰인 三神 五帝 思想에 根據를 두고 있다.

三神이란 하느님의 造化・治化・敎化 세 가지 能力의 上位 一體를 말하고, 五帝는 東西南北과 中央의 5개 方位에서 하느님의 業務를 나눠서 遂行하는 分神을 말한다.

五帝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경우에는 일정한 生命體의 形態를 갖추고 각각 지정된 空間에 나타나는데, 靑帝는 龍의 形態로 동쪽에, 白帝는 호랑이의 形態로 서쪽에, 朱帝는 鳳凰의 形態로 남쪽에, 北帝는 거북이의 形態로 북쪽에, 그리고 黃帝는 사람의 形態로 中央에 나타난다. 이렇게 하늘의 五帝가 龍・호랑이・鳳凰・거북이・사람의 形態로 땅 위에 내려온다는 概念은 古代人들이 갖고 있던 神仙 思想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러한 神仙 思想은 高句麗 古墳 壁畵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하늘의 神이 地上으로 내려올 때는 산을 통해 내려와 산에 머문다.

五帝는 산으로 내려와 동쪽 산에는 靑龍, 서쪽 산에는 白虎, 남쪽 산에는 朱雀, 북쪽 산에는 玄武가 자리잡아, 가운데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黃帝를

[그림 10] 사신사²⁸⁾



둘러싸고 保護한다.

四神砂에는 生氣를 만드는 四神砂와 生氣를 만들지 못하는 四神砂가 있는데 生氣가 있는 四神砂는 靑龍과 白虎가 明堂이 있는 쪽을 앞면으로 해서 恭遜한 자세로 마주 보고 있는 반면, 生氣가 없는 四神砂는 靑龍과 白虎가 明堂을 등지고 있는 形態를 이루어 明堂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

28) 박 시익, 「전계서」, P. 138.

2. 四神砂의 3大 機能

四神砂의 機能은 主龍에 있는 穴에 生氣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穴이나 明堂은 四神砂에 의해 만들어진다.

穴이나 明堂에 生氣를 만들기 위해서는 四神砂가 바람막이 機能을 해야 하며, 曲面 反射鏡 機能, 볼록 렌즈 機能 등 세 가지 機能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四神砂가 바람막이 機能을 해야 하는 理由는 生氣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강하게 부는 바람은 오히려 기운을 分散시켜 生氣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강한 바람을 순하고 부드럽게 하려면 四神砂가 사면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약하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처럼 바람을 막고 生氣를 만들고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을 ‘藏風’이라고 한다.

龍虎가 바람막이 機能을 하고 生氣를 만들기 위해서는 明堂을 앞으로 해서 穴을 마주 보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삼태기처럼 둥그렇게 圓形을 이루어 감싸고 있어야 한다. 龍虎가 明堂을 향해 감싸고 있지 않더라도, 明堂 쪽을 향해 있어도 결코 바람막이 機能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한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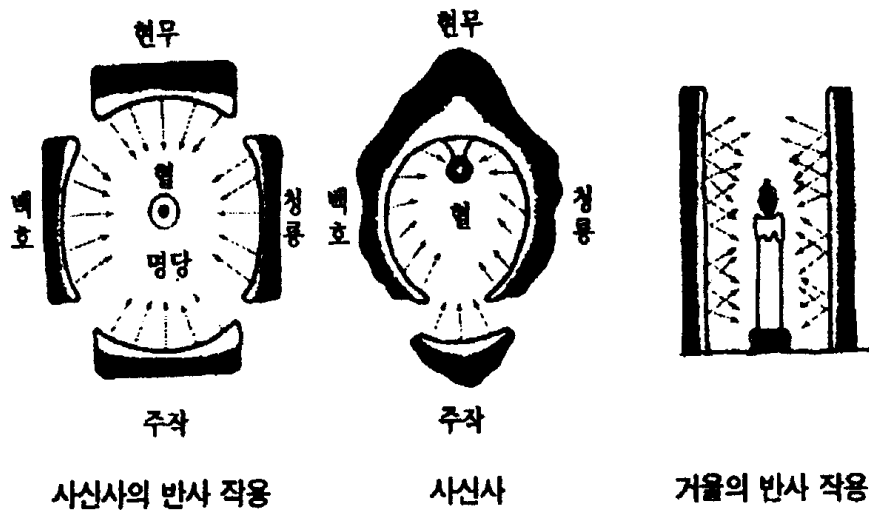
반면 龍虎가 明堂 쪽에 등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둥근 形態를 이루고 反射鏡이란 빛을 反射하는 거울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曲面 反射鏡은 反射面이 曲面을 이루고 있어 빛을 한 점에 集中的으로 모으는 長點이 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대표적인 曲面 反射鏡이다.

太陽과 달이 靑龍과 白虎를 비추면 그 빛의 一部는 反射된다. 이 때 反射된 빛이 한 地點에 모여 하나의 焦點을 이루면 그 곳에서 신비한 기운, 곧 生氣가 發生된다. 바로 이 部分을 穴이라고 하고, 穴 周邊을 明堂이라고 한다.

여러 種類의 빛이 모이는 空間은 그 빛으로 인해 이름 그대로 明堂을 이룬다. 따라서 靑龍과 白虎가 反射鏡의 機能을 完全하게 해야 生氣가 많아져 明堂을 이룰 수 있다.

볼록렌즈는 흩어져 있는 빛을 한 점으로 모아 매우 밝고 뜨겁게 한다. 四神砂의 理想的인 形態는 穴을 中心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穴의 왼쪽에서는 靑龍이, 穴의 오른쪽에서는 白虎가, 穴의 앞에서는 朱雀이, 穴의 뒤에서는 玄武가 각각 볼록 렌즈와 같은 役割을 하면, 이 네 렌즈의 共通 焦點이 되는 곳이 바로 穴이 되어 여기에 엄청난 量의 生氣가 모이는 것이다.

[그림11] 사신사의 반사경 작용²⁹⁾



3. 四神砂의 生氣

穴에 生氣를 만들어 주는 四神砂, 곧 靑龍·白虎·朱雀·玄武 등은 각각의 生氣를 갖고 있다.

가. 靑龍

靑龍에서 發生되는 生氣는 代表的으로 子孫 繁昌의 기운, 權力과 指導者의 기운, 財産의 기운을 갖고 있다. 靑龍이 이 세 機能을 다하는 地勢에서는 사람들이 健康 狀態가 좋고, 後孫(특히 男子)들이 高級 公務員이 되거나 財物을 모은다. 또한 子孫도 繁昌한다. 이와는 反對로 靑龍이 나쁜 地勢에서는 健康을 잃고 子孫이 줄어드는데, 심한 境遇 대가 끊기기도 한다.

靑龍의 山勢가 柔順한 地勢에서는 사람들이 父母에게 孝道하며 國家에 忠誠하는 反面, 靑龍의 山勢가 上部보다 下部에 높이 뭉쳐 있으면 下剋上의 悲劇을 만드는 사람이 나오고, 등을 돌리고 있는 地勢에서는 父母에게 不孝하고 社會를 등지는 後孫들이 나온다.

靑龍의 끝 部分이 집터를 등지고 멀리 뻗어 나간 地勢라면 兄弟 關係를 끊고 멀리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 父母를 떠나 멀리 外國으로 移民을 떠나는 境遇

29) 박 시익, 「전계서」, P. 143.

가 이런 地勢의 影響이다.

靑龍의 部分的인 形態에 따라 子息들의 形편이 달라지는데 시작점에서 끝 部分까지를 三等分 했을 때 맨 위 부분은 兄弟 중에서 長男에게, 가운데 部分은 次男에게, 마지막 部分은 막내아들에게 影響을 미친다. 靑龍이 全般的으로 고르면 兄弟들이 고르게 發展한다.

나. 白虎

白虎에서 發生되는 기운은 財産과 女性의 生命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白虎가 機能을 다하는 地域에서는 富者가 나오고 훌륭한 女性이 많이 輩出되는데, 딸은 물론 며느리에게 그 影響이 미친다.

女性의 體質이나 性格에도 反映되어 白虎의 山勢가 유순한 地勢에서는 父母에게 孝道하며 家門을 위해 貞節을 바치는 女性이 나오는 反面, 등을 돌리고 있는 山勢에서는 딸이나 며느리들이 家出하는 경우가 發生한다.

뒷면을 보이는 背反格인 경우에는 財物을 잃고 어려운 生活을 하게 된다.

白虎의 길어도 靑龍과 마찬가지로 影響을 미치는데 靑龍이 男性에게 影響을 미치는 反面 白虎는 女性이므로, 딸과 며느리에게 그 기운이 傳達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다. 朱雀

朱雀은 穴板 下部, 곧 前脣부터 멀리 있는 祖山 사이에 있는 산을 모두 말한다. 朱雀 중에서 집터 가까이 있는 案山은 財産·地位·評判 같은 기운과 聯關된다. 그래서 朱雀이 좋은 집터에서는 많은 財産을 모으고 社會에서 높은 地位에 오르며, 많은 사람에게 尊敬을 받게 된다. 朱雀이 나쁜 집터에서는 財産을 잃고, 職場에서 누명을 쓰고 물러나는 등 名譽를 더럽히게 된다.

朱雀은 玄武와 對稱 되는 關係에 있다. 玄武가 주인이라면 朱雀은 손님 또는 補助者로서 玄武보다 한 계급 낮은 것이 理想的이다. 案山과 祖山에서 生氣를 보내는 地勢에서는 매우 높은 身分으로 上昇하고 名譽와 財物을 얻게 된다.

거리면에서 보면 案山은 집터에서 가깝고 祖山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案山에서 發生한 기운이 먼저 作用하고 祖山에서 發生한 기운은 어느 정도 時間이 지난 후에 作用한다. 따라서 生氣를 만들어 주는 機能에서는 案山이 멀리 있는 祖山보다 더 重要的 役割을 한다고 볼 수 있다.

朱雀의 一部分인 案山은 집터 또는 뒷자리 앞에 놓인 산을 말하는데 風水에서 案山은 身分의 높고 낮음과 聯關이 있다.

案山은 본래 ‘책상’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古代人들의 生活에서 책상은 王 또는 높은 身分을 가진 사람이 業務를 進行하는 道具였다.

案山の 形態는 住宅의 吉凶에 상당히 큰 影響力을 行事하는데 案山の 形態가 安定되고 힘이 있어서 바가지를 얹어놓은 것 같으면 富者가 輩出되고, 文筆峯 形態를 이루고 있으면 公務員으로 出世하는 人物이 나온다. 反面 案山の 形態가 不安하거나 凶하면 좋지 않은 일이 發生한다.

라. 玄武

玄武는 穴에 地氣를 直接 傳達하고 있어서 四神砂 중에서 가장 큰 影響力을 갖는다. 玄武가 四神砂 가운데 主人 役割을 할 경우 가장 理想的인 地勢가 된다. 따라서 山勢 規模나 기상이 靑龍·白虎·朱雀보다 크고 힘차야 하며, 主龍에서 개장과 천심 등 여러 變化 過程을 이루는 生龍이어야 한다. 玄武의 기운은 朱雀의 기운과 對稱되는데, 朱雀이 社會的인 평판이나 輿論 등 外部的인 기운을 주는 데 반해 玄武는 內部的인 힘을 만들어 준다.

예를 들면, 한 地勢에서 玄武는 生氣를 만들어 주고 朱雀은 그렇지 못할 경우, 能力은 優秀하나 社會的으로 認定받지 못하는 人物이 輩出되고 朱雀은 生氣를 만들어 주나 玄武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個人的인 能力이 不足해도 社會的으로 인기를 얻는 사람이 輩出된다.

4. 四神砂의 影響

穴과 明堂에서 靑龍이나 白虎까지 거리가 일정하지 않지만 龍虎 길이는 四神砂 機能에 直接 影響을 준다. 길게 감싸고 있는 靑龍은 짧은 靑龍보다 바람막이 機能과 反射鏡 機能, 블록 렌즈 機能 등을 완벽하게 遂行한다.

主山에서 出發한 靑龍이 집터나 뒷자리의 왼쪽 축을 지나 앞쪽에 이르기까지 길고 둥글게 감싸는 경우 매우 강한 生氣가 發生되어 王氣를 갖게 된다.

穴에서 靑龍이나 白虎까지 거리는 3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 大部分이지만 地勢에 따라 짧게는 10m, 길게는 100m 이상 떨어진 것도 있다. 穴에서 靑龍이나 白虎까지 거리는 發福을 일으키는 時間과 關聯된다.³⁰⁾

第 8 節 方位와 明堂

1. 佩鐵

가. 由來

風水地理에 使用하고 있는 佩鐵은 記錄에 따르면 지금부터 약 4000년 前이라고 한다. 中國의 黃帝氏가 戰爭터에서 싸움하는 過程에서 使用한 것이 그 始作이다. 黃帝는 동쪽에 사는 치우 천왕과 탁록 들판에서 戰爭을 벌였다. 치우 천왕이 안개를 뿌려 前後左右를 區分할 수 없게 만드는 바람에 黃帝의 軍隊는 갈팡질팡하다가 戰爭에서 지고 말았다. 이에 黃帝가 하늘에 祭祀를 지냈는데 그 결과 十干과 十二支를 만들고, 指南車를 使用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指南車는 매우 커서 마차에 실어야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였지만, 그 뒤로 점점 더 간편하게 만들어져서 오늘날과 같이 사람이 갖고 다니기 좋게 만들어졌다.

佩鐵은 일명 羅經이라고도 부르는데 ‘包羅萬象 經綸天地’에서 ‘나(羅)’자와 ‘경(經)’자를 따서 羅經이라 한다.

다른 설에 의하면 羅經은 周나라 成王 때부터 통용된 『周易』의 後天八卦를 應用하여 使用해오는 過程에서 發展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오묘한 自然의 神秘를 하나의 羅經에 표시하기 위해 36層까지 만들어졌으나, 우리가 이를 使用하기에는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要約해서 쓰게 되었다고 한다.³¹⁾

나.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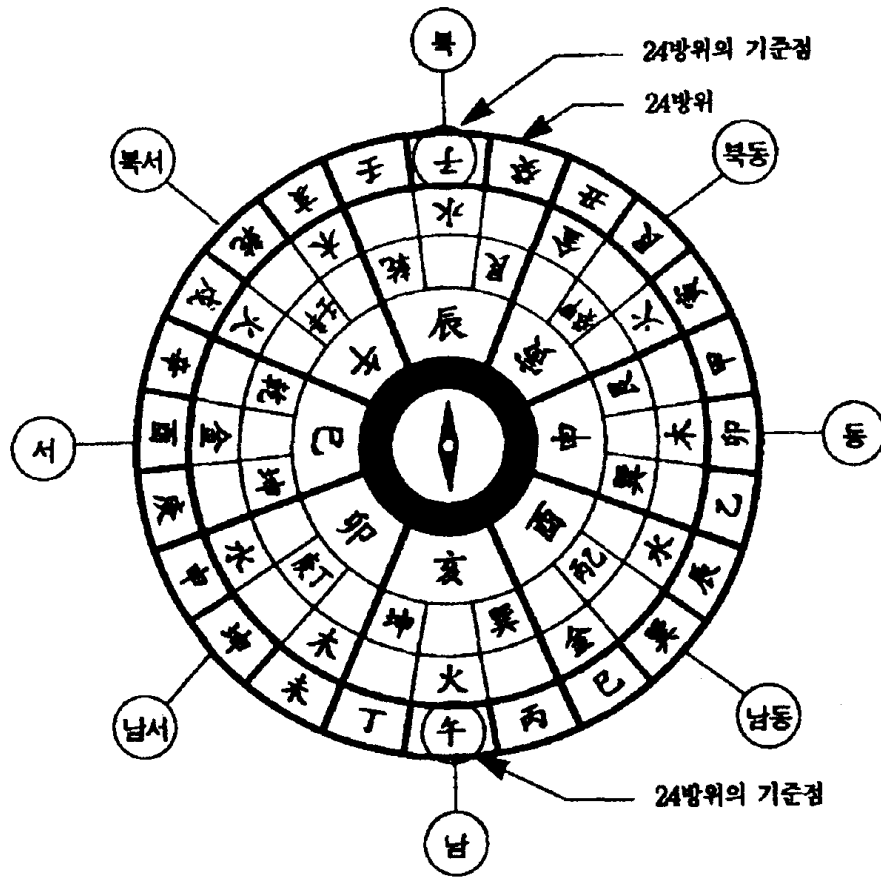
佩鐵은 집터나 墓地의 坐向을 測定하기 위해 使用되었다. 坐向이란 사람이나 집터가 南北을 基準으로 할 때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測定하는 方法이다.

佩鐵은 360度 圓柱를 24方位로 區分해서 使用하는데 한 方位를 15度씩 區分해서 24方位로 나타내는 것이다.

30) 박 시익, 「전계서」, P. 149.

31) 임 학섭, 「전계서」, P. 63.

[그림 12] 패철의 8방위와 24방위



24方位 글자는 天干과 地支로 이루어지는데 天干은 하늘의 기운이고 地支는 땅에 흐르는 기운을 意味한다.

天干은 하늘에 分布되어 있는 기운을 열 개로 區分해서 이것을 각각 甲·乙·丙·丁·戊·己·庚·申·壬·癸로 나눈 것이다.

하늘의 기운은 또 다섯 種類로 區分되는데 1년은 水·火·木·金·土 다섯 기운에 따라 이루어지고 각 기운은 또 강한 기운과 약한 기운으로 區分된다. 강한 기운은 양 기운에 속하며 약한 기운은 陰 기운에 該當되어 하늘의 기운은 五行×2 = 10으로 이것이 바로 天干을 이룬다.

佩鐵에서는 열 개 天干 가운데 흠 기운에 該當되는 戊와 己를 빼고, 대신 乾·坤·艮·巽을 넣어 열 개 天干을 열 두개의 天氣로 區分했다. 그러므로 佩鐵에 表示된 天氣 열두 개는 甲·乙·丙·丁·乾·坤·艮·巽·庚·辛·

壬·癸다.

그리고 佩鐵에 十二支가 적혀 있는데, 바로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다. 십이지는 땅에 흐르는 다섯 가지 기운을 말하며, 이것 또한 水·火·木·金·土로 區分한다.

여기서 강한 기운과 약한 기운을 陽과 陰으로 區分한다. 물의 기운은 子와 亥, 나무의 기운은 寅과 卯며, 불의 기운은 巳와 午, 쇠의 기운은 申과 酉, 흙의 기운은 辰·戌·丑·未로 도합 12개 方位를 이룬다.

佩鐵에는 위와 같은 12地支와 12天干이 하나 걸러 하나씩 배치되어 24方位를 이룬다. 이 24方位는 1年을 24節侯로 區分하는 것과 같은 意味를 갖는데 24節侯는 1年 동안 공기가 變化하는 24段階를 나타내며, 특히 農事와 긴밀한 關係를 맺고 있다. 결국 佩鐵의 24方位는 땅이 갖고 있는 24가지 기운과 그 意味를 같이 한다.

다. 方位와 數

佩鐵의 24方位에는 각각 五行의 기운이 포함되어 있으며, 佩鐵 三線에 그 五行이 나타나 있다. 곧 佩鐵의 子 方位 글자 위에는 水가 표시되어 있는데, 子 方位가 물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24方位 가운데 물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은 子·申·辰이다. 불의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은 寅·午·戌이며, 나무의 기운이 흐르는 方位는 亥·卯·未고, 쇠의 기운을 가진 方位는 巳·酉·丑이다.

이와 같이 세 方位의 기운이 한 가지 五行 기운으로 나타나는 것을 三合이라고도 한다. 나머지 12개 方位 즉 甲·乙·巽·丙·丁·坤·庚·辛·乾·壬·癸·艮은 흙의 기운을 지닌 方位로 區分한다.

그 기운은 『周易』의 河圖를 基礎로 해서 숫자로도 區分할 수 있다. 五行은 각각 수를 지니고 있다. 물은 1과 6, 불은 2와 7, 나무는 3과 8, 쇠는 4와 9, 흙은 5와 10을 나타낸다.

이것은 周易의 生數와 成數 區分에 根據하는데 生數란 地球를 構成하고 있는 基本數 다섯 개를 말하며, 成數는 다섯 기운 각각에 땅의 기운 5를 더한 숫자를 말한다. 곧 물의 기운에 대한 生數는 1이고 成數는 6, 나무의 生數는 3이고 成數는 8, 金의 生數는 4이고 成數는 9, 土의 生數는 5이고 成數는 10이다. 生數는 物質이 가지고 있는 固有한 性質을 나타내는 數이며, 成數는 固有한 性

質이 흙의 기운을 象徵하는 5와 結合해서 發生된 數를 말한다.

五行의 數는 事物의 原因性和 發生 時間, 그리고 그 規模 등의 解釋에 適用된다. 龍 自體가 生龍이고 明堂도 갖추어진 경우에는 더욱 더 좋은 일이 일어나며, 같은 方位라도 墓 자체가 좋지 못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解釋해야 한다.

2. 佩鐵의 構成과 解釋

佩鐵은 둥근 원반 모양으로 中心柱에는 指南鐵이 자리잡고 있고 中心에서 바깥쪽으로 同心圓이 여러 층 그려져 있다. 여섯 개의 원으로 되어 있어 ‘육중도’라고 부르는 佩鐵은 손쉽게 구할 수 있고 携帶하기도 편하다. 이 밖에도 더욱 細密하게 區分되어 있는 23중도를 가끔 볼 수 있다.

佩鐵의 坐向을 보는 基準은 네 번째 원에 속하는 24方位가 가장 基本이 된다. 24方位는 집터나 墓의 坐向을 보는 基準이다. 24方位는 북쪽에 子를 놓고 남쪽에 午를 놓아 이 둘을 連結하는 선이 基準이 된다.

육중도 佩鐵을 基準으로 해서 一線에서 四線까지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一線 : 黃泉水

佩鐵 中心에서 첫 번째 線으로 그어진 部分을 一線이라 하고, 黃泉水을 測定하는 基準으로 使用한다. 一線에 나타난 글자들을 살펴보면, 제일 북쪽에서 시작해서 시계 方向으로 辰·寅·申·酉·亥·卯·巳·午 여덟 方位로 區分되며 이는 穴을 향하여 들어오는 得水를 보는 것이다.

一線 위에 있는 글자 하나는 각각 24方位 가운데 세 方位를 나타내는 데 곧 墓의 坐가 壬坐·子坐·癸坐일 경우에는 辰 方位에 地下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方位에서는 辰 方位 部分을 살펴서 물이 있는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

壬·子·癸 方位에서 辰이 黃泉水가 되는 理由는 正五行에서 坎卦이며 五行으로는 水가 되고 辰은 土가 된다. 이때 土剋水의 극을 이루는 關係를 六親에서 보면 官殺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墓의 坐向이 丑坐·艮坐·寅坐인 경우에는 寅 方位가 黃泉水가 되어 그 方向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細心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나. 二線 : 八曜風

佩鐵의 二線, 곧 두 번째 선은 八曜風을 測定하는 데 쓰인다. 八曜風이란 산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靑龍이나 白虎 중 一部에서 脈이 끊어져 골짜기 形態를 이루고 있으면 여기로 바람이 불어와서 뿔자리의 기운을 分散시키는데 골짜기에서 부는 바람을 말한다. 모두 여덟 方位로 區分한다.

佩鐵의 二線에 나타나는 글자를 살펴보면, 辰 아래 乾·艮이 있고, 寅 아래 甲·癸가 있고, 申 아래 艮·巽이 있는 등 12方位에 모두 각각의 글자가 배치되어 있다.

坐向이 壬坐인 경우에는 乾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癸坐인 경우에는 艮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壬·子·癸 세 方位에는 乾이나 艮이 八曜風이 부는 方向임을 나타낸다.

丑·艮·寅은 申癸라고 나타나 있는데, 申과 癸의 方位가 八曜風이 부는 方位라는 뜻이다. 坐向이 甲坐·卯坐·乙坐인 경우에는 艮과 巽 方位가 八曜風이 불기 쉬운 方位라는 뜻이므로 이러한 方位에서 바람이 들어오는지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墓에 八曜風이 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墓 주변 산세가 끊어짐 없이 連結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 三線 : 五行

佩鐵의 三線에는 五行이 나타나 있는데 五行은 水·火·木·金·土 다섯 기운을 말한다. 佩鐵에서 五行을 나타내는 것은 24方位의 기운을 각각 五行으로 區分하기 위해서다. 子坐, 辰坐, 申坐는 水로, 丑坐, 巳坐, 酉坐는 金으로, 寅坐, 午坐, 戌坐는 火로, 卯坐, 未坐, 亥坐는 木으로 區分되어 있다.

24方位 중에서 地支에 該當하는 열두 方位에는 각각 水·火·木·金 네 기운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 있고 天干의 方位에는 五行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土 性質로 보아도 된다는 뜻이다. 土의 性質은 共通的으로 採用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 四線 : 24方位의 陰陽

24方位 글자는 天干과 地支로서 構成되어 있는데 12天干 중에서 戊·己를 빼고 乾·坤·艮·巽 네 方位를 12方位에 配置했고, 거기에 12地支 方位를 組

합해서 이루어졌다. 24方位는 陽氣와 陰氣로 區分되는데, 붉은 색 글자는 陽을, 검은색 글자는 陰을 말한다.

陽의 方位, 곧 붉은 글자는 壬·子·癸·寅·甲·乙·辰·午·坤·申·戌·乾 12方位며 陰의 方位는 丑·艮·卯·巽·巳·丙·丁·未·庚·酉·辛·亥 12方位다. 24方位의 陽과 陰은 男子와 女子로 그 影響이 나타난다.

3. 坐向法

집을 비롯한 建物 方位의 吉凶 分析은 8方位로 解釋한다. 8方位는 『周易』의 八卦와 그 意味가 같은데, 360度 圓柱를 8等分해서 東西南北 4方位와 그 사이 4方位로 이루어져 있다. 45度인 8方位를 다시 3等分하면 24方位가 된다. 따라서 24方位의 한 方位는 15度가 된다.

方位를 測定할 때는 佩鐵을 사용하는데, 사람이 앉아서 佩鐵을 가슴 앞에 놓고 볼 때 가슴과 마주 보는 위치에 있는 글자로 표시한 것으로 가슴 가까이 있는 글자를 坐로 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글자를 向으로 보는 것이다.

佩鐵을 使用하기 위해서는 佩鐵의 24글자 가운데 子와 午 위의 中心 軸을 찾아 子午線이 指南鐵의 南北線과 一致해야 하는데 指南鐵 北쪽에는 子가 南쪽에는 午가 오게 한다.

建物 方位가 東向일 경우에는 자기 가슴에 가장 가까운 글자는 酉 字가 되며, 가장 먼 글자는 卯 字가 된다. 이 경우 坐向은 酉坐卯向이 된다. 酉 쪽에 앉아서 卯 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다.

建物 方位가 正南向인 경우에는 子坐午向, 正北向이면 午坐子向이 되고 正西向이면 卯坐酉向이 된다.

가. 方位와 陰陽

陰 方位와 陽 方位의 기운은 陰陽의 理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운과 만나는 것을 좋게 보고, 같은 기운과 만나는 것을 좋지 않게 본다.

陰 方位는 佩鐵上 南東(辰巽巳)·正南(丙午丁)·南西(未坤申)·正西(庚酉辛)로 女性의 기운을 意味하고, 陽 方位는 北西(戌乾亥)·正北(壬子癸)·北東(丑艮寅)·正東(甲卯乙)으로 男性의 기운을 意味한다.

建物과 大門이 各各 男性과 女性 기운을 갖고 서로 어울려 生氣를 이룰 때 좋은 空間이 되는 것이다.

나. 方位와 五行

五行의 數는 數量·時間·原因 등을 나타내는데 이를 方位와 관련지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數量의 例를 들면, 東쪽 大門에 의해 富者가 되는 경우 東쪽은 五行으로 나무에 該當하므로 3과 8을 갖는다. 따라서 財産을 3000석이나 8000석 등으로 나타낼 수 있고 東쪽 大門에 의해 財閥이 되는 경우 3年 8個月 되는 時點에 財閥이 된다는 意味이다.

마지막으로 五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自體가 事件을 일으키는 原因으로 作用한다. 東쪽 大門으로 財閥이 되는 경우, 그 집주인은 木材나 合板·木造 家具·農事 같은 일에 從事하면 財閥이 된다.

方位에 의한 東氣와 西氣는 五行으로도 區分된다. 水·火·木 方位는 東氣고, 金·土 方位는 西氣다. 五行을 8方位로 區分하면 正北이 水, 北東·南西는 土, 正東·南東은 木, 正南은 火, 正西·北西는 金이다.

집과 大門의 方位는 서로 相生 關係를 이루는 것이 좋다. 집이 正北에 있으면 五行上 물 기운을 받기 때문에, 大門은 五行上 나무 기운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같은 집이라도 大門이 南西쪽에 있으면 흙에 該當하므로 相剋 關係를 이뤄 좋지 않다.

4. 配合 方位와 不配合 方位

좋은 기운이 흐르는 方位를 配合 方位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方位를 不配合 方位라고 한다. 산의 기운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龍을 正確하게 判別해서 그 方位에 一致시켜야 하는데 산에 따라 龍의 方位가 一定하지 않으므로 잘 살펴야 한다.

가. 配合 2字 方位

坐向 가운데 좋은 기운이 흐르는 方位를 配合 二字 方位라고 한다. 配合 2字란 두 글자가 서로 配合를 이루어 좋은 기운을 만드는 方位를 말한다. 두 字 가운데 하나는 天干이며 다른 하나는 地支로 天干에 의한 方位와 地支에 의한 方位가 서로 配合되는 方位일 경우에 좋은 기운이 發生한 것으로 본다.

配合 2字 방위는 生氣가 흐르는 方位로 다른 方位와 區分되는데 配合 2字 方位는 세 種類로 區分되는데 貴節, 富節, 孫節이 그것이다.

貴節은 公務員으로 出世하는 方位이며, 富節은 財閥로 出世하는 方位, 孫節은 健康과 子孫이 繁昌하는 方位로 龍의 흐름에 따라 [표 2] 와 같이 分類된다.

[표 2] 배합 2자 방위

	종 류	용의 흐름	4방위	영향
1	貴節	우선 좌선	壬子 甲卯 丙午 庚酉 子壬 卯甲 午丙 酉庚	공무원
2	富節	우선 좌선	癸丑 乙辰 丁未 辛戌 丑癸 辰乙 未丁 戌辛	재벌
3	孫節	우선 좌선	艮寅 巽巳 坤申 乾亥 寅艮 巳巽 申坤 亥乾	자손 번창

나. 不配合 2字 방위

不配合은 天干과 地支 두 기운이 만나서 生氣를 이루지 못하는 方位로 이 坐向에서는 屍身이 좋은 기운을 받지 못한다.

不配合 方位는 人敗(사람이 죽는 方位)·財敗(재물을 잃는 方位)·病敗(질병을 앓는 方位)로 區分되는데 龍의 흐름에 따라 [표 3] 같이 分類된다.

[표 3] 불배합 2자 방위

	종 류	용의 흐름	4방위	영향
1	인패절	우선 좌선	亥壬 寅甲 巳丙 申庚 壬亥 甲寅 丙巳 庚申	인명 피해
2	재패절	우선 좌선	子癸 卯乙 午丁 酉辛 癸子 乙卯 丁午 辛酉	재산 피해
3	병패절	우선 좌선	丑艮 辰巽 未坤 戌乾 艮丑 巽辰 坤未 乾戌	질병

다. 配合 3字 方位

세 자리 글자로 方位가 이루어진 경우를 3字 方位라고 하며, 配合 3字 方位와 不配合 3字 方位 두 가지가 있다.

配合 3字 方位는 配合 2字 方位에서 變化된 것이며, 不配合 3字 方位는 不配合 2字 方位에서 變化된 것이다.

配合 3字 方位는 配合 2字 方位 왼쪽이나 오른쪽에 바로 옆에 있는 方位가 添加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例를 들어서 壬子는 配合 方位였으나, 바로 옆에 있는 癸까지 포함해서 壬子癸 方位를 이룬다.

配合 3字 方位는 貴節 3字 · 富節 3字 · 孫節 3字로 區分된다.

貴節 3字는 官訟, 곧 裁判을 받는 일이 생기는 方位이며, 富節 3字는 盜賊을 맞게 되는 방위, 孫節 3字 方位는 近親 相姦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方位로 龍의 흐름에 따라 [표 4] 와 같이 分類된다.

[표 4] 배합 3자 방위

	종 류	용의 흐름	4방위	영향
1	귀절 3자	우선 좌선	壬子癸 甲卯乙 丙午丁 庚酉辛 子壬亥 卯甲寅 午丙巳 酉庚申	관송 · 재판
2	부절 3자	우선 좌선	癸丑艮 乙辰巽 丁未坤 辛戌乾 丑癸子 辰乙卯 未丁午 戌辛酉	도적 · 재산 손실
3	손절 3자	우선 좌선	艮寅甲 巽巳丙 坤辛庚 乾亥壬 寅艮丑 巳巽辰 辛坤未 亥乾戊	근친 상간

라. 不配合 3字 方位

不配合 3字 方位는 不配合 2字 方位에서 發展된 것으로 不配合 2字 方位에 한쪽 方位가 追加되어 3字를 이룬 것이다. 人敗三字 · 財敗三字 · 病敗三字로 區分된다.

人敗 3字는 불행한 죽음을 당하는 방위이며, 財敗 3字는 파산해서 재물을 모두 탕진하는 방위, 病敗 3字는 不具者의 기운이 있는 方位로 龍의 흐름에 따라 [표 5] 와 같이 分類된다.

[표 5] 불배합 3자 방위

	종 류	용 의 호름	4방 위	영향
1	인 패 3자	우선 좌선	亥壬子 寅甲卯 巳丙午 申庚酉 壬亥乾 甲寅艮 丙巳巽 庚申坤	오사 · 비명 횡사
2	재 패 3자	우선 좌선	子癸丑 卯乙辰 午丁未 酉辛戌 癸子壬 乙卯甲 丁午丙 辛酉庚	파산 · 부도
3	병 패 3자	우선 좌선	丑艮寅 辰巽巳 未坤申 戌乾亥 艮丑癸 巽辰乙 坤未丁 乾戌辛	불구자

第 4 章 風水地理와 住居 立地

第 1 節 意義

산 사람이 사는 住宅이나 마을, 中小 大都市 등을 다루는 風水를 陽宅 또는 陽基 風水라고 하는 반면 죽은 사람이 거주하게 될 집(무덤, 태실, 부도)을 陰宅이라 부른다.

風水地理의 本質이 天地의 生氣를 땅에 의해 받아서 人生의 幸福을 營爲코자 하는 것임으로 이런 점에서 陰宅이나 住居 立地를 정하는 陽宅도 同一하다.

여기서 陽宅이란 生人의 住宅만을 말함에 비하여 陽基라고 하면 住宅뿐만 아니라 사람의 使用에 必要한 各種 建物도 모두 包含한 큰 範圍의 뜻을 말한다. 陽基는 크게는 一國家를 말할 수도 있으며 한 都市 또는 邑 그리고 一家의 住宅을 말하기도 한다.

陽基에 있어서는 그 땅의 形勢가 陰陽이 調和를 이루고 五行이 相生하여 生氣가 充滿한 곳이 吉地인 것처럼 藏風, 得水, 四砂方位 등 陰宅의 그것과 다를바 없다.

단지 陽基는 陰宅에 비해서 그 性質上 산골짜기 사이의 小規模의 땅으로는 不可能하며, 상당히 넓은 土地와 生活에 必要한 資料의 供給이 容易한 땅이 아니면 안 된다.

陽基는 하나의 家屋을 짓기 위해서 찾기보다는 百家千家의 幸福을 위한 곳이 上位의 大地라고 한다.

陰宅은 땅 속에 홀려 모이는 生氣를 直接 받는데 반해서, 陽基는 生氣 있는 땅 위에 住宅을 지어서 間接적으로 生氣를 享有하는 것이다.

陽基는 陰宅보다 地形物의 形勢에 重大한 意義를 認定한다. 風水는 生氣가 모이는 局穴과 그 周邊 形勢에 重點을 두고, 그 形勢의 善惡順逆이 큰 影響을 미친다.

다만, 陰宅은 직접 땅 속의 生氣로부터의 影響을, 陽基는 形勢의 影響을 重視한다. 즉, 陽基는 땅 속의 生氣와는 間接的이며, 地上의 形勢 類型과는 直接으로 그 氣를 享有한다. 마치 陰宅이 地上의 形勢로부터 享有하는 氣의 影響은 間接的이고, 땅 속의 生氣와는 直接的인 것과 같다. 따라서 陰宅이 땅 속의 生

氣에 重點을 두는 反面, 陽氣는 이 地上의 形勢에 한층 더 比重을 둔다. 住宅 風水나 마을 風水는 거기에 산 사람이 直接 影響을 받지만, 陰宅 風水는 그 後孫이 影響을 받기 때문에 住宅이나 마을 風水의 比重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집터나 마을 터를 정하는 것과 무덤 자리를 정하는 것은 同一한 原則에 立脚한다. 그러나 묘 터를 정하는 것과 집터를 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묘 터에서는 龍(산줄기, 脈)과 穴(무덤이 쓰여질 자리)을 매우 重視한다.

그러나 집터나 마을에서는 龍과 穴 이외에 周邊을 에워싸고 있는 산들과 마을을 貫通하는 물이나 마을 앞에 흐르는 물 또한 重要하다. 특히 산들이 四方에서 포근하게 에워싸서 心理적으로나 生理적으로 安定感和 均衡感を 줄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風水에서는 自然과 人間을 物質과 生物과의 關係로 보는 것이 아니고 自然 즉 山野 및 水가 모두 生動하며 사람에게 影響을 주는 것은 마치 이들 自然은 巨大한 힘을 갖춘 사람 以上の 生物로서 이 自然에 따라 사람의 運命도 左右하게 된다고 믿어 建物보다는 自然을 重要視하고 사람보다도 自然을 무섭게 여겼다.

이와 같이 自然속의 새로운 運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風水地理에서는 더욱 重要視하게 된다.

第 2 節 陽基 風水와 住居 立地

陰宅에 있어서 그 周圍의 形勢를 重要視하듯이 陽基에서도 地上의 形勢를 重視함은 그 周圍의 氣가 直接的으로 陽基에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例로 高麗의 國都 開城은 칼날을 세워 놓은 形相을 한 서울의 三角山때문에 滅亡했다고 하며 平壤은 行舟型이어서 市內에서는 우물을 파는 것을 禁했다고 하며 서울은 舞鶴의 形이어서 宮城을 지을 때 鶴의 날개를 먼저 늘려서 鶴이 날아가지 못하게 한 후 宮闕을 세웠다는 이야기와 같이 陽基에서도 그 類型에 많은 重點을 두고 있다.

陽基도 陰宅과 같이 風水의 原則인 藏風得水를 기준으로 하며 그 根本에 이르는 것은 역시 類型보다도 오히려 四神砂에 重點을 둔다. 陽基의 藏風得水, 四神砂에 대해서 《지리신법》에는 陰宅에 適合한 形局으로서 규모가 크고, 山水

가 모여서 中心을 이루는 땅으로, 산이 멀리서 다가오고 물이 깊이 에워싸는 곳이 陽基의 代表的인 곳이라고 했다.

1. 集團 陽基 風水

《八域地》의 〈陽宅論〉에서는 陽基 風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 水口 : 水口가 거칠게 이지러지고 넓게 비었으면, 좋은 논이 많고 아무리 큰 집이 있어도 後世에 전할 수 없어 자연히 없어지고 마니, 陽基를 잘 맞추어서 水口에 關鎖이 있고 안으로 물을 넣을 수 있는 곳을 注目해야 한다. 산 속에서는 關鎖을 얻기는 쉬워도 들에서는 어려울 때 逆水로 해서 使用한다. 높은 산이나 언덕에 관계없이 유력한 小留가 있어서 그곳을 遮斷하면吉하고, 이 關鎖이 重疊되면 좋고, 3重 5重이면 더욱 좋다.

2) 野勢 : 사람은 陽氣를 얻어서 살고 天은 陽光이니 하늘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살지 말 것이다. 그러므로 들이 넓어야 터가 좋고, 日月과 風雨를 잘 받아야 훌륭한 人物이 나오고 疾病이 적다. 특히 注意할 것은 四方으로 산이 높아 해뜨는 것을 보기 어렵고 일찍 해가 지면 밤에 北斗七星을 보기 어려운 곳은 鬼神이 들끓고 사람들의 病이 많은 곳이다.

3) 山形 : 무릇 山形은 옛 風水家들이 말하는 樓閣이 나는 듯한 것으로서 主山이 秀麗·端整·淸明한 곳이 제일 좋다. 뒤로는 들이 펼쳐지다가 갑자기 높고 큰 것이 되어, 가지와 잎을 묶어 洞府를 만들어 宮府로 들어가는 것처럼 무거운 지붕의 높은 집처럼 생긴 곳이 다음이다. 四方으로 산이 멀고 平平하고 山脈이 平地로 떨어져 머문 곳이 野基이다. 그 다음에는 특히 來龍이 끊어지고 生氣가 없는 곳은 吉하지 못하다.

4) 土色 : 땅 색이 吉하지 않으면 人才가 나오지 않는다. 산중이나 물가를 가리지 않고 땅 색이 좋고 돌이 많고 샘이 깨끗하면 살 만한 곳이다. 만일 흙이 누렇게 질면 死土로서 물도 깨끗하지 않으니 이러한 곳에서는 살지 않는 것이 좋다.

5) 水理 : 산이 반드시 근원과 配水가 있으며 生化하고, 물은 오고 가는 것이니 뒤로 鐘毓이 있으면 吉하다. 陽基는 墓와 달라서 물이 財産을 管理하는 것이니 물가에 부잣집 明村이 많고, 산중이라도 물이 있으면 살 만한 곳이다.

6) 朝山 : 朝山에는 石峰이 있고 떨어지는 形態, 옛보는 모습의 기암괴석이 산 위아래로 나타나고, 長谷沖砂가 보이는 곳은 살 곳이 아니다. 멀리 보면 맑

고 가까이 보면 밝은 산으로, 한 번 보면 즐겁고 싫지 않으면吉하다.

7) 潮水 : 潮水는 물 밖의 물이니 작은 시내나 강은 逆潮하면 좋고 큰 江에 이르러서는 逆受하지 않아야 한다. 무릇 큰 江을 거슬러오는 곳에 집이나 무덤을 쓰면 처음에는 興하는 것 같아도 오래 되면 亡하는 곳이니 警戒해야 하며, 그것이 龍과 만나 陰陽이 合하도록 해야 하고, 구불구불하게 와야 하고 一直線으로 쏘는 듯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장차 집을 지어 子孫 萬代로 전하려 하면 地理에 能通해야 한다.³²⁾

한편, 이중환이 지은 擇里志의 卜居總論偏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살터를 잡는데는 첫째, 地理(땅·山·江·바다 등에 대한 形而上學的인 理致)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 生利(그 땅에서 生産되는 利益)가 좋아야 하며, 다음으로 人心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고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그런데 地理는 비록 좋아도 生利가 모자라면 오래 살수가 없고, 生利는 좋더라도 地理가 나쁘면 이 또한 오래 살 곳이 못 된다. 地理와 生利가 함께 좋으나 人心이 나쁘면 반드시 後悔할 일이 있게 되고, 가까운 곳에 소풍할 만한 山水가 없으면 情緒를 和暢하게 하지 못한다.

1). 地理

먼저 水口를 보고, 그 다음으로 들의 形勢를 본다. 그리고 다시 산의 모양을 보고, 다음에는 흙의 빛깔을, 다음은 朝山(앞에 멀리 있는 높은 산)과 朝水를 본다.

무릇 水口가 엉성하고 널따랗기만 한 곳에는 비록 좋은 밭 만 이랑과 넓은 집 천 칸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저절로 흩어져 없어진다. 그러므로 집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水口가 꼭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어 펼쳐진 곳을 눈여겨본 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산중에서는 水口가 닫힌 곳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들판에서는 水口가 굳게 닫힌 곳을 찾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거슬러 흘러드는 물이 있어야 한다. 높은 산이나 그늘진 언덕이나, 逆으로 흘러드는 물이 힘있게 판국을 가로

32) 임 학섭, 「전계서」, P. 190~192.

막았으면 좋은 곳이다. 막은 것이 한 겹이어도 참으로 좋지만 세 겹, 다섯 겹이면 더욱 좋다. 이런 곳이라야 완전하게 오래 세대를 이어나갈 터가 된다.

무릇 사람은 陽明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陽明한 빛인 하늘이 조금만 보이는 곳은 결코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까닭에 들이 넓을수록 커는 더욱 아름답다. 해와 달과 별빛이 항상 환하게 비치고, 바람과 비와 차고 더운 氣候가 고르게 알맞은 곳이면 人才가 많이 나고 病 또한 적다.

四方 산이 높아서 해가 늦게 돋았다가 일찍 지고, 밤에는 北斗星도 보이지 않는 곳은 가장 꺼려야 한다. 이런 곳은 陽明한 빛이 적고 陰冷한 기운이 쉽게 侵入하여 혹 잡귀가 모여들기도 한다. 또 朝夕으로 산 안개와 장기가 사람을 病들게 하기 쉽다. 이 때문에 산골에 사는 것이 들에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큰 들판에 낮은 산이 둘러진 것은 산이라 하지 않고 모두 들이라 한다. 그것은 하늘빛이 막히지 않고, 水氣도 멀리 통하기 때문이다.

높은 산중이라도 들이 펼쳐진 곳이라야 바야흐로 좋은 터가 된다. 무릇 祖宗 되는 산 모양은 다락집 치솟은 形勢라야 좋다는 堪輿家의 말이 있다. 主山이 秀麗하고 端整하며, 淸明하고 아담한 것이 으뜸이다. 뒤에서 내려온 山脈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들을 건너 갑자기 높고 큰 봉우리로 솟아나고, 地脈이 감싸들면서 골판(洞府)을 만들어 宮內에 들어온 듯하며, 主山의 形勢가 穩重하고 豐大하여 겹집(重屋)이나 높은 宮殿 같은 곳이 다음이다.

그리고 四方에 산이 멀리 있어 平坦하고 넓으며, 山脈이 平地에 뻗어 내려다가 물가에서 그쳐 들판 터를 만든 곳이 또 그 다음이다.

가장 꺼리는 것은 산의 來脈이 약하고 둔하며 생생한 氣色이 없거나, 혹 산 모양이 부서지고 비뚤어져 吉한 기운이 적은 곳이다. 땅에 생생한 빛과 吉한 기운이 없으면 人才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산 모양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산은 반드시 멀리 있으면 맑게 빼어나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맑고 깨끗하여 사람이 한 번만 보아도 기쁨을 느끼며, 울퉁불퉁한 뱀살스런 모양이 없어야 吉한 것이다.

潮水는 물 너머의 물을 말하는 것이다. 작은 냇물이나 작은 시냇물은 逆으로 흘러드는 것이 길하다. 그러나 큰 냇물이나 큰 강이 逆으로 흘러드는 곳은 결코 좋지 못하다. 흘러드는 물은 반드시 山脈의 坐向과 陰陽 理致에 合致되어야 한다.

또 꾸불꾸불하게, 길고 멀게 흘러드는 것이 좋고, 一直線으로 활을 쏘는 듯한

곳은 좋지 못하다. 이런 까닭에 장차 집을 지어서 子孫 대대로 전하려고 하면 地理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여섯 가지(水口 · 들 形勢 · 산 모양 · 흙 빛깔 · 물길 · 朝山 · 潮水)가 긴요한 內容이다.

2). 生利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바람과 이슬을 음식 대신으로 삼지 못하고, 깃(羽)과 털(毛)로써 몸을 가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연히 입고 먹는 일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다. 위로는 祖上和 父母를 奉養하고, 아래로는 妻子와 奴婢를 길러야 하니, 財利를 經營하여 넓히지 않을 수가 없다.

孔子도 넉넉하게 된 다음에 가르친다 하였다. 옷을 헐벗고 밥을 빌어먹게 되어, 祖上の 祭祀를 받들지 못하고, 父母를 奉養하지도 못하며, 妻子의 倫理도 모르는 자에게 어찌 가만히 앉아서 道德과 仁義를 말하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이 이 世上을 살아가는 데서 산 사람을 奉養하고, 죽은 자를 보내는 데에 모두 財物이 소용된다. 그런데 財物은 하늘에서 내리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땅이 기름진 곳이 第一이고,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곳이 그 다음이다.

3). 人心

孔子는 “마을 人心이 착한 곳이 좋다. 착한 곳을 가려서 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롭다 하랴”하였다. 또 옛날 孟子의 어머니가 세 번이나 집을 옮긴 것도 아들의 教育을 위한 것이었다. 옳은 風俗을 가리지 않으면 自身에게만 아니라 子孫들도 반드시 나쁜 물이 들어서 그르치게 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살터를 잡음에 있어 그 地方의 風俗도 살피게 된다.³³⁾

2. 個人 陽基 風水

個人的 陽基는 集團 陽基보다 移動의 곤란도 적고 集團 陽基와 같이 廣範圍한 地域을 必要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探究와 選定이 容易하며, 國都 都邑보다 더 널리 사람들이 利用하고 있다.

33) 이 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2002, P. 135~149.

吉한 땅에 住宅을 지으면 幸運을 얻을 수 있고 凶地는 이와 反對다. 吉한 땅이란 天地의 精氣가 모였다가 生氣를 발하는 곳이며, 生活의 發達과 伸張을 祝福할 만한 땅이다.

生氣를 탄다는 觀念보다는 山河 形勢의 類型 유상이 人生에 影響을 끼친다고 하는 類形 風水에 그 무게를 두고 있다.

陽基는 陰宅과 달라서 그 居住를 地上에 두고 있다. 묘지처럼 땅 속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땅 속에 埋葬해 直接 生氣를 탈 수 있는 墓地보다는 生氣에 대해서 그리 重要性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陽基에서는 日常生活에서 直接 類型을 바라보고 接觸하기 때문에 類形 影響의 힘을 重視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住宅 風水는 그 選定이 小規模이고 주로 表面的인 象徵에 의해서 吉凶의 判別이 이뤄지기 때문에 墓地나 集團 陽基에서처럼 風水的 造詣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陽基의 常識的 判斷은 美, 醜를 보는 一般 見地에서 吉凶 判斷을 말한다. 많은 住宅의 選定은 앞으로 성해지려는 땅, 성한 기운이 上昇하려고 하는 氣勢가 있는 땅이다. 즉 發展的인 느낌이 있는 形勢의 땅이 吉地이다. 이 發展的 形勢를 吉地라고 하는 것은 世界 共通의 現狀이다.

個人的 陽基는 이런 땅의 生氣를 받는 것도 重要하지만 집의 位置와 形態, 方向을 더 重要視하며, 더 細分하면 집의 大門, 안방, 부엌 등을 보는데 이것을 모두 陽宅三要訣이라고 부른다.

좋은 집 고르기는 陽宅三要訣을 人間 生活에 가장 重要한 法으로 보고 있으며, 이 法을 따르면 自然에 順應하는 것으로 天地 理致에 맞아 富貴가 約束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窮塞이 따른다고 보고 있다.

朝鮮末期 丁若鏞의 山林經濟 第一 卜居篇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卜居總論 : 무릇 一區를 卜築할 計劃이 있는 자는 拙速하게 居를 정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먼저 그 氣風의 藏聚, 面背의 安隱을 잘 살펴서 選擇하여 永久的 圖謀를 할 것이다.

2) 地勢論 : 治生은 반드시 地勢를 택해야 한다. 水陸이 아울러 통하는 곳이 가장 좋다. 고로 산을 등지고 湖水에 면함이 좋다. 그 위에 冠帶하면 財利가 나오고, 緊束하면 財利가 모여든다. 무릇 집을 정하고 墳墓를 便安케 함은

陰陽의 別이 있다 하더라도 山川風氣의 聚散을 논한다면 理는 同一하며, 조금 다른 곳은 龍의 到頭手脚을 펼치면 陽居를 이루고 오무리면 陰宮을 이룬다.

陽居는 坐下平衡, 左右不迫, 明堂寬暢, 흙이 潤濕한 氣가 있고, 샘이 달고, 光澤陽氣가 있고, 竹林叢茂하여 그 氣의 성함을 볼 수 있으면 吉하다. 陽居는 一山一水情이 있되 그 局이 작으면 좋다고 하나 長遠하지 않으며, 大勢大形の 入局은 大局이요, 부귀하고, 悠遠하다.

무릇 家居는 大山에 의지하면 沙汰가 나기 쉽고 江海에 임하면 水災를 받게 된다.

또한 물이 나쁘고 猛虎가 縱橫하고 盜賊이 出沒하는 곳은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또 배나 차가 모이고 市場이 서는 곳은 피하여야 하며 시끄러운 곳도 좋지 못하다.

平地의 땅은 반드시 龍의 來歷, 穴의 結作이 있을 것이므로 泉地보다는 높은 곳을 眞으로 한다. 무릇 山谷의 陽基는 脫落하여 平地를 원한다.

順龍이 있는 地勢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순한 마음을 갖고 國家에 忠誠하고 父母에게 孝道하는 反面 逆龍이 있는 地域에서는 下剋上이 자주 일어난다.

3) 宅地論 : 무릇 宅地는 東이 높고 西가 낮으면 生氣가 성하고, 뒤가 높고 앞이 낮아야 牛馬가 많고 英雄 豪傑을 世上에 낸다. 四面이 높고 중앙이 낮으면 처음은 富하지만 뒤는 貧하니 平坦함을 大吉로 본다.

무릇 宅地는 卯酉에 있어야 하고 子午는 凶하다. 南北이 길고 東西가 좁으면 吉, 東西가 길고 南北이 좁으면 初凶하나 後吉, 右가 길고 左가 짧으면 富, 左가 길고 右가 짧으면 子孫이 적다. 앞이 넓고 뒤가 좁으면 貧, 앞이 좁고 뒤가 넓으면 富貴하다.

무릇 住宅의 左로 흐르는 물은 靑龍, 右에 長途가 있으면 白虎라고 한다. 앞에 輿地가 있으면 朱雀, 뒤에 丘陵이 있으면 玄武라 하고 이를 貴地로 본다.

4) 水論 : 물은 洋洋함을 바란다. 悠悠하여 나를 돌아보고, 머물고자 하며 고여 있다가 흐르는 것이 좋고, 疊疊山 水田은 海潮보다 낮고 모두 朝堂에 좋다. 또는 背後에 감겨 있으면 가장 吉格으로 한다. 물소리는 가지를 울리는 듯하면 좋고 淒絶한 것은 不吉하다.

5) 造屋論 : 家舍는 食口의 半을 計算하여 만든다. 高大함은 피한다. 큰집은 좋지 않고 작은 집은 사람에게 吉하다.

집은 너무 高明하면 나쁘고 多陽盛하면 마음을 상한다. 너무 낮고 어두워도

안되고 多陰盛하여도 마음을 상한다. (너무 밝으면 발을 내리고 어두우면 이것을 접는다.)

집의 形이 日・月・口・吉자 모양이면吉하고, 工・尸자 모양은 불길하다.

造屋의 間數는 반드시 單數를 써야吉하고 기둥의 尺數 및 서까래의 數도 모두 單數가 되도록 한다.

세우는 順序는 主房을 맨 처음에, 그리고 마루, 다음에 그 이외의 방들을 세우고 집이 끝난 후에 大門을 세운다. 大略 안에서부터 밖으로 지어 나간다.

便所는 집의 内外에 각 한 개씩 설치하고 밝고 깨끗하여야 하고 매일 매일 積糞을 내보내야 한다.

6) 造門論 : 門이 작고 집이 크면 재물이 모이고, 문이 크고 가옥이 작으면 凶하고, 大門・中門은 마땅히 맞보고 열도록 하지 않아야 좋다.

大門 높이는 울타리 담벽 보다 조금 높게 한다. 집의 正面으로 大門이 있으면 不吉하고 길모퉁이에 있는 것도 凶하다.

7) 우물과 부엌論 : 우물의 위치는 本山의 生旺한 방향에 두어야吉하다. 가령 本山이 金體일 경우 西쪽에, 木體이면 東쪽이 좋다. 우물은 建物의 前後房앞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우물과 부엌은 서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主人 男女가 淫亂해 진다. 우물판 흙으로 부엌을 지어서는 안되고 부엌의 흙으로 우물을 메우면 병어리나 장님이 난다. 부엌의 위치는 東南向이吉하고 東北은 凶하다.

8) 宅木論 : 住宅 안에 심는 나무는 소나무와 대나무(竹)가 좋다. 松竹이 울창하면 生氣가 旺하고 俗氣가 없어진다. 또 陽居에는 陰한 것이, 陰居에는 陽한 것이 서로 陰陽의 相和를 이뤄吉하다. 果樹가 무성하여 집 左右를 덮는 것을 피한다. 집터에 壽命이 긴 나무는 피해야 한다. 나무 뿌리가 집 처마 밑에 들어옴을 피한다. 집 가까이 무궁화나 단풍을 심지 말라. 일반적으로 中庭에는 植樹하지 않고 꽃을 栽培하는 것은 좋다.

9) 五虛・五實論

집에 五虛가 있으면 사람이 貧耗한다.

一虛 : 집이 크고 사람수가 적은 것.

二虛 : 집이 작고 문이 큰 것.

三虛 : 담장이 완전하지 못한 것.

四虛 : 우물과 부엌의 위치가 나쁜 것.

五虛 : 택지는 큰데 집은 작고 정원이 넓은 것.

집에 五實이 있으면 사람이 富貴한다.

一實 : 집이 작고 사람수가 많을 때.

二實 : 집이 크고 문이 작을 때.

三實 : 담장이 완전할 때.

四實 : 집이 작고 육축이 많을 때.

五實 : 水構가 東南으로 흐를 때 등이다.³⁴⁾

第 3 節 住居 立地의 環境的 條件

1. 傳統的 住居 立地 條件

傳統的인 住居 立地 條件은 氣候, 地形, 물, 土壤의 肥沃度 등의 自然的 條件과 交通, 防禦, 資源, 慣習 등의 社會的 條件이 있다. 우리나라의 傳統的 住居 立地는 山地가 많은 地形 條件과 風水 地理說 등의 影響으로 背山 臨水 地域에 立地하였다.

가. 地形

風水說에서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背山 臨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風水의 影響으로 傳統的인 住居 立地는 산이나 구릉의 陽地 바른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곳은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철의 찬 北西風을 막아 주고 南西面은 겨울에 日照量이 많아 따뜻하고 앞의 河川 流域에는 넓은 農耕地가 있어 主産業이었던 農業에 유리하다.

反面에 큰 강 沿岸의 넓은 들은 土地가 肥沃하고 灌溉 用水가 豊富하겠지만 洪水가 빈번하여 살기에 適合하지 않아 이러한 곳에서는 自然 堤防을 따라 住居地가 形成되었다.

平野 地域에 비해 自然 條件이 不利한 山地에서는 農耕地 確保가 有利하고 用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河川의 溪谷을 따라 分布하거나 傾斜가 圓滿하고 넓은 耕地를 마련할 수 있는 高位 平坦面에 立地하였다.

34) 박 시익, 「풍수지리설과 건축 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나. 물

生活 用水의 確保는 住居 立地에서 제일 먼저 고려되었다. 물이 不足한 地域에서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住居 立地가 정해졌다. 또한 河川이 伏流하여 地表水가 不足한 곳에서는 地下水가 샘으로 솟아나는 곳에 立地하였고, 汎濫原이나 三角洲에서는 用水를 구하기는 쉬우나 浸水 危險이 크기 때문에 排水가 良好하며 고도가 周邊보다 약간 높아 洪水時 浸水 被害가 적은 自然 堤防이나 人工的으로 흙을 쌓아올린 곳에 立地하였다.

다. 交通

交通은 住居 立地의 重要한 條件이 되는데 이는 接近性과 物資 流通에 有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住居地의 成長과 衰退는 交通 手段의 時代的 發達 過程과 關係가 깊다. 朝鮮時代에는 驛院 등의 交通 要地나 河川 沿岸의 나루터에 住居地가 立地하였으나 오늘날에는 鐵道, 高速 道路 등 陸上 交通의 要地나 船舶이 드나드는 海岸 地域이 住居地로 比重이 높아지고 있다.

라. 防禦

우리 나라는 侵略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防禦에 有利한 곳에 過去부터 防禦 機能을 가진 住居地가 發達했다. 이는 風水 地理說에서 이야기하는 背山 臨水 地域이 뒤로는 산이 적을 막아주고 앞으로는 강이 가로막혀있어 自然的인 防禦 地形이 되는 것이다.

自然的인 防禦 機能이 脆弱한 곳에서는 人爲的으로 城을 쌓아 敵의 侵略에 對 備하였는데 옛날의 都邑地에는 大部分 城이 築城되었다.

마. 經濟 活動(租稅 制度)

都邑地에 隣接한 河川은 地方의 租稅米를 運搬하던 漕運制度和 더불어 貨物 輸送에 重要한 役割을 하였다. 옛날에는 陸路 交通에 많은 不便이 있었기 때문에 海上을 利用한 經濟 活動이 활발하였던 것이다.

2. 現代의 住居 立地 條件

傳統的 住居 立地에 基盤을 두고 오랜 동안 살아왔던 現代人들은 急速度로 發展한 科學文明의 時代에 살고 있다.

過去의 農業 中心 社會에서 産業化 過程을 거치면서 都市의 人口 集中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러한 現象은 大都市의 出現과 함께 住宅問題와 交通問題 등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技術이 進歩하고 社會가 發達되면서 住居 立地 問題도 自然的 條件보다는 社會・經濟的 條件이 더 重視하게 되었다.

住居 立地 條件이 滿足스럽지 못하더라도 地形을 바꾸고 道路를 開設하는 등 人爲的으로 立地 條件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다.

人口가 密集되어 住宅需要가 큰 곳에서는 大單位 宅地로 쓸만한 土地의 供給 可能性과 價格, 그리고 主要 交通路의 接近性이 重視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都市의 변두리는 未開發地가 많고 地價가 相對的으로 싸기 때문에 住宅 團地 開發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

現代 社會에서는 住居 立地에 관한 決定에서 個人보다는 政府와 民間住宅 開發 業體 등의 役割이 더 커지고 있다. 現代 社會에서는 住民이 스스로 집을 짓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지은 집을 購入하거나 세 들어 사는 경우가 普遍的이므로 個人의 立場에서 보면 住居 立地란 住居의 選擇 問題라고도 말 할 수 있다.

現代 社會의 住居 選擇 條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住宅의 價格

個人의 立場에서 보면 住宅의 價格 問題가 住居地를 決定하는데 重要的 要因이 되고 있다.

都市의 人口 集中現象이 深化됨에 따라 都市에서의 住宅 不足現象은 一般化되고 이에 따라 住宅 價格의 上昇을 초래하여 經濟力 水準에 따라 住宅을 선택하게 된다.

交通이 便利하고 住居 環境이 良好한 곳에서는 經濟力 水準이 높은 사람들이 居住하게 되고 經濟力 水準이 낮은 사람들은 住宅 價格이 싼 곳을 찾아 住居地를 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現象은 大都市에서 低所得層이 密集한 곳에서는 住居 環境이 劣惡한 산 稜線이나 侵水被害가 큰 地域에서 居住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風水地理 理論上 住居 立地로 回避했던 地域이다.

나. 일터와의 接近性

傳統的 社會에서는 都市나 農村을 莫論하고 일터와 住居는 一致되어 있거나 近接되어 있었다. 産業化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生産者들의 勞動 形態와 勞動 時間 그리고 家族 勞動의 必要性和 零細한 經濟力 등의 理由로 일터와 住居 空間의 結合은 必然的이었다.

現代社會에서는 거의 모든 都市에서 일하는 地域과 居住하는 地域을 나누어 놓았고 用度地域化를 強化하는 方向으로 法的 規制가 짜여져 있다. 이러한 理由는 經濟活動을 集積하는 편이 分散되어 있는 편보다 유리하다는 점과 經濟活動이 住居地의 安全과 閑寂함을 깨뜨릴 危險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危險을 分離함으로써 미리 豫防해 둔다는 점이다.

이러한 條件에서 住居地를 選擇하는 경우 일터와의 接近性を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現象은 高所得層보다는 低所得層에서 重視하는 傾向이 크다.

住居地와 일터의 接近性이 交通便宜 정도에 따라 支出하게 되는 費用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 住居 環境

現代社會 生活에서 住居 環境인 學敎, 公園, 商街 등 便益 施設의 近接與否와 먼지와 騒音 및 惡臭의 深刻性 程度인 公害問題, 住居 生活의 安全 등도 住居地를 決定하는 데 重要的 條件이 된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現象은 低所得層보다는 高所得層에서 重視하는 傾向이 크다.

經濟적으로 餘裕를 가지고 있는 階層에서는 보다 쾌적한 環境에서 生活함으로써 健康한 삶과 幸福을 追求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住居 環境問題 중 우리 나라 경우 子女의 敎育 問題가 차지하는 比重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는 名門 學敎가 있는 學群 地域의 住宅價格이 相對적으로 다른 地域보다 높게 形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정된 住宅에 비하여 需要層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現象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名門 學敎가 所在하고 있는 地域은 風水地理 理論을 適用하여 보면 明堂條件을 갖추고 있음을 確認할 수 있는데 서울 大學校가 위치했던 동숭동, 연건동 등과 연세 大學校와 이화 女子大學校의 신촌 일대, 高麗 大學校가 위치한 안

암동 등은 朝鮮初期 부터 明堂자리로 거론되었던 地域으로 明堂의 條件을 두루 갖추고 있다.

라. 이웃의 社會・經濟的 地位

住居地를 決定하는데 있어 이웃의 社會・經濟的 地位가 重要的 變數가 되고 있는데 이는 社會・經濟的으로 비슷한 水準의 사람들이 모여 住居地를 形成하여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住宅 價格面에서 뿐만 아니라 住居 環境面에서도 居住者의 所得 水準에 맞추어 住居地를 選擇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한다.

風水地理의 地勢分析 方法을 適用해보면 高所得階層이 居住하고 地域은 明堂의 條件을 갖추고 있는 反面, 低所得層이 居住하고 있는 地域은 明堂의 條件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마. 住居地의 發展的 展望

現代社會 生活에서는 經濟的 富가 차지하는 比重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는 經濟力이 社會的인 欲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基本 前提가 되기 때문이다. 住居地의 發展的 展望은 不動產 投機를 부추길 수 있는 한 要因이 되기도 하지만 住宅의 選擇 問題가 經濟的으로 富를 創出할 수 있는 한 手段으로써 利用되고 있는 우리 나라 境遇 不動產의 所有慾이 相對的으로 강한 편이다. 住居地에 대한 將來의 展望이 發展的인 경우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住宅價格이 上昇하게 되어 成長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境遇 사람들이 住居地를 離脫하게 됨에 따라 價格은 하락하게 되고 衰退하게 된다.

제 4 절 風水地理와 都市 住居 立地

1. 傳統的 都邑 風水

사람이 모여서 사는 地域에 대한 風水를 都邑 風水라 한다.

옛날의 都邑에는 州・府・縣・郡・里・洞 등 規模의 大小가 있으나 모두 集團 陽基인 이상 모두를 都邑으로 보아 風水를 考察한다. 이 集團의 陽基는 個人的 陽基과 類似하다. 個人的 陽基과 다른 것이 있는 듯 생각되지만 規模를 擴大하면 集團의 陽基가 되니 風水上으로는 集團 陽基나 個人 陽基나 같다. 다

만 集團 陽基는 個人 陽基와 달라서 여러 사람의 群居地이므로 個人 陽基보다는 그 移動이 어렵다. 가령 移動이 可能하다 해도 旣 處에 새로운 住居地를 選定하는 일이 個人 陽基처럼 한 사람의 意見으로 決定될 수가 없다.

따라서 部落의 風水的 效果가 不吉하다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다. 이것이 個人 陽基와 다른 것이다. 그 대신 碑補를 하여 移動이 容易하지 아니한 缺陷을 補充한다. 즉, 그 땅의 地氣의 缺陷을 어떤 人爲的 施設에 의해서 채우는 것이다. 그러나 個人的인 陽基에서도 그 家族數가 불어서 旣 處를 옮기는 일이 容易하지 않을 때면 새 吉地를 고르기보다는 碑補로써 舊地의 地氣를 補益코자 하는 境遇도 있으므로 碑補風水는 꼭 集團 陽氣에만 한하는 것은 아니다.

集團 陽基에서 風水上으로 먼저 注意해야 할 것은 大部分이 산을 등진 平地에 터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 뒷산을 鎮山이라고 한다. 이 '鎮山'이란 陽基를 鎮護하는 산이란 뜻이다. 陽基를 정할 때 반드시 산으로 鎮護한다고 하는 것은 風水上 極히 興味 있는 일이다. 이 鎮山은, 神은 위쪽에 자리한다는 觀念 때문에 神은 山上에 坐定함을 믿고 그 神에 의해서 生活의 安定을 保護받는다고 하는 部落 守護神이 鎮座하는 산이라고 보는 觀念에 의해서 命名되었을 것이다.

風水上으로 보면, 모든 都邑은 風水說에 의해서 整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風水說이 사람들의 確信을 얻게 되자 都邑 風水가 각 都邑에 適用되었다고 想像하기는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風水의 主眼은 生氣가 흘러 들어오는 땅을 구하는 데 있다. 그 生氣가 흘러 들어오는 것은 山脈이 中心이 된다. 이 山脈을 來龍이라고 한다. 따라서 風水적으로 吉地라고 하면 이 來龍의 산이 있는 곳이다. 이 來龍이 바로 鎮山이다.

都邑을 保護하는 山神이 鎮座하여 住民이 幸福하다고 믿기보다는 陰陽五行의 깊은 哲學的 根據를 가지고 人生의 吉凶이 生氣를 받아 厚薄이 정해진다고 믿는 風水說에 기울어져 生氣를 가져오는 玄武로서 뒷산을 두는 것이 都邑의 幸福을 約束하는 것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³⁵⁾

2. 現代的 都市 風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都市 地域은 傳統的 風水地理說에 의해 整地된 地域

35) 임 학섭, 「전계서」, P. 194~196.

에서 發展을 이루면서 대대로 살고 있다.

産業化가 이루어지고 人口의 都市集中 現象이 深化되면서 急速한 都市化의 影響으로 既存의 限定된 地域에서는 住宅問題 등 諸般 社會問題를 解決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都市의 居住 地域을 擴大하는 方案과 함께 같은 面積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人口 高密度 方案이 推進되었다. 居住地를 擴大하는 方案은 既存 都市의 住居地 以外の 地域인 山 稜線이나 農耕地에 住居地를 정하는 境遇이고, 人口 密度를 높이는 方案은 아파트 등 高層 建物を 建設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居住地를 마련하는 것이다. 時代的 變化에 따른 選擇이라고 하더라도 風水地理가 自然의 攝理를 이용하고자 하는 學問임을 勘案한다면 居住地를 새롭게 정하는데 있어서도 風水地理 理論을 適用하여 住居 立地를 정해야 함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다.

가. 風水地理와 住居地 選擇

農業社會가 産業社會로 變化됨에 따라 都市의 産業이 發展하고 따라서 많은 사람이 都市에서 職場을 갖기 위하여 都市로 몰려들었을 때 이들을 居住시키려면 居住 地域을 擴大하지 아니할 수 없다.

既存의 都市에서 形成된 居住地는 점차 擴大되어 山 稜線이나 農耕地에도 住宅이 建設되어 사람이 居住하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 居住地를 정함에 있어서 風水地理 理論을 適用한 住宅 選擇 要領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따뜻해야 한다. 陽宅에서 風은 적절한 공기 소통을 도모하고 맞바람을 막아야 한다. 氣溫을 따뜻하게 하려면, 집의 方向이 南向・東南向이면 자연히 따뜻하게 마련이다. 만약 그와 反對 方向이면 우리 나라의 경우 겨울에는 北西風이, 여름에는 東南風이 불어오기 때문에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오히려 덥다. 自然的으로 따뜻하다는 것은 밝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늘져 어둡거나 陰沈한 집은 一次的으로 價格面에서 불리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햇빛과 安定感이다. 生氣는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太陽으로부터도 받는다. 또한 모든 生物은 햇빛을 必要로 하는데, 같은 햇빛이라도 氣가 일어나는 아침 햇빛을 받아야 한다. 저녁 햇빛은 오히려 生氣를 잃게 하는데, 西向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화초가 싱싱하지 못하고 시들어 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安定感이란 大地 形態뿐만 아니라 建物 自體에도 適用된다. 이를테면 傾斜가 심하여 不安한 形態의 家屋이 그 價値가 떨어지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緣由 때문이다.

세 번째는 交通이 便利해야 한다. 交通이 便利해야 效用 價値가 높아 交通의 中心地에는 바로 商圈이 發達하고 人間 生活의 中心이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道路에 隣接하여야 한다. 交通이 便利하다는 것과 一脈相通하지만 交通이 좋더라도 敷地 延長線에 있는 곳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大地의 四面 중에서 最小한 한 면만은 道路에 접해야 하는 데 그 보다 더 좋은 것은 道路의 交叉點이 되는 大地이다. 風水地理에서는 물이 만나는 주위에 穴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陽宅에서는 道路를 바로 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너 땅과 그 옆의 땅과는 價格 差異가 크게 나타나며, 商業 地域일수록 그 意味는 크다.

다섯 번째는 집 앞 全景이 좋아야 한다. 住宅의 全景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精神的인 安定과 情緒적으로 좋은 影響을 주어 健全한 思考를 하게 만들며 健康을 유지케 한다.

이와 反面에 風水地理上 나쁜 住居地를 가려내는 基準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막다른 골목집은 좋지 않다. 陽宅에서 길은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막다른 골목집은 길을 막았다는 의미이다. 바로 물을 막은 結果와 같다. 또한 물을 막는 것은 물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 나쁜 氣가 形成되는 것을 意味한다.

둘째, 生土가 아닌 埋立地는 좋지 않다. 땅의 氣는 巖盤을 타고 흐르며 生土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風水地理 理論은 땅의 氣는 生土에만 있는 것으로 看做하여 氣가 없는 埋立土 위의 住宅은 氣를 받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다. 나무가 크다는 것은 相對적으로 뿌리가 크다는 것을 뜻하므로 집의 生氣를 나무가 받아 居住者 등에게 無益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집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落雷의 危險, 벌레, 그늘에 가려 항상 濕하고 陰地가 되어 집안을 어둡게 만들 우려가 있다.

넷째, 亡해서 나간 집은 좋지 않다. 이런 집은 大部分 집의 坐向이나 大門,

안방, 부엌 등의 位置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연못이 마당에 있으면 좋지 않다. 單獨 住宅에서 우물이나 연못이 마당에 있다면 그 집터는 바로 水脈이 지나가는 집이거나 물이 고일 수 있는 濕地로서 좋지 않은 것이 當然하다.

여섯째, 大門에서 안방이나 부엌문이 보이면 좋지 않다. 대문은 바로 물의 入口를 뜻하므로 안방이 直水가 되어도 좋지 않고 부엌 또한 마찬가지다. 實生活에 있어서도 來訪客의 눈에 모든 것을 내보이는 結果가 되어 항상 不安感을 갖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일곱째, 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들면 좋지 않다. 基礎 工事が 不實하다는 것을 뜻하며, 排水가 안 된 집으로서 崩壞 또는 地盤이 弱한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집이 어둡고 그늘지면 나쁘다. 집이 어둡다는 것은 方向이 나쁜 장소이며, 그늘이 지는 것은 항상 습하여 좋지 않은 條件이 있다는 證據이다.

나. 風水地理와 주택

1). 東舍宅과 西舍宅

風水地理上 집의 方位를 보는 것은 坐向을 區分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坐向에 의한 기운을 區分함으로써 집의 吉凶을 분석하기 위한 理由가 더 크다. 一般的으로 집의 方位라고 하면 外部 方位를 말하는데, 마당의 中心點에서 建物과 大門 등의 方位를 測定한다. 內部 方位는 안방·화장실·현관·부엌 등이 配置된 方位에 의한 기운을 解釋하는 것으로, 집 안 中心點에서 각 방의 方位를 測定한다.

地表面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르고 있는데 바다에서와 마찬가지로 땅 위에도 暖流과 寒流의 기운이 흐르는 것이다. 人體에도 動脈과 靜脈에 서로 다른 피가 흐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地表面에 垂直 回轉하며 흐르는 기운은 東氣와 西氣로 區分되는데 東氣는 地表面에서 上昇하는 기운이고 西氣는 下降하는 기운이다. 五行 중 水, 木, 火는 東氣, 그리고 土, 金은 西氣로 區分한다.

東舍宅이란 建物の 中心이 垞地의 中心에서 보아 東氣가 通過하는 方位인 北, 東, 東南, 南쪽에 있는 집을 말한다. 그리고 西舍宅이란 집의 中心이 垞地의

中心에서 보아 西氣가 通過하는 方位인 北東, 西南, 西, 西北쪽에 있는 집을 말하는데, 住宅의 四相中에 있는 門(外部 出入門)이 垓地의 中心에서 보아 東舍宅일 때에는 東舍宅의 方位안에 있어야 하고 西舍宅에서는 西舍宅의 方位안에 있어야 한다.

만일 位置가 混入되어 있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 測定은 각 方位의 相生 相剋의 理致에 따르게 된다. 가령 垓地의 中心에서 보아 建物이 北쪽에 있으면 이 집은 東舍宅에 속하며 이 경우 大門이 南西쪽에 있으면 이 方位는 東舍宅에 맞지 않는 方位이기 때문에 不吉하고 그 影響은 土剋水하기 때문에 특히 中男에게 나쁘다.

方位를 分析하는 基準은 東舍宅과 西舍宅·陰陽·五行 세 가지지만, 가장 比重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東舍宅과 西舍宅이다. 세 要素의 比重을 따져 보면 東舍宅과 西舍宅이 60%, 陰陽에 의한 方位가 20%, 五行 方位는 20%의 影響을 미친다고 본다.

2) 담 장

單獨 住宅에서 住宅의 品位와 主人의 人格을 나타내는 重要な 要因은 담장과 庭園樹를 들 수 있다.

新羅 時代 때에는 官職에 따라 담장 높이를 規定하고, 一般 百姓의 집은 여섯 자를 넘지 못하게 하였다. 집에 비해 담을 높이 쳐서 집이 담에 눌릴 경우 가난해질 상으로 보는 것은 家相의 常識에 속한다.

風水에서는 높은 것을 陰相, 낮은 것을 陽相으로 보고 相對的인 原理로 담이 높으면 집이 작아 보이고, 反對로 담이 낮으면 집이 커 보이기 때문에 結局 집과 담이 調和를 이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吉凶을 判斷한다.

아무리 堅固하고 完全히 遮斷된 담이라 할지라도 그 높이가 다섯 자를 넘으면 별 效果가 없다고 한다. 理由는 먼지와 騒音을 防止하는 데 다섯 자 이상의 담은 效果가 없다는 것이다.

比較的 차량 通行이 많은 地域에서는 어른 목까지의 높이까지 完全한 遮斷形으로 담을 쌓는 것이 좋고, 高地帶에서는 基礎부터 꼭대기까지 通風形으로 담을 만들면 비록 大門의 方向이 좋지 않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凶狀을 弱化시킬 수 있는 利點이 있다. 大門의 位置와 方位를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立地條件이 좋은 집에서는 비록 高地帶 집터라 하더라도 半 遮斷, 半 通風形의 板

子 울타리나 鐵製 울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땅의 氣를 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쁜 氣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치로 따져볼 때 집안에 큰 연못이 있는 집은 담이 낮아야 한다. 집터가 平地이거나 大門 제약이 적은 집에서는 折衷式 담이 理想的이고, 凹凸이 심한 집터에서는 通風形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집터가 平地라면 담이 바로 墓地의 左靑龍·右白虎의 役割을 하기 때문이다.

3) 庭園樹

담과 집의 調和를 補完하는 것이 庭園樹이다. 人間이 집을 지었다는 것은 自然을 征服했다는 뜻이며, 自然의 一部를 파괴했다는 意味도 된다. 하지만 自然 없이는 삶을 營爲할 수 없음을 깨닫고 結局은 自然을 다시 불러들여 庭園을 만들고 있는데, 집터에 나무가 없이 朔漠하면 땅의 氣가 없어진다고 믿어 온 것이다.

庭園樹는 酸素를 排出하고 人間이 排出한 炭酸가스를 吸收하여 人間에게 新鮮한 空氣를 供給한다. 그런데 問題는 밤에 생긴다. 人間은 밤에도 酸素를 마시고 炭酸가스를 排出하지만, 나무는 낮과는 반대로 밤에는 人間에게 해로운 炭酸가스를 排出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 큰 나무가 집안에 있는 것은 常識적으로 생각해드 좋을 리가 없다. 햇빛을 가려 採光에도 問題가 있으며 벼락이 치거나, 颱風 시에 危險性이 있어 心的 不安마저 든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집안의 禁忌에는 큰 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땅이 말라서 윤기가 없고, 스스로 영기를 머금어 사람에게 해를 준다. 나무를 崇尚하고 나무의 氣가 強하면 사람의 기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했다.

다. 아파트의 風水地理

아파트의 空間에서 發生하는 기운은 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파트 空間이 人間的인 雰圍氣를 充分하게 提供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데 人間이 靈魂을 갖고 있는 崇古한 生命體이듯, 人間에게 生命을 주는 아파트도 魂을 갖고 있는 巨大한 生命體이다.

現代 建築에서 세 가지 重要的 基準은 空間의 機能性, 構造의 安定性, 形態의 아름다움인데 아파트의 경우 機能面에서는 많은 成果를 얻었으나 사람에게 미치는 影響이나 自然과의 調和面에서는 完全하지 못하고 있다.

1). 아파트의 方位

風水地理의 傳統性 때문에 東南向, 南向을 고수하고 있지만 風水理論으로 보아 南向집이 제일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집은 地勢에 의해 제일 좋은 方向이 決定되기 때문에 地勢에 따라서는 東向집이 제일 좋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北向집이 제일 좋은 집일 수도 있다.

아파트 한 世帶의 平面 形態는 거의 正四角形으로 앞면 길이와 깊이가 거의 1:1 비율을 이루는데, 거의 모든 아파트가 한 층에 열 世帶 程度를 直線으로 連結한 構造를 갖고 있어 아파트 全體 平面 形態는 가로 세로 比率이 1:10으로 直四角形을 이룬다.

建물이 기차를 連結하듯 直線形이 되면 環境의 影響을 받아 사람이 單純해진다는 解釋이 있으니 아파트는 橢圓形이나 四角形으로 配置해야 한다.

골목 바람은 殺風이라 하여 健康한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린이와 老人에게는 健康에 至大한 影響을 미친다. 單獨 住宅에서 막다른 집이 안 좋은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健康한 青年은 달리는 버스에서 창문을 열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老人은 感氣가 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소홀히 넘길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微弱한 선풍기 바람도 人體 活動이 中止되는 잠자리에서는 아주 나쁘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殺風에 오래 露出되는 것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人間은 기후에 따라 性格이 形成되는데, 四季節을 같은 온도에서 지내게 되면 性格이나 體質이 달라진다는 理論이다. 꽃도 추운 겨울이 있는 곳에서 자라야 아름답고, 나무도 四季가 뚜렷한 곳에서 자라야 實하듯이, 사람도 氣候 變化가 있는 곳에서 시달려야 健康하다는 것이다.

아파트 한 동 크기가 웬만한 산 하나 크기와 맞먹는데 아파트 形態를 風水地理 側面에서 산 形態를 適用시켜 보면 매우 좋지 않은 凶家 形態임을 알 수 있다.

산의 品格이나 體形으로 보면 主人格과 強體의 산은 等高線 形態가 正四角形이나 圓形을 이뤄 中心에 기운이 모이는 形態다. 그러나 既存 아파트의 경우 左右 길이는 길고 폭은 좁은 1:10의 직선 형태를 이루고 있어 補助格에 該當되며 體形으로는 弱體에 속한다.

아파트의 지붕 形態로 살펴보면 평슬래브 지붕 形態는 산 形態로 보면 水山에 속한다. 水山은 中心에 기운이 모이는 空間이 없고 左右로 分散되는 形態이다.

建物 形態를 陰과 陽으로 區分하면, 밑에 있는 벽은 陰이고 위에 있는 지붕은 陽이다. 陰은 物質과 肉體를 象徵하고, 陽은 精神과 마음을 象徵한다. 아파트 形態가 陰으로만 構成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이 物質을 점점 더 重要하게 생각하고 精神이나 마음의 重要性에 대해서는 차츰 疏忽해진다.

2). 아파트의 坪數

風水로 볼 때 가장 理想的인 아파트 坪數는 居住者 한 사람당 專用 面積 6坪이다. 4인 家族이면 24坪이 가장 理想的인 面積이다. 그러나 지나친 物質主義로 인하여 아파트 坪數를 곧 그 집의 品格으로 判斷하는 등 넓은 坪數의 아파트를 選好하고 있는 實情이다.

家族數에 비해 空間이 넓고 큰 아파트는 좋지 않다. 食口에 비해 規模가 큰 집은 옛날부터 ‘빈 방에 鬼神이 있다.’고 해서 警戒했는데, 우리 祖上들의 슬기로운 智慧였던 것 같다.

風水的으로 보면 아파트에 비어 있는 방이 있으면 凶事가 자주 일어나는데 사람이 居住하지 않는 방은 冷氣가 흐르게 마련이다. 어쩔 수 없이 빈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방을 옷 방처럼 사람이 자주 들어갈 수 있는 空間으로 만들거나, 문을 열어 놓아 사람의 氣와 서로 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現代의 心理學者들에 의하면, 私生活이 完全히 維持되는 空間에 혼자 있게 되면 緊張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解消되어 얼마 동안은 精神 衛生에 좋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生活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維持되면 精神이 解弛해져서 삶의 意慾이 喪失되고 無氣力해진다고 한다. 適當한 緊張만이 사람을 生氣있게 만든다.

東海岸으로부터 바닷고기를 실어 나를 때, 물통에 넣고 출렁거리며 그대로 싣고 오면 고기가 거의 瀕死 狀態가 되어 商品 價値를 잃게 되는데, 고기의 天敵인 낙지를 통 속에 같이 넣고 오면 고기가 생생하다는 理致와 같다.

3). 아파트의 높이

아파트를 選擇할 때 坪數와 함께 重要하게 생각하는 것이 層數다. 그러다 보니 소위 ‘로얄층’이라는 말도 생겼는데 風水에서 볼 때 理想的인 아파트 層數는 5층 이하 底層 部分이고, 高層으로 올라갈 수록 좋지 않다. 그 理由는 땅과 사람이 사는 집의 기운이 서로 통해야 한다는 데 根據가 있다.

사람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同時에 받고 살아간다. 高層으로 올라갈수록 地表面과 멀어지게 되고 땅에서 받는 生氣는 적어진다. 하늘의 기운만 받는 높은 곳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

地表面에서 가장 높이 살아있는 生命體는 나무인데 나무보다 높은 位置에서 居住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나무 높이는 種類나 地域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 15m 程度로 보기 때문에 아파트 5層 程度의 높이로 본다.

아파트의 높이는 자라나는 어린이의 成長에도 影響을 미치는데 땅은 萬物の 어머니로 어린아이들이 땅에 발을 딛고 자라야 하며 흙장난을 하면서 땅의 기운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높은 層의 아파트가 展望이 트여 시원하다고 좋아할 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아래를 내려다보면 眩氣症이 나고 恐怖感이 있다. 이것은 無意識的으로 動物의 防禦的 感知力이 그 位置가 좋지 않다는 警告의 意味이다. 高層 아파트가 좋지 않다는 것은 高層 아파트에 사는 妊産婦가 流産率이 높다는 醫學的 報告도 있다.³⁶⁾

뿐만 아니라 아파트는 熱管理 때문에 空間의 密閉가 完璧하여 酸素 缺乏症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問題가 아닐 수 없다. 風水가 바람을 막고 물을 얻을 수 있는 環境을 얘기하는 藏風得水의 말인 것을 생각하면 風은 바로 空氣를 뜻하는데, 空氣 중 우리에게 가장 많은 影響을 주는 것이 酸素다. 그래서 風水는 酸素의 研究라고 하는 主張도 있다. 陽宅三要訣에서 大門을 제일 重要視하는 理由는 집안의 空氣를 大量으로 換氣시켜주는 것이 바로 大門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南向집이면서도 大門이 南東쪽에 있는 것은 生氣宅으로 夫婦가 偕老하고, 吉事가 많고, 대대로 榮華를 누릴 吉家로 풀이한다. 그러나 똑같은 집이라도 大門을 北東쪽으로 내면 五鬼宅이 되어 官災, 口舌, 盜難, 火災, 不和, 不孝로 인한 凶家로 본다. 風水地理의 陽宅論에서는 이런 禍福論도 믿고 있는데, 집을 살 때는 제일 먼저 大門을 고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可能하면 凶家라 해도 두려워할 必要가 없다.

4). 아파트의 內部 環境

單獨 住宅의 경우, 좁은 庭園에 연못이 있으면 風水地理로는 집안 食口가

36) 샘터, 「자연 유산과 자연 도태」, 1996. 4.

운데 어느 사람이 神經 系統의 疾患을 앓을 것으로 解釋한다. 이와 같은 理致로 아파트에 設置한 噴水나 大形 어항도 역시 좋지 않다. 물은 五行 가운데 陰에 該當되며 집안에 있는 陽을 吸收하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집안의 生氣를 吸收하면 방안에 있는 기는 자연히 죽은 기가 되어 이를 呼吸하는 사람에게 나쁜 影響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물이 어떤 氣를 빨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로스구이를 할 때 밑에 물을 넣은 철판 容器를 使用하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現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만일 噴水 施設을 하더라도 물을 항상 뿜어 올려주면, 이 움직이는 물을 陰으로 보지 않고 陽으로 보기 때문에 집안에 濕度를 調節하는 좋은 環境을 維持할 수 있으나, 噴水를 가동하지 않으면 물은 썩게 마련이며, 병균의 서식 등 衛生的으로 不良한 것은 事實이다.

第 5 章 서울의 風水地理

第 1 節 서울의 歷史

서울 地域의 地名은 三國時代부터 文獻에 보인다. 高句麗·百濟·新羅의 3國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금의 서울지역이 馬韓·辰韓·弁韓의 3韓 중 馬韓에 속하였던 것은 여러 文獻 資料에 의하여 알 수 있다.

『三國史記』에서는 初期부터 지금 서울지역의 名稱이 보인다. 즉 『三國史記』百濟 本紀 중 始祖 溫祚王 記事를 보면, B.C 18년 三國時代 百濟의 始祖 溫祚王이 高句麗의 東明聖王 때 그의 兄弟 流와 그의 臣下를 거느리고 南行하여 지금의 漢江의 北쪽에 都邑을 定하고 慰禮城이라 하고 나라를 세우면서부터 始作되었다고 한다. 그 후 百濟 20대 蓋鹵王이 高句麗로 부터 攻擊을 받아 그 都邑을 南쪽 熊津(現 公州)으로 옮기기 전까지 약 120여 년을 지금의 서울에서 都邑한 것이 王都로 된 最初이다.

高麗初에는 지금 서울을 中心으로 한 地域에 楊洲를 設置하였는데, 이 때 楊洲는 海洲와 함께 關內도에 속한 左·右 2보의 神策軍으로 상당히 重要的 任務를 遂行하기도 하였으며, 또 廣陵이라는 別호로 불리기도 하였다.

高麗의 中葉 文宗 12년(1067)에는 楊洲를 南京으로 昇格하니, 이것은 지금의 서울 地域이 남쪽의 서울 즉 都邑地의 一般的인 名稱으로 불리게 된 始初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肅宗 6년(1101)에는 正작 遷都를 위하여 南京에 施設을 갖추기도 하였다.

朝鮮 太祖가 登極하여 開城에서 卽位한 直後에 無學의 主張을 받아들여 還都를 決心하였다. 처음에는 鷄龍山으로 國都를 삼으려 하였으나 漢陽으로 變更하여 白岳의 南쪽에 宮闕(지금의 景福宮)을 세우고 卽位 3年 10月 1日 宮을 이곳으로 옮기고 太祖 4년(1395)에는 從前의 漢陽府를 漢城府로 고쳤다.

그 후 定宗때 일시 開城으로 還都하였지만 太宗 5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600餘 年間 國都로 이어져 왔다.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보면 京都 성곽조에서는 太祖 5년(1396)에 創築하고 世宗 4년(1422)에 改修한 주위 9,975보의 서울 성곽을 ‘京城’으로 적고, 그 아래에는 다시 ‘宮城=京城의 中央에 있다.’ ‘宗廟=京城 안 동쪽 연화방에 있다’

고 하였으며, 漢城府 산천조에서도 三角山을 京城의 鎭山이라 하고, 서울의 城郭을 京城이라 하여, 그 京城을 首都 서울 全體의 名稱처럼 적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⁷⁾

서울의 본 이름은 漢陽이고, 漢陽의 본 이름은 漢城이다. 漢城府는 본래 三國時代 北漢山郡이었다.

우리말 서울의 稱號의 淵源을 살펴보면 三國時代 新羅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즉 『三國史記』에 의하면 新羅 始祖 赫居世 王이 6府 人民들의 추대로 나라를 세우고 國號를 徐那伐이라 하였으며 『三國遺事』에 의하면 新羅 始祖 赫居世 王이 建國 후에 國號를 서나벌 또는 서벌이라 하였는데 혹은 斯羅·斯盧라 하였다³⁸⁾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특히 『三國遺事』에서는 서벌에 대하여 ‘지금 우리말로 京의 뜻을 서벌이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朱記하여 新羅 國號의 하나인 서벌은 한자 ‘京’과 같은 말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국호 서벌이 곧 新羅 首都의 名稱도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首都에 대한 一般的인 稱號와 서울특별시의 ‘서울’이라는 制度上의 名稱 역시 이 新羅 初期의 都邑地(지금 慶州)의 地名이자 國名이던 서벌 또는 서나벌·서야벌에서부터 시작하여 變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由來에 의하여 8·15 光復을 맞이하게 되자 京城府의 稱號를 전부터 一般的으로 使用되었던 ‘서울’ 또는 朝鮮時代의 稱號였던 ‘漢城’으로 呼稱하게 되었으며 光復 1週年을 맞이하는 1946年 8月 15일에 서울시 憲章을 宣布하기에 이르러 이 때부터 ‘서울’은 우리 首都의 制度上 正式 名稱으로 定해졌다.

第 2 節 歷史로 본 서울의 風水地理

1. 高麗 時代

도선의 秘記에 「繼王者李而都於漢陽」이라 하여 高麗時代부터 漢陽땅을 李氏가 나라를 세워 王이 될 곳이라 하여 이곳에 李樹를 심어 이것이 무성하여지면 伐草하여 버리고 그 氣를 없앴다고 한다.

3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 산천조.

38) 「삼국유사」 기이 제2 신라 시조 혁거세 왕.

이렇듯 漢陽 땅은 李氏의 王都로 先天的으로 運命지어져 왔다고 하는데 서울의 地脈은 咸鏡道の 安鐵嶺의 一脈이 南行하여 五六百里 楊洲땅의 萬丈石峰의 道峯山이 되고 이로부터 또 南下하여 萬鏡台가 되고 그의 한가지가 다시 南下하여 白岳을 만들었다 한다.

이러한 形勢는 風水學 木體來龍이고 貧狼星 來龍이라 불려지고 있다. 이것은 또 서울의 主山이 木星이기 때문에 李氏는 木星임으로 서울은 木星의 王이 다스릴 곳임을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

高麗의 제11대 文宗朝에 지금의 서울 地方에 南京을 設置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일찍이 風水圖識說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며 그 후 제15대 肅宗朝에 이르러 김위제가 上書하여 南京遷都를 建議한 가운데 開國 後 160년에 三角山으로 제경을 삼으면 9年만에 四海가 와서 朝會한다는 「道誥記」, 「三角山明堂記」의 內容을 引用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風水圖識說에 의한 바가 아닌가 싶다. 즉, 「道誥秘記」에 의하면 「高麗에 三京이 있으니 松都(開城)을 中京, 木覓山(서울)은 南京, 平壤은 西京인데 11月, 12月, 正月은 中京에 住하고, 3月, 4月, 5月은 南京에 住하고 7月, 8月, 9月, 10月은 西京에 住한 즉 36國이 來朝하고 또 開國 後 160餘 年이 지나서 都邑을 木覓壤(지금의 서울지방)으로 옮기라」는 귀결이 있음을 미루어 推測할 수 있을 뿐이다.

高麗 高宗朝에 이르러 高麗王朝는 蒙古軍에 의해 國土가 유린되고 江華島로 遷都를 強行하여 蒙古軍과 抗爭을 繼續하여 物質的·精神的 피해가 막심한 時機에 다시는 이러한 不幸한 事態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高宗 21년에 南京假闕 御衣安置을 하게된다. 즉 南京에 宮闕을 짓고 王이 이곳에 居處하면 國家의 運命은 가히 800년 더 延長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었다.³⁹⁾ 이 때는 高宗은 江都에 있어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던 까닭에 대신 內侍 이백전을 보내어 御衣만을 南京에 봉안하게 하였던 것이다.

高麗末에 이르러 恭愍王의 背元思想에 의거한 官制의 還元政策과 遷都計劃에 의하여 南京에의 遷都를 꾀하게 되는데 이는 開京의 地德이 이미 衰하여져서 邊防에 禍亂이 그치지 않고, 더구나 國內 政治情勢가 항상 流動的인데다가 權臣間에 對立과 軋轢이 그치지 않으므로 地德이 興한 곳인 南京으로 遷都함으로써 國家의 基業을 隆盛케 하며 또 새로운 體制 아래에서 國政을 日新해

39) 「고려사」 권23 고종 21년 7월 갑자.

보려는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饑饉과 外患 등으로 遷都는 中止되고 말았다.⁴⁰⁾

그 후 禰王 7년에 이르러 다시 遷都問題가 擡頭되어 8年 8월에 漢陽遷都를 決定하였고 9월에 禰王이 漢陽으로 移住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때에도 白州守 홍순 같은 이는 漢陽의 鎮山인 三角山이 火山이어서 木星의 나라인 高麗가 遷都하기에는 마땅치 않다고 上書하였고 또 識官들도 여러 번 中止할 것을 청하는 등 反對하는 측이 많아 遷都는 臨時的인 것으로 9年 2월에 禰王은 開京으로 還都하고 말았다.

그 후 恭讓王 2年 7月 書雲觀에서 ‘道誼秘記에 地理衰旺說이 있으니 마땅히 漢陽으로 遷都함으로써 松都의 地德을 쉬게 하여야 한다’고 上書하자, 이를 契機로 遷都問題가 다시 擡頭되어 그 해 9월에 漢陽遷都를 斷行하였으나 遷都後에도 여러 不祥事가 그치지 않아 다음해인 2월에 다시 開京으로 歸還하였다.⁴¹⁾

2. 朝鮮 初期

가. 朝鮮 太祖의 登極

朝鮮 太祖 李成桂는 高麗 王朝의 뒤를 이어 西紀 1392年 7月 17일에 開城 壽昌宮에서 卽位하여 國號를 朝鮮이라 하였다.

太祖는 卽位하여 한 달이 못되어 遷都의 敎를 내리었다 함은 實錄에 의하여 確認할 수 있다. 즉 太祖 卽位 元年 8월에 먼저 「國都를 물색하기 위해 同月 15일에 三司 右僕射 李恬을 漢陽에 派遣하여 宮室의 修葺 하게 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그러나, 때 마침 天候 寒과 또 諸般準備가 未備하였음으로 이를 곧 中止하였다.

太祖는 그 다음 權仲和를 全羅道에 보내어 國都를 特色하게 하였더니 1393年 正月 2일에 權仲和는 吉地의 山水形勢圖와 鷄龍山の 都邑 地圖를 올렸다.

太祖는 同 18일에 친히 그 地域을 調査하기 위하여 開城을 出發하여 21일에 檜巖寺에 이르러 王師 自超(無學)의 同行을 求하여 鷄龍山으로 向하였다. 2월 8일에 鷄龍山에 倒着하여 이곳에 머무르며 地形을 調査하였고 동 13일에 太祖

40) 「고려사」 권106 윤해전부 윤택전. 동 권39 공민왕 9년 정월 병진, 동 7월 신미.

41) 「고려사」 권46 공양왕 3년 2월 기미~정묘.

는 鷄龍山을 출발할 때 商議門下府使 金濤, 知中樞 朴 永忠, 前密直 崔 文夕을 當地에 머물게 하여 造營責任을 맡기었다. 同 3월에 新都에 附屬한 役徒 等を 徵發하여 鷄龍山에 集合시키고 工事進行을 꾀하였다.

이렇게 太祖가 遷都를 급히 서두른 까닭은 보통 王朝更造에 따르는 政治的인 事情보다는 차라리 어떠한 神秘的인 思想에 있었다고 解釋된다. 즉 開京은 地德衰敗의 地, 亡國의 基地를 하루라도 빨리 辟하려고 하는 陰陽地理 즉 風水的 思想에 얽매인 까닭이었다.

먼저 『太祖實錄』太祖 원년 9월 30일에 보면 ‘城 안에는 좋은 땅이 없고, 高麗 王朝의 옛 터 만한 데가 없다고 아뢰자’ 임금이 ‘망한 나라의 옛 터를 어찌 다시 쓰겠는가’라고 하였음을 보아도 추측할 수 있다.

나. 河崙과 漢陽城

원래 鷄龍山의 選定은 書雲觀의 說을 依持하였는데 當時 圖讖說의 權威者로서 알려진 京畿左右道 觀察使 河崙은 宋朝 胡舜申의 書을 인용하여 鷄龍山의 땅은 山은 乾하고 水는 巽方으로 흐르니 이는 이른바 水長生은 破局되어 衰敗에 들어 있음으로 이 地帶는 不吉하다는 主張하였다.

太祖는 말을 옮게 여기고 다시 權仲和, 鄭道傳 等에게 命하여 高麗時代 諸山陵의 基幹을 調査하여 吉凶을 點檢하였는데 사실상 河崙의 說이 附合하였다. 이리하여 급히 着手하였던 鷄龍山의 新都經營을 中止하고 다시 河崙의 主張에 依據하여 漢陽附近에 擇地를 命하였다.

『太祖實錄』 3年 2월 18일에 보면 ‘遷都할 땅을 母岳 남쪽에서 살펴보게 하였다’라 하여 지금의 서울 연희동과 신촌동 일대이니 母岳說을 主張한 사람은 河崙이었다.

그러나 漢陽을 調査하고 돌아온 者 中에는 이곳이 王都하기에 適合하나 明堂地의 地로서는 좁은 感이 있음을 啓上하였다. 그러나 河崙은 主張하기를 이곳이 오히려 開城이나 平壤에 비하여 넓어 王都로서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書雲觀員들의 反對의 意見이 紛紛하여 새로운 都邑地를 찾게 되었다. 이 같은 의논이 紛紛한 所以는 당시 風水地理學은 사람마다 所見을 各各 달리하는 까닭인데 秘錄은 역시 異同하여 正邪를 區別하기에 어려운 까닭이다.⁴²⁾

42) 박 시익, 「풍수지리설과 건축 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다. 漢陽 還都 論議

太祖는 遷都를 서둘렀으나 정도전 등은 還都尙早論을 主張하게 되었다. 그러나太祖는 高麗가 亡하게 된 것은 地德이 衰한 原因이라고 더욱 還都의 뜻을 堅固히 하였다.

그리하여 南京(지금의 서울)의 땅을 다시 친히 闕의 基地와 山河의 形勢를 觀望하고 먼저 地師 尹莘達에게 그 意見을 下問하였다.

이에尹은 곧 ‘우리나라 지경에서는 松京이 第一이요 이곳은 그 다음이오나 단지 유감된 점은 乾方(서북)이 낮고 물(소위 明堂水)이 마른 일입니다’고 하니太祖는 ‘松京인들 어찌 부족한 곳이 없겠소? 지금 이곳 지형을 보니 漕運이 통하고 거리도 고르므로 사람에게 편리한 점이 많겠소.’하며 王都되기에 足하다 생각하고 無學王師에게 또 다시 그 意見을 물으니 「이곳은 西面이 秀高하고 中央이 平衡하여 마땅히 都邑할만한 好適地입니다.」하고 無學이 對答하니太祖는 다시 諸臣을 돌아보고 이를 論議하라 하니 諸臣은太祖의 뜻이 堅固한 것을 알고 「반드시 還都하자면 이곳이 加合합니다.」라고 答上하니太祖는 기쁘게 생각하고 이곳 漢陽으로 新都를 定하였다.

이 때가 1394年 8月 13日이었는데太祖가 無學大師와 함께 올라다보는 白岳(北嶽)은 단풍에 불길이 일고 있었고 西峰(仁王)과 駱山을 바라보고 소나무 울창한 木覓山(남산)에 이어 멀리 冠岳山에도 눈길이 미쳤다고 한다.⁴³⁾

라. 漢陽 還都 3大 役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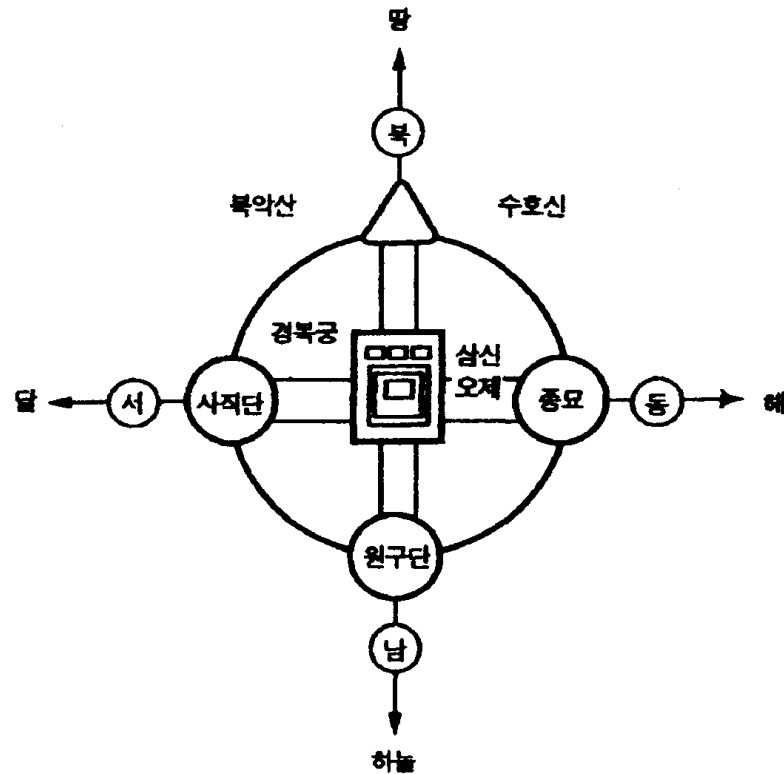
太祖 3年(1394년) 漢陽으로 還都하여 11월에 工作局을 설치하고 宗廟·宮闕·城郭의 3大 役事に 着工하게 된다.太祖는 沐浴 齋戒하고 판삼사사 삼봉 정도전에게 皇天·后土의 神에게 祭祀지내 나라의 큰 工事 일으킴을 告하게 하였다. 또 문하부 참찬 김입견을 보내 國王으로서 白岳·木覓의 山神靈과 한강·양화진 神靈이며 물귀신에게 큰 工事を 成就하고 큰 業績을 낼 수 있도록 극진히 告諭하게 했다.

1) 宗廟·社稷壇

漢陽으로 환도 후 먼저 宮闕의 位置를 정하고, 그 동쪽에 먼저 宗廟를 세

43) 임 중빈, 「조선 국왕 평전 태조 고황제」, 계명사, 2002, P. 227~243.

[그림 13] 한양의 신성 공간 : 경복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고 서쪽에는 社稷壇을 세운다. 이는 傳來의 左廟右社 配置 樣式을 그대로 따랐다.

社稷壇은 社壇과 稷壇 두 壇을 합쳐 부르는 것으로 社壇은 國土의 神을 모시는 壇을 말하고, 稷壇은 五穀의 代表를 모시는 壇을 말한다. 社壇은 동쪽에 있고, 稷壇은 서쪽에 있다.

또 景福宮 남쪽에는 하늘에 제사지내는 空間인 圓丘壇을 太宗 11年(1411)에 만들었다.

宗廟가 王家의 神位를 奉安한 나라의 祠堂이라면, 社稷壇은 國土保存과 豐年祈願의 거룩한 祭壇이 된다.

宗廟는 國家的으로 매우 重要한 일을 決定할 때 여기에 먼저 報告하고 臣下들과 議決한 뒤 施行했는데 이처럼 重要한 空間인 宗廟가 우리 나라에 처음 나타난 것은 三國 時代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新羅는 남해왕 3年(6)에 始祖墓

를 세운 것과 高句麗의 始祖 東明聖王墓는 대무신왕 3年(20)에 , 百濟의 東明王墓는 溫祚王 元年(기원전 18)에 세운 記錄을 볼 수 있다.

2) 宮闕(景福宮)

漢陽의 宮闕의 坐向을 決定하는데 鄭道傳과 無學이 서로 意見이 일치하지 않았다. 즉 鄭道傳은 당시 古今의 學理에 통한 學者로 그는 白岳을 鎮山으로 한 南向을 主張하였으나 無學은 仁旺山을 鎮山으로 하고 南山과 白岳을 左右 龍虎로 하는 坐向 즉 酉坐卯向(東向)을 主張하였다.

鄭道傳이 그의 意見을 계속 主張함에 그의 뜻대로 南向하여 配置하였다 한다. 이에 無學이 깊이 슬퍼하며 말하기를 「新羅 名僧 義相大師의 山水秘記에 의하면 都를 選擇하는 자가 僧의 말을 듣지 않으면 國運延長을 바랄 수 없고 만약 鄭氏의 사람이 나와서 是非를 벌리면 五世되지 않아서 相爭의 禍가 생기며 二百年내에 内外에 큰 亂이 있으리라 하였다.」고 하며 이로 인하여 太宗의 兄弟가 骨肉相爭을 하였고 世祖의 反正과 壬辰의 亂을 맞게 되었다고 한다.⁴⁴⁾ 景福宮은 北岳山을 中心으로 緩慢하게 내려온 平坦한 龍의 中心脈위에 壬坐丙向으로 자리잡고 있다.

漢陽은 景福宮을 中心으로 북쪽에 北岳山, 동쪽에 宗廟, 서쪽에 社稷壇, 남쪽에 圓丘壇이 四方 配置를 이루고 있어 平面上으로 景福宮이 十字의 中心에 位置하고 있다. 이 空間에서 漢陽과 朝鮮 王朝를 守護하는 가장 神聖한 空間은 北岳山이다. 北岳山은 漢陽을 守護하는 鎮山으로서 가장 上部에 位置하고 있어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이 산에 올라가 祈禱했다.

景福宮을 代表하는 가장 큰 建物은 勤政殿으로 이곳에서는 王이 臣下들에게 朝賀를 받고 國王 卽位式이나 公式 大禮를 行事하는 正殿이다.

勤政殿 平面構造는 正面, 側面 다같이 다섯 칸이고 지붕은 重層으로 基壇 위에 세워져 있다. 基壇은 2層으로 각 方位에는 12支 石像이 彫刻되어 있다.

이렇듯 勤政殿을 中心에 두고 四面이 回廊으로 둘러싸여 있는 空間配置는 韓國 古代부터 내려온 傳統 建築 樣式으로, 하느님을 崇拜하는 三神 五帝 思想에 根據한다. 四面에 있는 回廊은 東西南北의 守護神, 곧 靑龍·白虎·朱雀·玄武를 말하며, 이 四面 建物은 勤政殿까지 包含하여 다섯 方位를 이루게 된

44) 박 시익, 「전계 고려대학교 석사 논문」.

다. 그러므로 勤政殿의 空間 形態는 三神 五帝思想 가운데 五帝 思想을 象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편, 勤政殿 바로 뒤에 있는 思政殿·萬春殿·千秋殿은 三神을 象徵한다. 三神의 象徵적인 空間 形態는 天一·地一·太一로 區分한다. 中心에 있는 思政殿이 太一이 되고 동쪽에 있는 萬春殿은 陽에 해당되어 天一을 意味하고 千秋殿은 서쪽의 陰에 該當되는 地一을 意味해서 三神堂이 된다.

景福宮 안에서도 가장 韻致있는 곳은 慶會樓인데 外國 使臣 接待場所로 使用되고 科擧 試驗場 등으로 活用하였다.

慶會樓는 네모 반듯한 연못에 섬을 만들고 다시 그 섬 위에 높이 樓를 올린 獨特한 空間 形態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固有한 哲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먼저 四角形 연못 안에 있는 세 섬은 韓國 傳統思想인 三神思想을 나타내는데 慶會樓 연못의 세 섬은 곧 三神山을 象徵하고 있다.

漢陽에서 가장 重要的 空間을 三神 思想을 象徵하는 形態로 만든 理由는 漢陽이 하느님을 崇拜하는 空間이며 漢陽을 하늘의 뜻을 이어받는 地上의 天國으로 만들겠다는 建國 意志를 나타내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⁴⁵⁾

3) 城郭·城門

漢陽城 築城은 太祖 5年(1396)에 도성을 北岳山·仁王山·南山·駱山 4山稜線을 連結하여 쌓기로 決定하였다.

서울 都城 築城 當時에 太祖는 ‘城郭은 나라의 울타리로 暴惡함을 막고, 百姓을 保護하는 터전이다.’라고 敎書하였고 三峰 鄭道傳의 構想이 全적으로 反映되었다.

서울의 地勢가 東쪽과 東南쪽이 다른 쪽에 비하여 현저하게 弱하여 城壁도 地勢에 따라 쌓다 보니 西方과 南西쪽이 弱하였다.

漢陽이 東쪽의 日本에게 壬辰亂을 만나게 되었고 南面쪽의 淸國에 의하여 丙子の 亂을 맞게 되었다고 하며 또 漢陽의 東쪽은 五行上 木이 됨으로 兩木相爭한다는 五行의 理에 의하여 相剋하는 것임으로 또 南西方은 五行上 土이고 木剋土함으로 이것 또한 相剋이기 때문에 漢陽은 東쪽과 南西쪽으로부터 侵入을 막기에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45) 박 시익, 「전계서」, P. 319~327.

漢陽城에는 八大門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易의 八卦에서 비롯했다하며 門名도 風水獸勝의 뜻으로 鄭道傳에 의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4大門은 興仁之門, 敦義門, 崇禮門, 肅靖門인데 仁·義·禮·智를 되도록 살리고자 했고, 4大門 中間마다 東小門(弘和門 또는 惠化門), 光熙門(시구문)·西小門(小德門 또는 昭義門)·彰義門(紫霞門)으로 4小門을 設置하였다.

南大門은 崇禮門이라 하는데 禮는 五行으로 보면 南方(火)에 속하기 때문에 南쪽임을 나타내기 위함에서였다고 한다.

모든 문의 書體가 橫으로 되어 있는데 오직 이 崇禮門만이 縱 書體로 된 것은 冠岳山의 火山의 火氣에 대항키 위한 目的에서였으며 또 冠岳山의 戀主峰에 9개의 放火 符籙을 넣은 항아리를 묻었다고 한다.

東大門은 興仁之門이다. 仁字는 木에 속하며 또 木은 東方을 意味한다. 따라서 興仁은 東方을 반기는 뜻이 있다. 그런데 興仁門을 興仁之門이라고 하여 之字를 넣어 四字가 되었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성의 東쪽의 地脈이 낮고 따라서 城郭도 低虛한 까닭에 이 弱勢를 補하기 위하여 之字를 넣었다고 한다.

원래 之字는 玄字와 같아 來龍 즉 山脈이 左折右曲하여 오는 것을 形相的으로 나타낸 文字임으로 이 之字를 넣어 山을 쌓아 補強하는 努力을 代身하여 壓勝的으로 山脈을 文字로 바꾸어 使用한 것이다.

西大門의 名稱은 敦義門으로 義는 五行의 西쪽을 나타내는 데 太宗 13年(1413) 6月에는 藏義門과 敦義門 사이에 하나의 間門이 새로 생겼는데 이는 風水學人 崔揚善의 上書에 의하여 藏義門洞(지금의 靑雲洞) 一帶는 景福宮의 오른 팔에 該當하는 곳인즉 그 通路를 막아 地脈을 充實히 하는 것이 좋다는 意見에 따라 藏義門 通路를 閉鎖하고 그 代身 西쪽에 새 間門을 내어 西箭門이라고 하여 交通을 便利케 하였다고 한다.

다음은 世宗朝의 都城改築 當時 從前의 敦義門을 막고 조금 南쪽인 지금의 西大門 자리(新門路의 언덕)로 옮겼는데 이는 어떤 陰陽說에 起因한 것으로 보인다.

肅靖門은 北大門으로 北漢山으로 통하는 門이었으나 이 문을 열면 성내의 마을에 淫亂한 風이 增加되기 때문이라고 하여 오래 전부터 閉鎖되어 있고 열지 않았다.

또한 南大門과 水口門 사이에 開設되어 10餘 年間을 存續하던 南小門(현재 獎忠洞에서 漢南洞으로 넘어가는 고개)이 睿宗 元年에 닫힌 이유는 東洋 傳來의

陰陽地理說에 의하여 巽方을 열면 不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四大門 中心에 있는 鐘樓 名稱은 普信閣인데 가운데 글자인 信은 五行上 中心을 나타낸다. 普信閣에는 큰 鐘을 달아 인경이라 하고, 밤에 스물여덟 번, 새벽에 서른세 번을 쳐서 通行禁止와 解除를 알렸다. 이는 五常 중에서 信義가 가장 중요함을 뜻한다. 이처럼 서울 四大門과 中心 建物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모으면 ‘仁義禮智信’이 된다.

五行 思想은 三神 五帝 思想이 變化된 哲學 理論이다. 漢陽의 大門 名稱을 五行 글자로 정한 것은 朝鮮이 하느님을 崇尚하고 三神 五帝 思想을 國家 宗教 理念으로 信奉했다는 事實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느님을 崇尚하는 三神 五帝 思想은 上古 時代부터 朝鮮 時代까지 전해 내려온 民族 固有 宗教인 것이다.

當時만 해도 佛敎나 儒敎 같은 外來 宗教가 國家的인 宗教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四大門과 普信閣은 우리에게 重大한 意義를 傳達하고 있다.

[표 6] 서울 사대문과 오제 사상

사대문	명칭	오상	오행	오제	사신사
동대문	興仁之門	仁	木	동제	청룡
서대문	敦義門	義	金	서제	백호
남대문	崇禮門	禮	火	남제	주작
북대문	肅靖門	智	水	북제	현무
중앙	普信閣	信	土	황제	명당

마. 國都의 主山問題

世宗朝의 西大門 移置에 이어 15年(1433)에는 國都 主山更定 내지 新闕 創建 問題가 일어났다. 이는 무엇보다도 地理圖識의 思想史的 背景으로 인한 것이었다.

처음 太祖가 漢陽에 奠都하였을 때(太祖 3年)에는 國都의 主山을 지금의 北岳(白岳)으로 삼아 그 밑에 明堂을 求하여 新宮 즉 景福宮을 京營하였다.

高麗時代나 朝鮮 太宗時代에는 다 漢陽의 主山을 白岳으로 認定함에 異議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世宗 15年(1433)에 이르러서는 風水學人 중에 國都主山에 대하여 異說을 제기한 자가 있었다. 즉 서울의 主山은 白岳이 아니라, 지금의 昌德宮 오른

팔에 연한 主脈(지금 嘉會洞 북쪽 醉雲亭 來脈)이라 하여 가까운 昌德宮을 이곳에 옮김이 좋다 하는 新說이 崔揚善에 의해서 主唱되었다. 즉 『世宗實錄』 15年 7月 3日에 실린 崔揚善의 說 중에 ‘鄉校洞의 연한 줄기, 지금의 承文院 자리가 실로 主山이 된다’란 말이 問題의 中心點이었다.

地理書에 主山의 穴에 人家가 있으면 子孫이 衰微한다 하였으니 昌德宮을 承文院자리로 移建함이 萬世의 利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 대에 主山 更定問題를 둘러싸고 在來의 主山을 是認하는 主張과 反對하는 主張이 紛紛하자 이 때 世宗은 代言에게 말하기를 ‘地理의 論은 비록 다 믿지는 못하나 또한 閉할 수는 없는 것이다.’하고 集賢殿에서 地理를 講習게 하는 한편 重臣들로 하여금 三角山 審査의 命을 내리었다. 그리고 7月 18日에는 世宗이 친히 直接 白岳中峰에 行幸하여 三角山의 來脈을 踏查하였다.

이즈음에 領議政 黃喜 이하 鄭麟趾 등은 世宗의 命에 의하여 앞서 수차 實地를 踏查한 바와 地理圖識의 書에 의하여 新舊 兩 明堂의 優·劣을 比較 陳述하여 最終적으로 問題의 結末을 보게되는데 즉 7月 29日에 世宗에게 進啓하여 ‘國都의 大明堂은 景福宮坐地요, 濟生院坐地(桂洞·嘉會洞)는 아니므로 論者의 說을 옳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⁴⁶⁾

3. 朝鮮 中期

朝鮮 제14대 宣祖 元年(1568)으로부터 제20대 景宗 末年(1724)까지의 약 157年間을 近世의 中期로 잡는다. 이 시기는 그 以前으로부터의 오랜 太平 속에 發效된 支配階級의 政權 다툼이 드디어 黨派의 大分裂이 露骨化되고 尖銳化되어 南쪽으로는 倭寇와 그 후 北으로부터는 胡人의 大侵入으로 社會世態는 한 마디로 混亂과 矛盾, 民心의 動搖가 두드러졌던 것이다.

가. 鄭鑑錄

鄭鑑錄은 風水地理 및 陰陽五行說을 根本으로 한 一種의 豫言書로서 李氏 朝鮮의 興亡과 鄭氏가 나라를 이룰 때까지를 豫言하였다는 圖識의 一種이다. 鄭鑑錄이란 秘記가 나타난 年代는 分明치 않지만 朝鮮 中期 이후(壬辰, 丙子 亂 以後)에 一部 階級層에서 크게 믿어져 直接, 間接으로 民心을 支配하고 刺

46)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읍백년사」, 한성부시대(1) 조선전기의 사상과 신앙.

戟함이 컸다.

아무튼 漢陽에 國都를 정한 以來로 2大 外難인 壬辰·丙子亂을 겪은 서울은 크게 破壞되었다. 이와 같이 酷甚한 戰災를 입은 亂後의 社會世態는 王朝의 興亡, 戰災에 대한 不安과 恐怖, 그리고 危機意識이 民心을 支配하게 되었다. 이러한 世態 속에서 國家의 運命과 關聯된 流言蜚語가 설새없이 흐르고 있을 때 이러한 社會變動期の 時流를 타고 圖讖이 얼마나 盛行하였던가는 鄭鑑錄이 좋은 본보기였다.

『鄭鑑錄』은 地理衰運說에 立脚하여 歷代王朝의 衰亡과 易姓革命을 풀이하면서 ‘李亡鄭興’이 秘訣의 基本을 이루고 있다. 李氏 朝鮮의 先祖인 李沁과 그 代興者가 될 鄭氏의 祖上인 鄭鑑의 對話 形式으로 敍述되고 언제나 李沁이 묻고 鄭鑑은 對答하는 內容으로 構成되었다.

이 두 사람은 國內 八道를 遊覽하면서 王朝나 國運을 점친다. 그리하여 將來의 王權交替는 漢陽에 都邑한 李氏 朝鮮 500년, 다음에는 鷄龍山에 鄭氏 800년, 그 다음은 伽倻山에 趙氏 1,000년, 그리고 完山の 范氏 600년, 이러한 方式으로 展開된다. 이것을 都邑地의 風水地理說로서 따져서 說明하고 있다.

鄭鑑錄에서 李氏 朝鮮의 衰亡을 表現한 鑑訣을 보면 「彗星이 軫星 머리에 나와서 河間에 들어가고 紫微垣을 범하고 斗尾에 옮기어 斗星에 이르고 南斗에 끝마치면 大中華·小中華가 함께 亡한다.」

「필(**)(州)廣(州)간에 사람 그림자가 영원히 그치고 隋(州)唐(城)간에 流血川을 이루고 漢南百里에 鷄犬이 소리없고…」라고 한다.

壬辰·丙子亂 이후에 李氏 朝鮮 滅亡의 豫言으로 積極 利用된 鄭鑑錄은 國都의 風水地理說에 立脚하여 王朝의 運命을 地理說에 의해 卜占豫言하는 圖讖이었던 것이다.

鄭鑑錄을 비롯하여 豫言秘訣類가 科學的으로 認定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迷信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秘訣書가 民間에서는 계속 流傳되어 一種의 民俗信仰을 形成하여 亂世의인 狀況에 이르러서는 反王朝的인 批判의 手段으로, 또는 避難(逃避) 意識의 象徵으로 登場하였던 것이다. 이는 既成 社會秩序에 대한 挑戰으로 그 破壞的인 作用이 過小評價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밖에 危機意識에서 國內에 避難處로 數種의 十個勝地를 列舉하여 ‘十勝地’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一般 民衆의 心理를 支配하고 刺戟함이 실로 컸었다.

十勝地의 地名은 책마다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데 頻度수가 잦은 것부터 10個

所를 골라서 밝히면 아래와 같다.

- 一. 豊基 (慶北 영주군 豊基面) 차암 금계촌
- 二. 伽倻山 (慶南 陝川郡) 남쪽 만수동
- 三. 公州 (忠南 公州郡) 유구 마곡사이
- 四. 醴泉 (慶北 醴泉郡) 금당동 북쪽
- 五. 寧越 (江原道 寧越郡) 바로 동쪽 상류
- 六. 茂朱 무풍 (全北 茂朱郡 무풍면) 方洞
- 七. 扶安 (全北 扶安郡) 虎岩 굴아래
- 八. 雲峰 (全北 南原郡 雲峰面) 지리산 아래 동점동
- 九. 화산 (慶北 安東郡)
- 十. 報恩 (忠北 報恩郡) 속리 난중향.

나. 光海君의 交河還都說

光海君 4年 9월에 서울인 國都는 地氣가 衰하고 交河縣이 吉地라는 上疏가 李懿信이란 사람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러나 承政院에서는 李懿信의 上疏內容이 愧歎을 극한 것이라 하여 죄를 주자고 하는 上啓가 있었으나 光海君 自身이 이 交河還都說을 惑信하여 臺諫의 反對에도 不具하고 交河에 該曹堂上을 비롯한 朝臣을 보내어 새로운 都邑地를 살피도록 하였다.

그러나 他 術官과 觀象監이 交河를 踏査하고 돌아왔을 뿐, 堂上官들은 往審交河를 不從하였다. 이리하여 交河의 還都는 끝내 實行되지는 못하였다.

그 後에도 光海君은 변함없이 國都地衰說에 빠져 昌德宮에서는 端宗과 燕山君이 居處하다가 廢位되었으므로 이러한 凶宮에서는 居處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昌德宮에 移御 하지 않고 行宮에 머물기를 繼續하였다.

光海君 7年 4月 光海君 日記에 보면 「慶運行宮에는 吉氣가 있으나 昌德宮에는 會經內變이기 때문에 비록 重建하였다 하더라도 居處할 수 없다고 不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朝臣들의 계속된 移御 要求에 7年(1615) 4월에 다시 昌德宮으로 옮기었다.

다. 大院君과 景福宮 重建

景福宮은 宣祖 25年(1592) 壬辰倭亂 때에 완전히 灰燼되어 버렸다. 이로부터 270餘 年間 景福宮은 荒廢한 채로 放置되어 있었는데, 高宗 2年(1865)에 政權을 掌握한 大院君 李昰應이 王室의 尊嚴을 높이고 自己의 權勢를 國民들에게 誇示하기 위하여 景福宮 重建計劃을 發表하고 營建都監을 두어 工事に 着手하였다.

이 때 朝廷에서는 贊反의 意見이 서로 엇갈리고 百姓들의 怨聲이 높았음에도 不具하고 大院君은 重建을 強行하여 마침내 高宗 9年(1872)에 朝鮮 末期 建築・工藝・美術의 決定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의 景福宮 重建에 일단 成功하였다.

그러나 거창한 이 工事は 그 進行 過程에서부터 兩班으로부터 一般 百姓에 이르기까지 거의 全體 國民의 怨望의 對象이 되었으므로 끝내 經濟的인 破綻을 招來하여 大院君 政權의 沒落을 自招하는 結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近世朝鮮政鑑』의 著者인 朴齊炯은 大院君이 風水地理說을 믿었다는 여러 가지 事例를 그 著書에 技術하고 있다. 그 內容 중 一部를 보면 景福宮이 옛부터 자주 火災를 당한 것은 모두가 冠岳山이 불(火)의 形體임에도 不具하고 그것을 案山으로 삼은 데에 緣由한다고 하여, 大院君은 흰 돌로써 물짐승 形相인 해태 石像을 彫刻하여 宮 앞 양쪽에다 두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 책에 의하면 冠岳山 꼭대기에다 우물을 파고 구리로 만든 龍을 그 우물에다 넣어서 火氣를 鎮壓하였다는 것이다.

第 3 節 서울 立地와 風水地理 理論

1. 서울의 立地

서울은 北에 白岳(지금의 北岳), 南에 南山, 西에 仁王山, 東에 駱駝山이 둘러싸여 있고 漢江의 물은 城밖에 東南一帶를 돌아서 西海로 흘러가는 形勝地이다.

北方에는 北岳은 江原道の 分水嶺으로부터 出發한 脈이 漢陽(현 서울북쪽) 西南에 道峯山을 이루웠고 그 餘脈이 突出하여 山脈을 이루워 白雲, 國望, 仁壽의 三角山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三角山은 그 높이가 836m로 北漢山・華山이라고도 불려진다.

國望峯은 萬景台라고도 하는데 이 산 위에 오르면 萬景이 저절로 환하게 보이

게 되기 때문이며, 國望이라 부르게 된 것은 일찍이 太祖가 無學으로 하여금 國都할 터를 찾도록 할 때 無學이 이곳에 올라서서 國都의 땅을 살펴보았다고 하여 國望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仁壽峯은 白雲의 東쪽에 있어서 「仁者樂山」「仁者壽」라는 뜻에서 仁壽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北岳山은 높이 342m로 三角山의 南쪽에 있어서 高麗時代에는 面岳이라 하였고 三角山 萬景台의 支脈이 突出하여 이 산을 이뤘 마치 모란꽃이 장차 필려고 하는 狀態라고 하여 서울의 鎮山이고 이 산 기슭에 宮闕의 터를 잡았다. 또 서울의 南쪽 가까이에 南山이 있어서 높이는 265m이고 木覓山이라고도 불리어 졌었다. 이 南山의 最高峯을 蠶頭라하고 이 南山이 서울의 案山이 된다.

2. 서울의 風水地理

서울의 터는 山과 水에 있어서 큰 明堂을 이루고 있음을 東國餘地勝覽 에 「京都背負華山, 面對漢水, 形勢甲天下」(서울땅이 뒤에는 華山이 있고 앞에는 漢江이 있어서 그 形이 天下에 第一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서울은 風水的으로 보아 國都로서 가장 適合하여 古來로 王朝를 세운 자는 이곳을 한편 두려워 하게 되었고 한편 이곳의 主人이 되고자 하였다.⁴⁷⁾

太祖 이성계는 風水地理 원칙에 따라 首都를 開城에서 漢陽으로 옮겼다. 都邑地뿐만 아니라, 景福宮이나 昌德宮 등 王宮의 位置도 모두 風水地理 原則에 따라 明堂을 찾아 定했다. 朝鮮이 이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오랜 歷史를 維持한 것은 明堂에 터를 잡았기 때문이다.

서울이 明堂이라는 事實은 太祖 이성계가 서울을 首都로 정한 뒤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人口 1000萬 명이 넘는 世界的인 大都市로 發展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서울의 立地는 철저하게 風水地理 理論을 適用하였음을 確認할 수 있는데 서울은 ‘風水的 計劃都市’인 셈이다.

가. 산과 서울의 地勢

47) 박 시익, 「전계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서울의 地勢는 白雲臺·仁壽峰·萬丈峰이 있어 三角山이라 부르는 北漢山을 主山으로 한다. 이 기운이 다시 南쪽으로 내려와 普賢峰으로 이어지며, 普賢峰은 다시 南쪽으로 기운을 보내 北岳山으로 이어져 서울 一帶를 明堂으로 만들고 있다.

서울의 地勢에서 볼 때 왼쪽 駱山(125m)은 靑龍, 오른쪽 仁王山(338m)은 白虎, 앞쪽 南山(265m)은 朱雀, 뒤쪽 北岳山(342m)은 玄武를 이루어 이른바 內四山으로 둘러싸인 盆地로써 明堂을 構成하고 있다.

이는 代表的인 4山 圓形 地勢로 世界的인 明堂을 이루고 있는데 서울이 人口가 많이 모이고 經濟力이 密集되며, 政治나 文化 등 모든 면에서 中心을 이루는 것은 地勢가 明堂을 이루기 때문이다.

오늘의 서울은 이 보다 훨씬 넓은 地域을 차지하는데, 대체로 北쪽의 北漢山, 西쪽의 德陽山(幸州, 125m), 남쪽의 冠岳山(829m), 동쪽의 龍馬山(348m)의 이른바 外四山으로 둘러싸인 약 627km² 넓은 地域을 말하게 되었다.

1) 산의 品格과 體形

산은 저마다 고유한 기운을 갖고 있는데 서울의 三角山은 高麗 首都였던 開城에서 보면 멀리 있는 背反格인 산이다. 이로 인해 高麗는 그 기운을 받고 亡한 代表的인 경우다.

開城을 都邑地로 정한 사람은 風水地理에 능한 道詵이었는데 開城은 松嶽山을 主山으로 해서 左靑龍·右白虎·前朱雀이 모두 뻗어나게 아름답고, 藏風과 得水에 의해 강력한 生氣를 이루고 있는 天下의 明堂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開城의 南쪽 멀리 서울의 鎭山인 三角山이 보이는데 이 三角山은 아이를 업고 南쪽 서울을 향해 도망가는 背反者의 形態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안개가 끼여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실수를 뒤에 後悔하였다고 한다.

뒷날 高麗는 이성계에 의해 王權이 바뀌었으며 首都도 漢陽으로 變更되었다.

2) 산의 五行

산의 기운을 陰陽 五行說에 따라 區分하면 景福宮과 靑瓦臺의 主山이 되는 北岳山은 木山이자 文筆峰의 代表的인 形態이다.

北岳山은 左右 均衡을 이루면서 中心 部分이 반듯하게 솟아있어 피라미드 같

[그림 14] 서울의 북악산 전경



[그림 15] 서울의 인왕산 전경



이 安定感이 있는 마치 갓 피어나는 꽃봉오리와 같다.

산의 傾斜面은 水平面으로부터 약 50度を 이루고 있으며 全體的으로 曲線을 이루고 있어 直線보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彈力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산은 기운이 모여 있는 좋은 산으로 본다.

이러한 影響으로 北岳山에서 내려온 龍을 따라 位置한 北村마을(현재의 嘉會洞·三清洞·安國洞 一帶)은 代表的인 明堂자리로 監查院 등 政府의 主要 機關들이 位置해 있으며 윤보선 前 大統領, 日帝 時代 화신 百貨店主 박홍식, 現代그룹 創業主 고 정주영, 東亞日報 김상만 會長, 김활란 前 이화여자대학교 總長 등 政界, 學界, 財界의 主要 인사들이 많이 살았다.

韓國의 名門인 舊 京畿高(現 정독 圖書館)·덕성 女子 中高等學校·中央 高等學校·휘문 高等學校·창덕 女子 中高等學校 등이 位置하여 수많은 人才들을 排出한 것도 文筆峰인 北岳山의 影響에 의한 것이다.

仁王山은 全體的으로 큰 바가지 形態의 바위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代表的인 金山이다. 仁王山은 強力한 기운을 갖고 있어서 예로부터 王氣를 갖고 있다고 전해지며, 이러한 王氣에 의해 朝鮮 初 無學 大師는 仁王山을 主山으로 하여 景福宮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主張했다고 한다.

仁王山의 形態를 上部와 下部로 區分하여 分析하면 上部는 圓形의 돔 構造에 該當한다. 돔 構造는 石窟庵의 천장과 같은 形態이며, 下部는 돔을 아래에서 받쳐 주는 形態로 역시 生氣가 많은 산으로 본다.

反面, 서울의 朝山인 冠岳山은 火山의 代表的인 形態로 朝鮮 時代에 서울을 首都로 정한 이후 冠岳山의 影響으로 큰 화재가 자주 發生하자 光化門 앞에 해태 石像을 세워 그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朝山이 正面으로 마주 보고 있을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도 案山과 같은 影響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風水地理的으로 朝鮮 初期에 宮基를 정하는데 冠岳山을 正南으로 하면 宮城을 威壓하며 國家가 便安치 않다는 無學의 主張과 南面하여도 漢江이 있어 無妨하다는 鄭道傳의 主張이 兩立되었음은 有名한 事實이다.

또 산중 도처에 溜池 같은 흔적이 많음도 冠岳山의 火氣를 누르기 위하여 만들었다.

서울의 案山인 南山은 水山의 形態인데 水山은 산 頂上部가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가운데 부분이 잘록해서 마치 말 잔등과 같은 形態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形態는 산의 기운이 中心에 모여 있지 않고 左右로 分散되어 있다.

나. 龍과 서울의 地勢

모든 明堂은 산의 앞면에 자리잡고 있다. 四神砂 앞과 뒤의 境界線은 稜線을 基準으로 해서 明堂 쪽이 앞이 되고, 그 反對쪽은 뒤가 된다.

四神砂 뒷면은 明堂이 되지 못한다. 解放 直後, 混亂한 政治 狀況 속에서 이승만 博士는 駱山 앞 梨花莊에 살고 있다가 大統領이 되었고, 김구 先生은 白虎인 仁王山 줄기 뒷면에 位置한 京橋莊에 살다가 暗殺 당했다. 또 京橋莊 바로 옆은 이기붕과 그의 家族이 살다가 沒殺당한 터다.

서울 新堂洞은 南山의 脈이 獎忠體育館을 지나 淸溪川을 향해 내려가는 稜線을 中心으로 자리잡고 있어서 明堂에 속하여 박정희 前 大統領을 비롯해, 삼성그룹 設立者인 故 이병철 會長 같은 有名 人士들이 많이 살았다.

그렇지만 같은 新堂洞이라도 龍의 뒷면에 位置한 곳은 生氣가 없고 凶한 바람이 불며, 흉흉한 소리가 들려 凶家가 된다. 얼마 전에 아버지를 殺害한 大學敎授가 살던 곳이 바로 新堂洞의 龍의 뒷면에 位置한 곳이었다.

南山의 龍의 뒷면에 位置하여 繁昌하지 못하고 亡한 경우는 國際 商社, 대우 그룹, 울산 그룹 등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反面에 삼성 그룹이나 現代 그룹의 社屋들은 모두 4大門 안인 龍의 앞면에 자리 잡고 있어 對照的이라 할 수 있다.

다. 서울의 土質

土質에는 白土·진흙·모래 등 여러 種類가 있는데 住宅地로서 가장 理想的인 土質는 白土 또는 마사토이다.

서울 시내 土質은 大部分 白土로 構成되어 있다는 점이 特徵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서울 하늘에는 언제나 밝은 빛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서울 土質 自體에서 밝은 빛을 發散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옛날 地名인 ‘漢陽’은 크게 빛난다는 뜻으로 土質의 影響으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사람들은 과천에서부터 겁을 먹고 기어왔다고 하는데 과천에서 서울 하늘을 쳐다보면 밝은 빛이 가득 차 있어 것처럼 밝은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公害로 인하여 瑞氣를 볼 수 없게 되었다.

라. 물과 서울의 地勢

1) 淸溪川

서울 시내를 貫通하며 흐르는 淸溪川은 서울의 西쪽에 있는 仁王山에서 始作된 물이 北쪽에 있는 北岳山の 물과 合流해서 東쪽의 駱山과 南쪽의 南山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 漢陽大學校 앞에서 漢江에 合流된 뒤에야 비로소 西쪽으로 흐른다. 이처럼 淸溪川이 東쪽의 駱山을 지나 東쪽으로 흐르는 過程이 바로 逆水다.

서울의 中心인 景福宮을 基準으로 본다면, 駱山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脈을 連結하고 淸溪川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흘러 산과 물의 方向이 反對가 된다. 서울의 地勢가 世界的인 明堂이 되는 것은 바로 淸溪川의 逆水에 있다.

서울 淸溪川 7街에는 朝鮮 時代 때 세운 水口門이 있는데 이 門은 南山의 끝部分인 新堂洞과 서울의 中心地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淸溪川이 만나는 자리로, 風水地理 차원에서 水口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水口門의 位置는 淸溪川이 서울의 靑龍인 駱山の 끝 부분을 빠져나가는 地點과도 一致한다. 水口門 周邊에 案山과 靑龍이 同時에 좁은 水口를 이름으로써 서울을 明堂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2) 漢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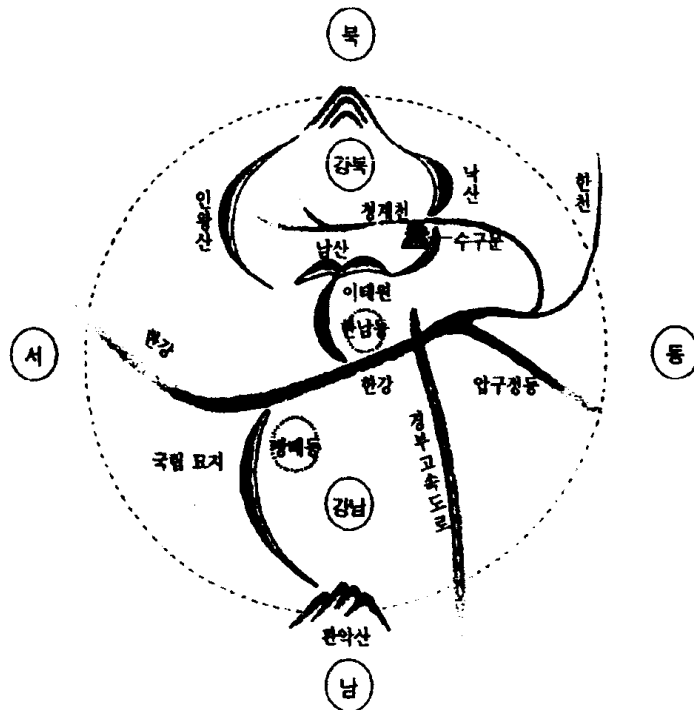
淸溪川이 奠都 當時의 서울의 中心部를 흐르고 있는데 대하여 漢江은 지금의 서울의 中心部를 흐르고 있다.

江原道 三陟郡에서 發源한 南漢江과 金剛山에서 發源한 北漢江은 兩水里 附近에서 서로 합쳐 팔당을 지나 龍山の 南쪽을 흘러 西海로 들어간다.

中·下流는 比較的 流速이 緩慢하여, 河道 變遷과 堆積作用이 심하여 河床이 높아져 가고 있다. 약 300年 前 이중환은 그의 著書 『擇里志』에서 江原道 地方을 旅行한 經驗으로 ‘洪水가 나고 산이 무너져서 漢江으로 흘러 들어와서 漢江의 깊이가 점점 얕게 된다.’고 豫言하고 있다.

서울은 漢江의 下流의 兩岸部를 차지하고 있는데 漢江에서 工業用水, 上水源으로 利用하고 있다. 이 漢江은 歷史的으로 帶水, 阿利水, 郁利河 등으로 불렸고 百濟에서는 漢水라고 하였는데, 이 이름이 오늘까지 使用되어 왔다.

[그림 16] 서울의 지세 : 사신사와 청계천의 역수로 명당을 이루고 있다.⁴⁸⁾



특히, 中·下流의 兩岸은 百濟의 根據地로서 하북·하남 위례성이 있었고, 後에 高句麗, 新羅가 차례로 차지하였는데 漢江流域을 차지한 新羅가 三國을 統一하게 되는 韓半島의 要地이다.

오늘날에 와서도 서울이 政治·文化·經濟의 中心地가 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風水地理에서 理想的인 물의 形態를 ‘弓水’라고 하는데, 활의 둥근 모양이나 굽이쳐 돌아가는 形態에서 曲線 中心의 안쪽을 말한다.

서울의 地勢에서 보면 漢江이 서울 南쪽을 通過할 때는 굽이굽이 돌아 마치 활과 같은 形態를 이루지만 汝矣島에서 江華까지는 直線으로 흐른다.

방배동의 이른바 카페 골목은 漢江 周邊 다른 地域보다 商圈이 發達한 곳인데 이곳의 地勢를 보면 漢江이 北쪽에 位置해서 東쪽에서 西쪽으로 흐른다. 방배동 앞면에서 볼 때 한강이 흘러 내려가는 西쪽 끝에는 國立 墓地 산이 漢江이

48) 박 시익, 「전계서」, P. 103.

흘러오는 東쪽 앞으로 向하고 있어 이 산은 漢江이 흐르는 方向에서 逆水해서 水口를 좁게 만들어 주고 있어 明堂을 이루고 있다.

3. 서울의 有名한 明堂과 凶家

서울의 地勢가 世界的인 明堂이 된 것은 4大門을 中心으로 北쪽의 北岳山, 東쪽의 駱山, 西쪽의 仁王山, 南쪽의 南山 등 四神砂가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4산 圓形地勢와 淸溪川의 逆水가 어우러져 만든 터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最高 明堂은 景福宮을 비롯한 昌德宮·昌慶宮 등 宮闕터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의 明堂에 자리잡고 있는 곳과 代表的인 凶家は 다음과 같다.

가. 朝鮮 總督 官邸 (靑瓦臺)

朝鮮 總督 官邸는 主峰이 景福宮을 향해 내려가는 來龍의 中心 部分에 자리 잡고 있어 다른 건물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位置하고 있었다. 正四角形 2層 構造의 平面 形態로 建設 當時에는 西向집으로 配置되었으나 여러 차례 増築 工事を 거치면서 南西向의 形態로 바뀌었다.

朝鮮 總督 官邸는 1937년에 着工되어 2年 뒤에 完工하여 日本 總督 館舍 및 執務室로 使用되었다. 미나미 지로·고이소 구니아키·아베 노부유키 總督이 이곳에서 살았으며, 解放 뒤 하지 軍政廳 長官 執務室로 利用했다.

政府 樹立 後에는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 前 大統領들의 官邸와 執務室로 利用되었으나 1991년에 새 建物を 지어 옮기고 1993年 撤去되어 공터로 남아 있다.

이 곳은 居住했던 總督이나 大統領들의 말로가 좋지 않아 이 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 神들이 사는 땅이라 하여 神祠를 지어야 마땅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곳은 住處가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 수 있는 곳, 留處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⁴⁹⁾

歷史적으로도 朝鮮 太祖 4年(1395년) 12월에 漢陽 周邊 百姓의 要求에 따라 ‘白岳山神’을 鎮國伯으로 삼아 國家에서 祭祀를 받들게 하니 그 祠堂을 ‘白岳神祠’라 하고 그 神祠가 있는 산을 白岳이라 했던 것이다.

49) 김 두규, 「우리 땅 우리 풍수」, 동학사, 1998, P. 410~411.

소문에 의하면 日帝 當時 總督 官邸를 세우기 앞서 韓國人 地官에게 館舍 터를 물색하라고 했는데 이 地官이 일부러 北岳山의 龍脈에서 약간 비켜난 곳에 敷地를 잡음으로써 朝鮮을 統治한 總督들이 망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靑瓦臺 새 建物은 北岳山 頂上 - 景福宮 - 光化門 - 冠岳山을 향하는 正南軸 線上의 海拔 70미터 地點에 세워져 있어 風水적으로 자리를 따져 建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反面에 이곳은 日帝가 그 기를 꺾기 위해 애쓸 정도로 明堂이었다는 점을 들어 역시 天下의 明堂이라고 하는 意見도 있다. 明堂인 靑瓦臺 터와 歷代 大統領의 불운은 別個의 問題로 다만 사람이 問題였을 뿐이라고 한다.

나. 尹普善 前 大統領의 집

서울 鐘路區 安國洞 8番地는 高麗 末 忠臣 鄭夢周 生家 터와 朝鮮時代 맹사성 大監 집이 近處에 있었던 예로부터 兩班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

이 집은 1800年쯤 當時 權力層에 있던 閔 모 大監이 築造한 후 開化論者인 박영효가 살다가, 윤보선 前 大統領의 先親이신 윤치소 씨가 買入해 살기 시작했다.

이 집은 北漢山의 큰 힘을 받은 말봉우리가 서울 市內를 향해 뻗어 내려가는 生龍의 中心에 位置하고 있다. 강한 龍은 強力한 推進力을 意味하며 長龍은 生龍의 中心에 位置하고 있다. 강한 龍은 強力한 推進力을 意味하며 長龍은 오랜 發福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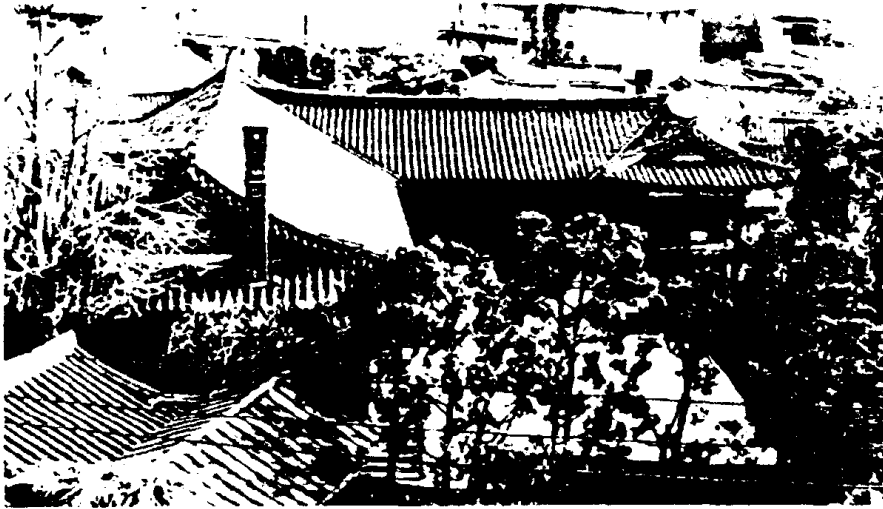
이 집 마당에 서면 白虎인 北岳山이 매우 가깝게 솟아 집을 훤히 내려다보고 있는데 北岳山은 主山인 동시에 白虎의 役割을 하고 있다. 北岳山은 그 形態가 아름답고 強體의 木山으로 文筆峰을 이루고 있어서 선비의 志操와 中心 思想을 갖게 하고, 아름다운 人格을 만들어 준다.

윤 前 大統領이 政治家로 成功하고 退任 後에도 조용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 龍의 生氣에 힘입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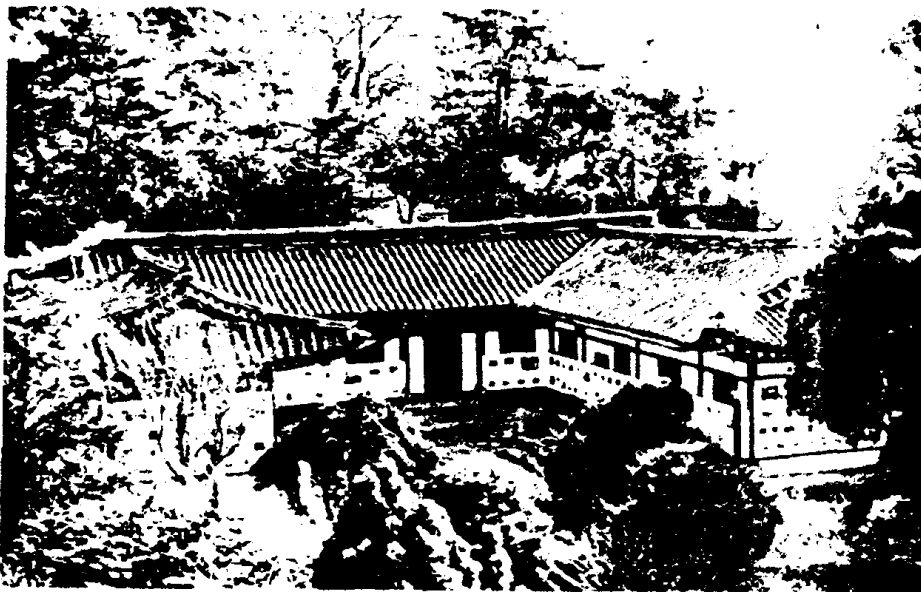
다. 梨花莊

서울 鐘路區 梨花洞에 있는 梨花莊은 예전에 朝鮮時代의 麟坪大君이 살았던

[그림 17] 서울 안국동에 위치한 윤보선 전대통령의 집



[그림 18] 서울 이화동에 위치한 이화장



곳으로 이승만 前 大統領이 景武臺로 옮기기 전까지 살던 곳이다.

梨花莊은 駱山의 主峰에서 西쪽으로 뻗어 내린 龍 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駱山은 산세가 힘차고 端整하며, 서울의 明堂水인 淸溪川이 逆水가 되어 生氣를 이룬 곳이다.

이 곳은 서울 南山이 靑龍, 北岳山인 白虎, 仁王山이 案山으로서 四神砂가 고루 갖추어진 地勢를 이루고 있다. 가장 重要的 役割을 하는 산은 文筆峰 形態를 이루고 있는 北岳山인데, 北岳山은 白虎이면서 案山과 같은 役割을 하며 梨花莊을 향해 마주 보고 있어 明堂을 이룬다.

라. 京橋莊과 이기붕의 집

서울 鐘路區 平洞 108番地에 位置한 京橋莊(現 강북삼성병원)은 김 구 先生이 살고 계시다가 暗殺을 당했던 곳이다.

이 곳은 仁王山 줄기 위에 자리잡고 있는데 서울의 白虎인 仁王山の 龍 中心線 밖에 位置하여 산 뒷면에 자리잡고 있다.

風水로 보아 산 앞면은 生氣가 모이고, 白虎의 좋은 기운을 받지만 산 뒷면은 生氣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곳에서 歷史的으로 不幸한 事件이 일어난 것은 龍 밖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京橋莊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기붕 前 副統領 집(현 4·19 도서관)도 仁王山 稜線을 완전히 벗어난 白虎 뒷면에 자리잡고 있어서 自由黨 末期 不正 選舉의 責任者로 輿論의 화살을 받았던 그는 결국 자기 아들인 이강석의 손에 온 家族이 죽고 말았다.

마. 開運寺

서울 城北區 安岩洞 5街 157番地에 자리한 開運寺는 한때 曹溪宗 總務院 간판이 걸릴 만큼 寺勢가 크고 人脈이 뛰어난 寺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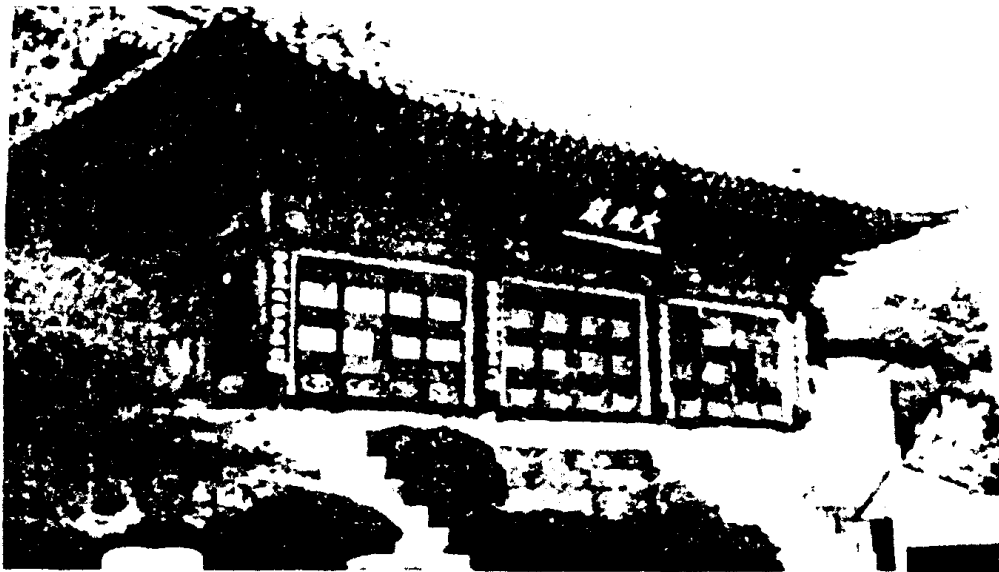
이 곳은 정인보·최남선·오세창 등 當代의 젊은 碩學을 많이 排出한 곳이며 탄허 스님이 柱石하면서 譯經과 後學 指導에 專念하기도 한 곳이다.

開運寺의 主山은 開運山으로 土星을 이루고 그 자리는 乳穴인데, 全體 形相은 伏虎形으로 호랑이가 두 다리를 펴고 엮드려 먹이를 노려보며 기다리는 形局이라고 할 수 있다.

開運寺 入首龍은 巖盤을 들어내고, 左靑龍이 힘차게 늘어져서 安岩골을 휘감

으며 高麗大를 거느리고, 왼편으로 이어져 案山이 되어 一石二鳥의 役割을 하면서 高麗大 建物이 큰 姿態를 보였다. 右白虎도 힘차게 뻗어서 그 끝 부분에는 高麗大病院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19] 서울 안암동에 위치한 개운사



第 6 章 結 論

이제까지 韓國의 傳統的 空間觀과 時間觀인 風水地理 理論을 土臺로 住居立地와의 關係를 研究하였다.

研究 結果 風水地理 理論은 우리 祖上들을 비롯한 東洋人들의 生活에 絶對的인 影響力을 行事한 地理觀이며 經驗 科學的 學問임을 알 수 있었다.

風水地理 理論은 自然的 要素인 地形, 바람, 물길, 景觀 등을 陰陽 五行論에 의해 觀察하여 사람에게 미치는 影響을 把握하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을 生活에 利用하려는 自然的 智慧이다.

즉, 一國의 首都를 定하고 宮闕터, 집터를 잡고 建物을 配置하는 것 하나 하나에 모두 風水 地理的 思考에 의해 세워지고 配置된 것이다.

우리 祖上들은 住居 立地를 定함에 있어서 風水地理 理論에 따라 地形과 물, 바람(공기)의 狀態를 把握하여 이 條件들에 맞는 環境에서 生活함으로써 人間의 最大 目標인 健康하고 安樂한 生活의 幸福을 追求하였던 것이다.

본 研究 結果 風水地理 理論이 現代的 住居 立地論的 分析面에서 妥當한 部分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說明할 수 있다.

1) 風水地理 理論은 三神 五帝 思想을 바탕에 두고 있는데 예로부터 三神은 生命體를 分解하는 調和의 힘을 갖고 있고, 五帝는 하느님의 作用을 도와주는 다섯 神으로 각각 다른 機能을 갖고 있다고 믿어왔다.

이러한 三神 五帝 思想은 우리 民族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一種의 信仰으로 자리잡아 여기에 바탕을 둔 風水地理 理論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 사는 터를 정함으로써 精神的인 慰安과 希望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信仰生活을 통하여 마음의 慰安을 얻어 幸福하게 살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死後의 世界가 있다고 믿는 것과 같은 脈絡으로 理解할 수 있다.

2) 人間뿐만 아니라 모든 動植物이 땅의 地氣를 받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高層 아파트의 植物이 잘 자라지 않고 妊産婦가 流産率이 높다는 醫學的 報告에서도 確認되고 있다.

땅이 地磁氣를 發散하고 성스런 힘인 地靈이 있다는 것은 外國學者들의 研究

에 의해서도 잘 알려진 事實이다.

이러한 氣를 空間적으로 把握하여 땅 속에 흐르는 氣를 살펴 살자는 생각에서 體系화된 思想과 理論이 風水地理 理論이기 때문에 風水地理 理論을 適用하여 住居 立地를 정하는 것은 自然과의 調和에서 幸福을 追求하는 生態學과 같은 脈絡으로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3) 植物이 土質에 의해 成長이나 結實 內容이 달라지듯 사람의 體質이나 마음도 自身이 태어나고 成長한 土質의 기운에 따라 그 影響이 다르다.

土質이 무력하여 밟으면 푹푹 꺼지는 죽은 땅이나 濕氣가 많은 土質에서 植物이 成長할 수 없듯이 사람도 이러한 곳에서는 健康하게 살 수 없다.

風水地理 理論에서는 여러 種類의 土質에서 白土 또는 磨砂土가 理想的인 土質이라고 하는데 이런 土質은 排水가 적당히 이루어져 陰濕하지 않고 適當한 濕度를 含有하고 있어 快適한 環境을 造成해 주리라는 것을 쉽게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4) 風水地理에서는 左靑龍·右白虎·前朱雀·後玄武의 四神砂를 살피는 것으로 明堂을 잡는데 이는 四神砂가 四面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을 막아주어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太陽과 달의 빛을 反射시켜 빛을 들관으로 모아 따뜻하게 해 주어 生氣가 모이기 때문이다.

造景學的 觀點에서 살펴보면 都市를 감싸고 있는 四神砂의 存在는 自然的인 公園을 形成하고, 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은 酸素를 生産할 뿐 아니라 炭酸가스를 吸收하여 大氣를 淨化시켜 快適한 環境을 造成해 주는 役割을 擔當하고 있다.

또한 산의 形體가 中心이 安定되고 左右 均衡을 이루어 있고 푸른 숲이 가득한 산은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都市民에게 心理的 安定感和 便安함을 주고 있다.

5) 風水地理 理論에서는 모든 明堂은 산의 앞쪽에만 있다고 한다. 이는 龍의 뒷면에 위치한 곳은 生氣가 없고 흉한 바람이 불며 흉흉한 소리가 들려 凶家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옛날 마을들이 크고 작은 산 앞쪽에 있어 산을 背景으로 마을이 形成되어 있는 반면, 산 뒤로는 마을이 形成되어 있지 않음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산 앞쪽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發展하였으나 산 뒤쪽에 살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곳을 떠났기 때문으로 그 合理性에 대

한 檢證은 歷史를 통해 이루어진 經驗科學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산의 뒤흘은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없고 바람을 막을 수 없어 항상 陰濕하여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음에도 都市의 人口 集中으로 인한 住宅 不足으로 低所得層이 密集하여 살고 있는 傾向이 많음은 안타까운 現實이다.

6) 風水에서는 물의 性格을 分析하는 方法으로 물의 規模, 흐름의 狀態, 水質, 물이 흐르는 方位 등을 살핀다.

물의 規模에 있어 큰 江이나 바닷가에는 明堂이 形成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實際로 이러한 곳에서는 물에서 생기는 水蒸氣가 空氣 중에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세차게 불어 사람이 사는데 適當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이 흐르는 狀態에서는 물이 直線으로 흐르지 않고 활처럼 굽이쳐 흐르는 곳이 明堂 形成 條件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의 자체 淨化能力을 보거나 汚物을 처리하는 機能面을 보더라도 直線으로 흐르는 강보다는 넓은 地域을 감아 돌면서 굽이쳐 흐르는 물이 좋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다.

水質 또한 맑고 깨끗하여야 食水 등 各種 生活 用水로 使用하는데 適當할 것이며, 물이 逆水로 흐른다는 것은 洪水 시에 住居地의 侵水를 防止할 수 있는데 이는 물이 時間的인 餘裕를 가지고 흘러 나갈 수 있고 河床 面積面에서 直水로 흐르는 것보다 有利하기 때문이다.

7) 風水地理 理論에서는 生氣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陽基에서는 空氣·햇빛·溫度·물 같이 땅 밖의 生命 기운에 感應받으니 올바른 坐向으로 完成된다고 본다.

地表面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힘이 흐르고 있는데 바다에서와 마찬가지로 땅 위에도 暖流와 寒流의 기운이 흐르는 것이다.

人體에도 動脈과 靜脈에 서로 다른 피가 흐르는 것과 같은 脈絡으로 方位에 따른 기가 混入되지 않고 相生하는 기가 서로 만나야 좋다고 하는 共感帶가 傳統的으로 形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正體가 實體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앞으로의 課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祖上들의 슬기로운 智慧를 無分別하게 導入된 西歐 文明과 物質萬能主義에 의해 無條件적으로 排斥되고 打破해야 할 對象으로 여기고 風水地理 理論의 所重한 價値를 認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朝鮮後期와 日帝 強占期, 近代의 混亂期를 거치면서 民間 信仰과 連結되어 迷信的 要素가 가미되고 일부 風水論者들의 任意的 解釋과 術法 등으로 인하여 否定的 側面이 적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內容面에 있어서도 氣의 實體와 同氣感應, 發福 등과 같은 神秘主義的 要素를 現代的으로 새롭게 解釋해 내지 못한 狀態다.

그러나, 이와 같은 弊害는 風水地理 理論의 根本的 原理보다 術數的인 側面이 強調된 結果로 風水地理 理論이 가지는 生態的 自然觀과 情緒的 空間觀은 現代 住居 立地의 問題解決을 위한 代案으로서의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風水地理 理論은 住居 立地 選定에 活用할 수 있는 實用的인 學問이 될 수 있도록 보다 體系的인 學問的 研究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學問的 研究는 몇몇 뜻 있는 學者들에 의해 個別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現實에서 벗어나 政府나 研究團體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風水地理 理論은 現代의 宅地開發이 開發爲主의 方法論으로 인해 갈수록 深刻해지는 自然과 國土 破壞 等 環境 問題를 克服할 수 있는 住居 立地 方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提示했다는 데 본 研究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朴 時翼, 「韓國의 風水地理와 建築」, 圖書出版 일빛, 1999.
2. 林 鶴燮, 「傳統 風水地理」, 明文堂, 1993.
3. 임 중빈, 「朝鮮 國王 評傳」, 啓明社, 2002.
4. 김 두규, 「우리땅 우리 風水」, 東學社, 1998.
5. 崔 昌祚, 「韓國의 風水思想」, 民音社, 1989.
6. 崔 昌祚, 「땅의 論理 人間의 論理」, 民音社, 1992.
7. 이 익성 譯, 「擇里志」, 을유문화사, 2002.
8. 申 坪 譯, 「地理五訣」, 東學社, 1993.
9. 韓 松溪 譯, 「風水地理 明堂全書」, 明文堂, 1994.
10. 崔 昌祚 譯, 「靑鳥經·錦囊經」, 民音社, 2001.
11. 김 두규 譯, 「胡舜申의 地理新法」, 圖書出版 장락, 2001.
12. 김 두규 譯, 「名山論」, 比峰出版社, 2002.
13. 朴 時翼, 風水地理說과 建築 計劃과의 關係에 관한 分析 研究, 高麗大學校 碩士學位 論文
14. 朴 時翼, 風水地理說의 發生背景에 관한 分析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87.

現地 踏査한 곳의 一覽表

1. 서울 景福宮, 昌德宮, 昌慶宮, 慶熙宮, 德壽宮.
2. 서울 宗廟, 社稷壇, 銅雀洞 國立墓地.
3. 서울 城郭, 北漢山城, 東大門, 南大門, 肅靖門, 水口門, 惠化門, 弘智門.
4. 서울 安國洞, 嘉會洞, 平洞, 母岳洞, 三清洞, 厚岩洞, 安岩洞, 梨花洞.
5. 서울 北岳山, 仁王山, 駱山, 南山, 冠岳山, 北漢山, 道峰山.
6. 忠南 牙山 尹普善 前 大統領 生家, 先塋.
7. 忠南 牙山 顯忠祠, 李 忠武公 墓所.
8. 忠南 牙山 外岩里 民俗마을(禮安 李氏 이간 先生 古宅).
9. 忠南 牙山 松岳面 孟思誠 生家(崔瑩 將軍 生家).
10. 忠南 禮山郡 南廷君 墓(홍선 大院君 先親 墓).
11. 忠南 禮山郡 秋史 金正喜 生家.
12. 忠南 禮山郡 德山面 修德寺.
13. 京畿 九里市 仁昌洞 東九陵.

ABSTRACT

A study on relation to Feng-Shui Ji-Ri theory and location theory of the residence

- Focus in seoul -

Kang, Hyun-Goo

Major in Real Estate

Department of Real Estat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It is very clear that the Feng-Shui Ji-Ri was one of the most major theories of constructing villages, when we look around the location of our villages or cities, at these days.

Not only it has much effected to environmental culture of our history, also we can find many records that it was most important point when the city was constructed.

The Feng-Shui Ji-Ri can be pointed out that it is effected by the theory of YinYang & Five Elements. The YinYang & Five Elements theory is the basic of oriental philosophies of Korean and Chinese area.

The point of this theory is the Vigor. The meaning of Vigor is the energy that dispersed in the nature. When the vigor gathers, it becomes lives and when lives died, it is dispersed and goes back as the Vigor.

The Feng-Shui Ji-Ri is based on the YinYang & Five Elements theory as like any other oriental philosophies, for example oriental medical, horoscopic data, physiognomy or fortunetelling.

According to the Feng-Shui Ji-Ri, the human being is born with the Vigor from Heaven and Earth, therefore human keeps the shape of heaven and earth in, as the very small universe. The Human is composed as heart, vigor and spirit. And these three elements are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Heaven, Earth, and greatness of nature.

After all, human is created with the Vigor has meaning of Heaven, the heart of Earth and the spirit of God between heaven and earth. Among them, the trial to know about specially the Earth has been developed systematically, as the Feng-Shui Ji-Ri. Human is born from the nature, so the growing of human depends on the absorption from nature.

The meaning of Propitious site in Feng-Shui Ji-Ri is the land with the Vigor. In the propitious land, mountain, water and YinYang make symmetry. Then this symmetry produces good vigor. The land satisfied these conditions could be the propitious site. For this reason, people draw it fine the land of grave or house, till the present.

Feng-Shui Ji-Ri has started from the question how can make harmony with the earth that keeps the live vigor, and developed as the trial to figure out the vigor of earth in the water flow or shape of earth..

There are few important elements to form the propitious site. One is the mountain. As like mountain has worshiped by everybody in the world, it has also worshiped by Korean as the guardian of village or country. Because, People believed that it has more power than human.

Water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element, as we can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Feng-Shui (it has the meaning Wind and Water,)

Another is the bearing, and there are two bearings, Yin and Yang.

If opposite bearings meet together, the good vigor can be produced, buy same bearings meet, there will be bad vigor.

Long time ago, The king, Lee Seong Kye moved the capitol to Hanyang from Gaesung, at the Feng-Shui Ji-Ri. Not only capitol, also palaces as like Kyungbok or changdeuk were positioned at the same way. Thus, we can sure that the Feng-Shui Ji-Ri was applied to the geographical condition of Seoul city.

Mt. Bukhan is the major mountain of seoul and its vigor is passed to the Bohyun-Bong on south, and from it, passed to the Mr. Bukak. This makes all over Seoul as the propitious site. Mt. Naksan that is in the left side of Seoul, has meaning of Chungyong, right side Mr. Inwang is Baekho, front side Mr. Namsan is Jujak, and rear side Mr. Bukak is Hyunmu. Seoul as the propitious site, is surrounded these 4 internal mountains.

This is one of the famous types of propitious site, According to Feng-Shui Ji-Ri, it is the reason why Seoul could be the economic, politic and cultural center.

At present, Seoul city has occupied land much more than before, and now it is surrounded with 4 external mountains, Mt. Bukhan for north, Mr. Deukyang for west, Mt. Kwanak for south and Mt. Yongma for east.

Chungkye-chun (stream) is from west of Seoul and passed through Seoul City. Firstly, it is started from Mt. Inwang for west, and meets with the water from Mt. Bukak for north. Then takes water from Mt. Naksan for east and Mt. Namsan for south, and joins with Han River, finally. From this point, the direction of water flows turns and flows to the west. We call it backflow. When the king, Lee Seongkye moved the capitol, Chungkye-chun ran through the Seoul, and now, Han River runs through the Seoul.

The ideal type of water in Feng-Shui Ji-Ri is the shape of bow. The important point is the internal part of the curve line of water flow as like bow. The Han River winds its way through south of Seoul till the Yeoui-Do. And flows straightly to the Kanghwa.

Up to now, we have confirmed geographical situation of Seoul city. And we can figure out that The Feng-Shui Ji-Ri is the scientific knowledge based on the experience and the geographical view that has effected to the Korean and other oriental race, absolutely. It is the natural wisdom to adopt only good thing to the real life after grasping the point of land shape, wind, water flow and etc. by YinYang theory.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we exclude it and can not see its real value, unfortunately because of the ill-advised western culture and almighty materialism.

Hereafter, It is really needed to study it systemically to make it practical knowledge that can be useful for selection of a residential area. Some of foresighted scholars are studying it separately, by themselves. However, to make it grow more, government or a search organization would handle it, in a full way.

Under the settlement of this activity and study of Feng-Shui Ji-Ri, it can be the new way of constructing a residential area. Moreover, it could present the new measurement for preventing destroy of nature and overcoming environmental pollution.